



5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5호

(루계 제775호)

차례

신군래양 위업은 영원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7)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8)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위원장으로 높이 추대(10)

래양의 언덕(시) 리 명 근(11)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12)

위대한 래양의 축복(시) 정 영 갑(12)

영원한 메아리(시) 김 길 성(13)

나는 보노라(시) 김 용 엽(14)

4월의 불타는 하늘이여 땅이여(시) 김 선 화(14)

막장의 환희(시) 박 상 민(15)

환희의 봄이 왔다(수필) 석 남 진(26)

주체문학의 대강(13)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은 오직 한분(혁명일화)(16)

단편 위대한 심장 허 문 길(17)

소설 분계선호랑이 김 영 선(30)

나는 노래를 부른다(시) 리 영 철(28)

행복의 기슭에서(시) 박 정 철(28)

처녀의 기쁨(시) 박 희 구(2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 공동구호에서 —

~~~~~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천만군민은 나간다 ~~~~~

|             |                             |           |
|-------------|-----------------------------|-----------|
| <b>단편소설</b> | <b>자 격</b> .....            | 백 상 균(55) |
|             | 울려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여!(장시) ..... | 허 수 산(44) |
| <b>평론</b>   | 시는 시대정신의 울림이며 메아리이다 .....   | 김 봉 민(48) |
|             | 성파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       | 리 창 유(69) |

~~~~~ 불구대천의 원수 리명박쥐새끼무리들에게 죽음을! ~~~~~

| | |
|--------------------------------|-----------|
| 병사의 선언 (수필) | 원 위 성(52) |
| 용서치 않으리라 (시) | 황 명 성(53) |
| 총대가 몸부림친다 (시) | 리 찬 호(53) |
| 잊지 말아다오 내 아들아 (시) | 류 정 실(54) |

◇ 시 ◇

| | |
|---|----------------------------------|
| 별에 울리는 노래 | 조 광 철(43) |
| 청산별의 모내기 | 김 학 룰(51) |
| 제강소여 너와 함께 (편지) | 김 정 삼(65) |
| 달이 알아 별들이 알아 | 위 명 철(73) |
| 봄새벽 모란에서 | 리 태 식(73) |
| 미곡별의 무지개 외 3편(벽시) | 조 영 일(74) |
| 젊은 소설가들의 창작에서 본 개성적문체 (연단) | 리 남 철(75) |
| 1920년대 시세계에서의 빛 (소개) | 류 병 관(77) |
| 마자르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대표자 | |
| 빼빼피 샹도르와 그의 시문학 (자료) | 박 용 덕(79) |
| 상식 | (25), (54), (68), (72) 조선속담 (27) |

표지3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선전화)

김 정 은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영웅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국의 근로자들과 평양시민여러분!
남녘의 겨레와 해외동포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군력사에 전례없는 오늘의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자의 대축전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전투력강화와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인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과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남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외국의 벗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

총대중시를 혁명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최정예의 혁명강군을 건설하신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선군조선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오늘의 대축전장도 성대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지금으로부터 80년전 백두의 수림속에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구한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20세기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왔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자랑스런 투쟁행로에는 강대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생사를 판 가리하는 준엄한 대결전도 있었고 부강조국의 만년터전을 다지는 대전설전투도 있었습니다.

그 나날 우리 혁명무력은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제일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항일빨찌산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군대의 절대적인 좌우명이었으며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고귀한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견결히 수호해온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앞에 쌓아올린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몰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례없는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벌리는 과정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줄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만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여있습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아로새겨온 백승의 력사가 있기에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가 있는것이며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천만년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것입니다.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우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결연히 분발해나서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입니다.

며칠전에 있는 력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ن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 없는것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대로 닮은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본태이며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방식입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전군을 항일의 총폭탄정신이 짝 들어찬 오늘의 7련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선을 군사정치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령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가 되여야 합니다.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전우로 굳게 뭉치고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이며 바로 여기에 군력강화의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전군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전우부대가 되여야 합니다.

지휘관과 병사는 다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맘형과 맘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며 병

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데서도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똥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것입니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 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태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혁명적본성을 잃지 말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무추동할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장엄한 역사적대진군에 펼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장장 수십성상 탁월한 선군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어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세계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 가장 권위있고 전도양양하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것을 결정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대표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천만년 길이 빛날 우리 당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화같은 흠모심과 감격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인류가 낳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이시며 백전백승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영원무궁한 행복이며 태양민족의 대경사이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을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민족사에 처음으로 강성번영의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회세의 정치원로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충정의 표시이다.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자주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태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항도하며 선군의 우리 조국을 영원무궁토록 온 세상에 떨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

태양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

회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우리 혁명의 최악의 역경속에서 선군정치를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국가정치체제를 확립하시어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태양을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천만년 받들어모시게 된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열광적으로 터쳐올렸다.

온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펼쳐주신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태양조선의 무궁한 영광이며 최상의 존엄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신것은 탁월한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공화국정권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어 **김일성**조선의 백승의 미래를 담보해주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만고의 전설적위인께 드리는 최상최대의 경모와 칭송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영원히 높이 모심으로써 백두천출명장의 특출한 선군혁명령도업적이 태양조선의 무궁한 력사에 천추만대 빛나고 우리 조국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천만년 존엄을 떨치게 되었다.

회의는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영원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묻쳐 총대로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며 장군님의 리상을 만대에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만방에 파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 강성번영을 위하여 선군혁명의 한길을 더욱 억세게 걸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출중한 위인적품모와 뛰어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시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시는 역사적인 시각 대표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며 선군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대경사이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절세의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빛내이시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여 빛나게 실천하시며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주체적군건설사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대표자회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의 심장이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락관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우리 당과 조국은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와 더불어 더욱더 찬연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광명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역사적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문무를 겸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지니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주체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인 이 시각 최고인민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담보하는 특기할 경사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모신것은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함께 혁명과 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고부동한 지지의 발현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참된 혁명동지, 전우가 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따라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태 양 의 언 덕

리 명 근

눈부시여라
여기 만수대언덕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아버이장군님의 동상이
태양의 빛을 뿌리는
오, 만수대 태양의 언덕이여

우러러 우러르며
햇빛같은 미소에 휩싸여
나는 오른다
너무도 소박한 꽃을 안고
삼가 태양의 세계에 들어선다

비쳐내리는 해살에
환희로운 걱정
너무도 많은 의미가 어려와
정녕 눈길 땄수 없구나
거룩한 성인들의 태양의 모습앞에서

혁명의 장장 천만리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계신
수령님과 장군님
금시 밝은 웃음소리도 들려올듯
웃음속에 나누시는 이야기도 들려올듯

김정일 동지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리도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은 아니신가
김일성 동지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그리도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던
아버이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아니신가

어려오오는구나
수령님 몸소 붓을 들어 쓰신
《광명성찬가》의 구절구절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며
우리 장군님 진두지휘하시어 일떠세운
주체사상탑 개선문 서해갑문...

함께 찾으신 공장은 얼마이고
함께 걸으신 초소길은 또 얼마이던가

수령님 먼저 걸으신 길이 있으면
장군님 그 길우에 자욱을 덧찍으시며
함께 걸으시는 심정으로 걸으신 길은 그 얼마...

하기에 우리 수령님
이 땅에 남기신 거대한 위업속에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한생이 빛나고
우리 장군님 남기신 찬란한 위업속에
우리 수령님의 력사가 세기를 이어 빛나더라

진정 수령님마음속에 장군님 계시고
장군님마음속에 수령님 계시기에
인민은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분으로 모시고
그 해빛속에 무궁한 세월을 이어왔나니

이 언덕에선 다 보이는구나
새 주체100년대의 시작을
보무당당히 뎌
조국의 밝은 앞날이
인민의 창창한 앞길이

주체위업 선군위업을 이으시여
태양의 그 빛발을 한몸에 안으신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따라 나가는 조국과 인민앞에
향도의 해빛은 찬란하다

그 앞날을 축복하신다
여기 만수대언덕에 계시는
수령님과 장군님
강성국가의 부강한 패일과
태양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해빛을 뿌려 축복하신다

찬란하여라 해빛이 넘치는 만수대
태양의 언덕에서 나는 보노라
해빛과 해빛으로 이어진
태양조선의 무궁한 패일을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그 모든것이 다 비껴있는 만수대
아, 위대한 태양의 언덕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조선에 대한 숭상이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에게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는 학교로 되고있다. 광활한 백두대지에는 대로천혁명박물관이 형성되었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백두산의 상징적의미는 풍부해졌다. 실제로 있어서 백두산은 이 미 30년대 후반기에 자기의 고유한 상징적의미외의 새 의미를 띠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

정 영 갑

못 잊을 태양절의 그 아침
김일성광장만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거리와 마을들에도
 크나큰 환희와 걱정속에 울려퍼졌다
 수령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을 축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하신 연설

북변의 작은 광부마을 우리 집에서도
 온 가족이 텔레비존을 마주하고 들었다
 4월의 푸른 봄하늘을 흔들며
 드넓은 우주에 가득차올리는
 그이의 음성을 새겨안으며
 나도 안해도 딸도
 한없는 기쁨에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백두산의 번개와 같고
 정일봉의 우뢰와 같은
 그 음성 심장에 메아리쳐 울릴 때
 우리는 추억아닌 현실로 보고 들었다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에 영광을 안겨주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세계를 놀래우며 울려퍼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음성에선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제일배짱가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이기시는 제일담력가의
 기상이
 마디마디 힘있게 넘쳐흘렀거니

어찌 우리 집뿐이었으랴
 광부마을사람들 어른들도 아이들도
 아니 온 나라 남녀로소모두가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그이의 그 음성에서
 온몸에 용솟음치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웃음속에 노래속에 줄달음쳐오는 소리를 들었다

하기에 뜻깊은 태양절 그날
 천만군민의 사기는 얼마나 드높았던가
 백두산총대를 틀어쥔 무적의 열병종대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기계화종대가
김정은결사옹위의 함성드높이
 광광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나아갔다
 선군조선의 국력을 누리에 떨치며
 도도히 장엄히 굽이쳐흘렀다

그 열병식을 보며
 함남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든
 광부 우리의 심장에서는
 불패의 강국을 이 행성우에 우뚝 올려세우신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열광의 환호가
 활화산처럼 솟구쳐올랐거늘

그렇다
 용용한 무적강군의 철의 흐름우에
 일심단결의 꽃바다우에
 손들어 답례를 보내시는 **김정은**장군
 그이의 축하연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축복

아, 환희로워라 영광넘쳐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리고울릴
 자애롭고 친근한 그 음성
 해빛처럼 밝고 파사로운
 위대한 태양의 축복이어

그 축복을 안고
 우리는 조선을 떨치리라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리라
김정은태양열풍으로 온 누리에
 자주의 붉은 노을을 펼쳐가리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주 체 문 학 의 대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다.》

《문학은 복잡한 인간생활을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묘사하여야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줄수 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진실성을 떠나서는 생활의 본질을 밝힐수 없으며 인식적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가령 제철소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린다면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내려치는 철의 도시의 생활전경을 현실 그대로의 화폭으로 펼쳐놓아야 한다.》

영 원 한 메 아 리

김 길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제1비서로 높이 추대!

4월의 대표자회에서
4월의 봄축전장에 올려퍼지는 환희에
패궁정마루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누리를 더욱 붉게 물들이고
압록강도 감격에 설레여라

온 나라는 격동과 환희의 바다
서로 열싸안은 가슴벽에서 울리는
소원과 념원이
내 사는 산촌마을에도 메아리치는
력사의 이날 이 시각이어

력사가 아로새긴 10월 8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비서로 추대한 날
그날에 올려퍼진 환희의 폭풍이
오늘로 메아리쳐왔는가
내 그날에 목청껏 웨치던 만세소리
그대로 울려오는 력사의 순간이어

력사의 그날이 있어 더 위대해진 우리 당
그이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
어버이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꽃피우며
시련의 언덕에서 영광의 오늘에로
곧바로 단숨에 달려왔나니

그 감격과 격동의 환희에
백두의 만병초는 망울을 터치고
벌목공들의 톱날은 번개를 날리고
광부들이 울리는 발파소리는
평양의 하늘가에 보내는 격정의 만세소리

그 감격과 격동의 환희에
아이들의 글소리는 더욱 랑랑해지고
답사대오의 붉은기는 더욱 붉어지고
이 산촌마을과 평양은 더욱 가까워지고
이 산촌마을사람들과 경애하는 그이
팔을 끼고 어깨를 튼튼히 걸고
이 환희속에 함께 계시고

이 기쁨 이 행복속에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
어버이장군님사랑의 력사 그대로 이어지고
어버이장군님리상이 더욱 활짝 꽃펴날
창창한 미래가 약속된
그이는 강성국가의 찬란한 태양이시거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제1비서로 높이 추대!
평양의 하늘가에 올려퍼진 격동의 환희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메아리로 화답하누나

—우리 운명의 태양 **김정은**동지를
이 조선 무궁토록 높이 받들어모시리!

나는 보노라

김 용 엽

지구조차 자전을 멈추고
해도 가는 길 멈춘듯
겨레와 인류의 시선 조명처럼 비낀
환희와 격정의 바다 **김일성**광장

오, 주체100년사
경축의 열병단상에 높이 서신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자자구구 밝은 해살로 쏟아져라
수령님과 장군님축복을 받으시며
천만군민에게 보내시는
열정에 넘치신 그이의 축하연설

백두령장들의 그 념원 그 리상 꽃피울
억척같은 결심 력사의 그 선언
총대마다 포신마다 새겨들고
척척척... 용기백배 나아가는
무적필승의 열병대오여

추억에 넘치시여
기쁨과 공지에 넘치시여
끝없는 철의 흐름을 바라보시는 최고사령관동지
보내고 또 보내시여라 축하의 답례를
수령님따라 피바다 불바다 천만리
장군님따라 고난의 선군길 천만리
승리로 헤쳐온 무적강군 열병대오여

만약 적들이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 한치라도 건드린다면
백두의 기상어린 령장의 저 손길따라
우뢰치는 발걸음 분렬장벽 허물고
단숨에 남해가에 닿으리라
무쇠철갑들 순간에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리라

백두의 기상어린 령장의 그 모습 우리들수록
가슴속에 차오르는 뜨거운 생각
그이 아니시면 과연 그 누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지키고 빛내이라
오직 그이의 령도만이 내 나라를
세기의 상상봉에 올려세울수 있기에
온 나라가 심장으로 받들어모신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해빛을 뿌리는 태양의 그 모습에서
나는 보노라
젊음이 약동하는 봄날같은 내 조국
온 세상이 부러워할 강성국가 내 나라를

정녕 나는 보노라
더 맑고 푸르게 열린 우리의 하늘
더 밝게 빛나는 이 강산과 이 행성을
하늘도 땅도
천만군민 온 인류가
해빛찬란한 그 품에 안겨 웃고있는 그 모습을!

4월의 불타는 하늘이여 땅이여

김 선 화

출강!
이글이글 끓어 사뭇치던 쇠물
출선구를 터치고 쏟아져나온다
사뭇쳐 흘러흘러
순간의 멈춤도 없이 편속조피기를 타고흘러
거세찬 우리 식 고온가스로 다시 몸을 덥히고
압연기마다로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뻘건 강피들의 도도한 흐름
출하장마다 쌓여지는 주체강철산악

장쾌하도다
또 한분 강철의 령장 백두의 천출위인을
우리 당 제1비서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우러러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
대를 이어 누려갈 조선의 행복에
민족이 터치는 환희의 분출인가
4월의 하늘에 땅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이여

아, 온갖 꽃 망을 터치는 이 봄날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펼쳐지는
력사의 분수령에 거연히 올라서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인민의 세상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분

그이는
선군의 기치높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주신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동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분

누리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
경축의 축포는 황홀한데
잠들지 못하는 이밤
어쩌면 철의 도시는 이리도 아름다우나
밝아올 강성부흥의 래일이 비낀 저 노을
어쩌면 철의 도시 사람들 잠들지 못하느냐
저 노을속에 영원할 끝없는 행복

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오직 한분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맡긴
하여 천만년 백전백승할 우리 당을
강철로 받들어갈
용해공들의 뜨거운 충정
압연공들의 불타는 맹세
붉게붉게 타올라 붉게붉게 퍼져가는
4월의 불타는 하늘이여 땅이여!

막 장 의 환 회

박 상 민

온 나라에 넘치는 걱정외 파도
여기 막장에도 가득찼는가
나는 탄부들과 함께
탄벽을 밀며 시상을 더듬는다

착암기정날끝에서
탄벽이 울리고
련속천공의 명수들
검은금 찾아가는 즐거운 시간
황홀한 탄밭으로 가는 행복한 길이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시였기에
탄부들 가슴은 긍지로 뿔뿔이

이제 터칠 발파로
중대는 상반년계획 넘쳐한다고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중대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 애송이탄부도 싱글벙글
막장엔 환희로 끓는 심장들이 쿵쿵...

착암기정대같은 붓이여
열정의 불이 솟는 막장과

탄부들의 모습만 그리지 말자
가슴에서 불타는 심장을 그리자
투박해도 진실하고 두말을 모르는
그 녀에 붓을 듬뿍 적시자

저 공훈광부의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뜨겁게 달구느냐
여기를 막장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영광과 축하의 회의장에 있는듯 하다는!...

이런 환회를 안고 내 쓰는 한편의 시가
한생토록 쓰고싶던 시가 아니냐
탄부는 막장 한끝에 있어도
마음속엔 푸른 하늘을 이고사는가
탄처럼 뜨거운 열을 안은 탄부들은
내 가슴을 뿔여주는 참다운 스승

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거세찬 함남의 불길 솟구치는 막장에서
우리 수령님 탄생 100돐도
이렇게 결사관철의 노래속에 맞이한 탄부들
이들이 가는 길은 땅속 깊은 곳이어도
언제나 밝고밝은 길이구나
위대한 아버이를 따르는 길엔
량만과 승리만이 약속되어있구나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은 오직 한분

주체83(1994)년 7월 19일, 이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심장에 새기며 눈물속에 수령님을 바래워드린 날이었다.

영결식이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국가주권기관 기구체계를 일부 고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해보자고 하시면서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에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곧 국가주석으로 추대할 생각만을 해오던 그들이었던것이다.

일군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심각한 침묵속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주석제를 없애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곧 수령님이시다, 주석이라는 말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뿔수 없는것으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지울수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친근한 존칭과 높은 명성으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뜨거운 걱정애 잠겨 아무런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셨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가장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아 오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나

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전 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분만을 금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립장과 자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생존시와 다름없이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오직 **김일성**주석 한분만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내이도록 하자고 결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자신의 결심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굳센 의지가 비껴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주석제를 없애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헌법의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하겠다고, 주석의 직함을 수령님과 함께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오금을 박듯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석으로 추대하게 될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는 때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기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을 고칠 결심을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이렇게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직함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되어 영원히 력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천세만세 불변할 그 성스러운 직함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충정의 세계가 비껴있다.

그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받들리어 이 땅에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생하고계신다.



위대한 심장

허 문 길
그림 김 광 석

(전호에서 계속)

5

이날 저녁 식사시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갯도입구에 지어놓은 자그마한 야외식당으로 홍명희를 불러주시었다.

홍명희가 식당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룡조로 말씀하시었다.

《다른것은 없구 아까 사온 떡인데 같이 들어야 도리일것 같아서 찾았습니다.

사실인즉 떡을 겨우 찾아왔습니다. 부관실동무들이 저들끼리 우물썸해서 다 요정을 내자는걸 누구 돈으로 사온것인데 그게 어디 법도가 됐느냐고 했지요, 허허…》

김일성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홍명희는 **김일성**동지의 우스개소리에 벌써 눈곱이 축축해왔다.

방금전에 부관으로부터 구운 떡이 여기로 옮겨진 사연을 다 듣고왔던것이다.

...

부관이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받고 할머니에게로 갔을 때였다.

또다시 나타난 젊은이가 나머지 떡을 자기가 다 사겠다고 하자 로인은 눈부터 휘둥그래졌다.

헌데 일은 부관이 돈을 물고난 뒤에 벌어졌다.

5백원에다가 우수리까지 달린 돈을 다 받으라고 하니 로인은 아까 홍명희앞에서 하던 소리를 다시 외우며 딱 잡아떼고 거스름돈을 내주는것이였다.

그래서 받으라느니 안 받겠다느니 시장안에서는 장사거래에 없는 싱갱이가 벌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 헐치 않은 임무라고까지 말씀하시던것을 생각한 부관은 돈을 받아들고 그냥 돌아설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돈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수 보내주신 돈이니 할머니가 받지 않으면 장군님께서 노여워하실것이라고 엄엄하게 실토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로인이 자리에서 젊은이들처럼 기운차게 일어나며 소리쳤다.

《임자! 다시 말해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할머님! 할머님은 방금전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를 뵈왔습니다. 함께 왔던분은 장군님을 보좌해드리는 홍명희부수상동지입니다.》

《뭐요?... 그러니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건가?... 그게 랑설은 아닐테지?! 세상에 이런 꿈같은 일이...》

로인은 그만에야 사개가 풀린듯 자리에 폭삭 주저앉았다.

온몸에 한방울의 눈물도 없을것만 같던 대차고 영악스럽던 로인의 불편으로 삼시에 뜨거운 눈물이 이랑을 지어 팔팔 흘러내렸다.

《임자도 고약하이, 어찌 이 늙은이한테 귀뽕 한번 못해주나. 어휴 세상에, 이 늙은게 이젠 세상살이를 다했지.

보고싶고 또 보고싶던 그분을 뵈고서도 몰라보다니... 이 늙은이의 외람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데 있담...

임자, 그러하니 더구나 이 돈을 받지 못하겠네. 그리고 젊은이, 이 떡을 가져가지 마슈. 이 구절스러운 늙은이 험한 손으로 만든 장마당음식을 어이 장군님께 올린단 말이요, 세상에...》

《할머님, 고정하십시오. 돈을 꼭 올리고 떡을 다 사오라고 하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내리신 령입니다. 장군님의 부하인 제가 장군님의 령을 어기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의 장군님은 원체 그런분이십니다.》

《안되네. 그러면 백성은 제 도리를 잃고 살아도 된다는건가?》

《할머니!》

부관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기의 여윈 허벅다리를 두드리며 설분을 토하는 로인의 허리를 조심히 안아 풍로앞에 있는 걸상에 앉혀주었다.

그리고는 로인의 속을 위로해주느라고 한참 땀을 뻘뻘 흘렸다.

부관은 로인의 일손을 거들어 풍로며 지짐판이며 그릇들을 거두어가지고 차에 실은 후 로인이 살고있는 가루개골짜기 토굴집에까지 실어다주어야 돌아섰다.

로인은 부관을 바라우며 절대로 자기가 구운 장거리음식을 장군님께 올리지 말아달라고, 수하분들이 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눈귀로 애원의 눈물을 흘리며 두번세번 곱씹어 당부하였다.

그런데 저녁시간이 되자 부관에게는 난처한 일이 생겼다.

김일성동지께서 오늘 저녁은 시장로인이 구워준 떡으로 치르자면서 홍부수상을 모셔오라고 하시였던 것이다.

이미 떡을 부관실일군들과 통신대처녀들의 식당에 보내준 부관은 그이의 말씀을 듣자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주뭉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내 부관의 거동에서 전후사연을 짐작하시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타이르시다가 부관이 인차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정색을 하고 엄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지 마오. 로인이 구워낸 떡을 평양성사람들이 다 맛있게 사먹는데 내라고 왜 들지 못한단 말이오.

동무도 산에서 풀뿌리, 나무껍질로 살아온 사람이지.

어서 가져오오. 오늘 저녁은 홍부수상과 함께 꼭 그 로인이 구워준 떡으로 해야겠소.》

...

이윽고 주방실에서 다시 따끈하게 데운 떡이 들어왔다. 차그마한 방안은 참기름의 고유한 냄새가 차고넘쳤다.

《어서 드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에게 수저를 쥐여주시고는 자신께서도 떡을 드시었다.

《하, 별맛입니다. 이 전쟁속에서도 이렇게 떡을 빚고 시장에서 다시 구워 손님들에게 대접한다는게 고마운 일입니다. 내 어릴 때 말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인이 허드레음식이라고 했다는 구운 떡을 맛스럽게 드시면서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어머니가 이따금 시장으로 올 때면 나도 데리고 나오셨지요.

겨울이면 지짐판에 이렇게 노랑게 구워낸 절편을 사주시었는데 그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렇게 떡 하나를 내놓아도 예나제나 정을 고이지요.》

《예-》

홍명희는 또 한번 명치 한끝이 찡 울렸다. 못사람들은 스쳐가는 범상한 일에서도 민족의 향취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귀하게 내세우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천품이 눈물겹게 안겨드느것이였다.

그리고 올리지 말아달라고 곱씹어 당부했다는 그 장거리음식을 달게 드시는 장군님께 그 로인을 대신하여 엮드려 절을 올리고싶은 심정을 누를수 없었다.

《나는 오늘 시장을 돌아보면서 여러가지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예로부터 평안도사람들은 기상이 엄엄하고 성질이 깨끗하다고 맹호출림이라고 불렸습니다. 자기의 존엄을 짓밟는 침략자들과는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싸운 우리 인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인민입니까. 얼마나 강하고 억센 인민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나라와 한피줄을 이어놓고사는 이 나라의 참된 주인들이였습니다.》

《장군님, 저는 오늘 장군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홍명희라는 령감이 언제면 장군님의 뜻을 따를수 있겠는가 하는 눈물겨운 심회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참 홍선생님, 또 그런 말씀입니까? 어서 떡을 마저 드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가 진정을 고여 자책에 눌린 말씀을 드리자 손을 내저으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홍명희는 이러루한 자책을 김일성동지앞에서 드문히 꺼내놓곤 한다.

(장군님을 따르자. 생각도 실천도 장군님을 닮자.)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홍명희의 변함없는 사업의 지침이요 생활의 좌우명이다.

그이를 모시고 사업하는 기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반만년력사에 없었던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끌어가시는 그이의 모습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모자라는 구석을 새라새로이 찾아내며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오는 홍명희였다.

홍명희는 이날에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을 다시 정리하여보았다.

불현듯 그의 눈앞으로 어느 가을날 석양의 호수가 후더운 감회속에 떠올랐다.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와 함께 호수를 거니시면서 《림격정》을 보신 소감을 피력하시였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 민족의 향취에 대한 애착,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동정과 량반계급에 대한 환멸...

자기 계급의 속박을 초연히 털어버리고 무산 계급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이어가고저 하는 정의로운 필자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치하에 홍명희는 더욱 황송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때 홍명희는 자기가 지은 작품을 지도받는 소학생의 심정이 되어 **김일성**동지께 무릅없이 청을 드리였다.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길고 난삽하기 그지없는 저의 줄문을 다 읽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니 황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다시 다듬어야 할것도 적지 않은줄로 압니다.

그래 장군님의 편달을 꼭 듣고싶습니다. 한가지라도 장군님께서 고견을 내놓아주신다면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작가들이란 칭찬의 말보다 험구에 귀구명을 넓혀야 대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홍명희가 이렇게 루루이 설명까지 붙이며 간절히 부탁드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기부터 하시였다.

《험구에 귀구명을 넓혀야 대성을 한다구요?... 거참 명답입니다, 명답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인생살이나 글을 쓰는거나 그리고 사회를 개조하는 커다란 사업에서나 리치는 엇비슷합니다.

칭찬의 말보다 비판을 중시하는건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지요.

그런데 이젠 뭐 비판이나 험구는 아니구 그저 욕에 티라고 할가요.》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짓자 홍명희는 더욱 등이 달아 간절하게 아뢰였다.

《장군님, 어서 말씀하여주시시오.》

《뭐라고 할가?... 이 책에는 전편에 걸쳐 선생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리념이 맥맥히 흐르고있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그렇게도 정감을 가지고 훌륭하게 그려내는것이 어느 작가나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억눌린 인민의 힘에 대한 신뢰라 할가... 이 땅의 력사는 결국 천대받는 백성들이 창조한다는 그러한 력사의식이 다소 부족되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날 홍명희는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깊이 뇌리에 새겼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말씀의 철리를 새기기는 하였지만 그 심원한 뜻을 다 터득하지 못한것이다.

결국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장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인민에 대한 뚫어넘치는 애정과 믿음을 뜨겁게 확인하고 오시었는데 이 홍명희는 감히 어떻게 단언을 내렸던가. 시장문을 닫아야 한다고?

언제면 장군님의 거룩한 뜻에 걸음을 따라세울수 있을까?

홍명희는 식탁수건으로 입가를 조심히 닦고나서 저르기 자책어린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시장문제와 관련한 대책안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좋은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반갑게 물으시였다.

《글쎄 아직은 석연한 묘안은 없지만 장군님께서 그걸 바라신다는 생각만은 명백해졌습니다.

장군님께서 시장을 폐쇄할것이 아니라 계숙문을 열되 안전하게 주민들이 장을 볼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것을 바라십니다.》

《아, 홍선생님, 옳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홍선생이 내 생각을 신통히 짚어냈습니다.

저 훌륭한 인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무슨 최고사령관이구 부수상이겠습니까?

난 정말 오늘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속에 눈물을 한동이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가슴 쓰린 눈물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렇듯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아들이라는 커다란 행복과 자부심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철물을 모아 주민들에게 팔아주는 철물가게주인도 그렇고 대동강물고기를 잡아팔면서도 제집에서는 물고기국이나 쌀밥을 못 먹게 하면서 전선을 후원하는 그 한팔 없는 숭어집주인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사람 말처럼 그래도 이 폭격속에서 물고기집을 메고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전선용사들이 고향집에 들렀다가 고향의 숭어국 한그릇이라도 먹어보고 일어설게 아닙니까.

우리 인민은 원래 이렇게 성정이 곱고 대바른 인민이지요.

난 영웅의 할머니앞에서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폭탄속에서도 무럭무럭 번성해야 한다는 로인의 그 대쪽같은 기상이 얼마나 억세고 의롭습니까.

로인의 말대로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의 씨를 말리려고 악착하게 덤벼들어도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고 우리를 만들어주고있는 한 조선민족은 영원히 번성할것입니다.

홍선생님! 이것이 조선의 녀입니다! 이것이 조선사람의 기질입니다!

난 오늘 불멸할 우리의 수도에서 드높이 맥박치는 위대하고 신성한 민족의 녀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조선의 녀를 지켜주고 더욱 뜨겁고 찬란하게 빛내여줄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군님!... 제가 정말...》

홍명희는 울컥 치미는 걱정을 금치 못해 눈곱에 뜨거운 눈물을 담고 목메어 말쑤올렸다. 속죄의 말쑤를 꼭 드리고싶었으나 받아안은 감동이 너무도 커서 그저 속이 화독처럼 핫핫 뜨거워오를 뿐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커다란 감동을 주체 못하는 홍명희의 손을 잡아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담으시었다.

불의앞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성을 내다가도 자기의 실책앞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처럼 마음이 맑아지어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자신을 뉘우치고 어렵지 않게 새로운 걸음을 기꺼이 내�밟는 순결한 홍명희였다.

《그러니 우리는 장마당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대책하는 문제에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만족한 어조로 말쑤을 이으시었다.

《시장운영에서 규정도 고쳐야겠습니다.

이렇게하면 할머니나 철물가게주인과 같이 어렵게 지내는분들에게는 장세를 면제하든지 적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리윤의 폭이 큰 장사군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게 하여 리윤균형을 맞추도록 해야겠습니다. 평양뿐아니라 도소재지들에서도 시장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차 문건을 올리겠습니다.》

홍명희의 목소리는 벌써 힘차게 울렸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한구절한구절 머

리에 새겨넣으면서 이번에는 시장문제와 관련하여 그이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리라고 굳이 마음을 다지였다.

6

이날 저녁 홍명희는 아래일군들을 자기 방에 불러다놓고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말쑤를 전달하였다. 자기를 심심하게 비판도 하였다.

그리고 시장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문제이니 장군님의 뜻이 철저히 구현된 대책안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 방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엄명을 내렸다.

이날부터 홍명희와 관계일군들은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문건작성에 달라붙었다.

홍명희는 반나절씩 시간을 주고는 둘러앉아 의견을 종합하고 협의에 붙이면서 한조항, 한조항을 완성하여나갔다. 런 사흘동안 홍명희의 사무실에서는 한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장마당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꾸리는 문제였다.

시변두리에 만들어놓는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설정되자 그러면 시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장보러 가겠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각 기각되었다.

시장운영을 밤에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기다린듯이 반론자가 나타나 불빛없이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고 제기하여 그것도 기각되었다.

시장들에 대피호를 여러개 파주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안도 술한 사람들이 공습경보가 일어나면 복닥소동을 벌리겠는데 그것 역시 피해를 막을수 없다는 의견에 놀리우고말았다.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다람쥐채바퀴처럼 돌군 해서 안타깝게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새벽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글바글 끓는 속을 다잡을길 없던 홍명희는 새벽녘에 포화상태에 빠져든 머리도 식힐겸 그 무슨 실마리같은 착상이라도 건어쥘수 없을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갠도밖으로 나왔다.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기던 홍명희는 서리꽃천지로 변해버린 채석장 주변숲의 신비로운 광경에 그만 저도 모르게 입이 크게 벌어졌다.

로송나무는 머리우에 서리꽃을 담뿍 이고 위엄있게 서있는데 잡관목들은 가지마다 은백색서리꽃을 하얗게 피워가지고 아침바람에 하얀 꽃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쾌청하고도 아름다운 풍치를 둔

구고있다.

날씨도 잠퉁한데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뿌옇게 흐려보이던 사흘전의 하늘보다는 훨씬 높이 들리고 한결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허, 그렇지. 립춘이 가까와오는구나. ... 내가 굴에 붙박혀서 봄아씨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소리를 모르고 지냈구만.》

홍명희는 지겨운 겨울을 밀어내며 봄이 찾아오는 대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듯 잠시 갱도입구에 서서 서리꽃동산을 둘러보았다.

그러노라니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져서 우썩우썩 기운을 주어 며칠째 근육이 풀린 팔다리를 흔들다가 천천히 숲길에 들어섰다.

맞은편숲속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쪽을 유심히 보니 **김일성**동지께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시여 산책을 하고계시었다.

홍명희는 황황히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그이께로 켜걸음으로 다가가 아침문안을 드리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며 아침처럼 신선하고 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홍선생이 요즈음 아래사람들과 함께 방에서 지새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에 꼭꼭 여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하십시오.》

그리고 점심에는 다문 30분이라도 오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주 홍선생님에게 로당익장하시라고 덕담을 하면서도 년세 많으신 홍선생을 너무 혹사시키는것 같습니다.》

《원참 장군님, 그런 말씀을 거두십시오. 저는 장군님슬하에서 스무해는 젊어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모르는줄 압니까.》

《나야 아직 젊지 않습니까? 요즈음 선생님의 해소병이 도진것 같은데 아마도 습기찬 굴안에서 너무 무리하시는데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선생님이 거처할 방을 이 바깥에도 한채 지어야겠습니다. 공습경보가 있으면 갱도에 들어가고 밤이나 공습이 없는 날에는 낮시간에도 밖에서 일을 보시도록 하십시오.》

《장군님, 이 늙은이에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이 어데 한두가지입니까!》

홍명희는 장군님께서 자기의 신상을 다심하게 념려하실수록 더욱 송구해지고 몸이 졸아드는듯 싫었다.

더구나 지금 장군님께서 시장문제와 관련한 대

책을 기다리고계시겠는데 그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물으시지 않으시자 더없이 속이 달아오르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드디어 홍명희는 타드는 속을 감추지 않고 장군님께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었다.

《장군님앞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시장관리문건을 기다리시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저희들의 생각이 모자라 아직도 신통한 비방을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

홍명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초달을 기다리듯 고개를 떨구고 서서 그이의 말씀을 기다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며칠새에 불이 꺼져들고 수북한 장미밀에서 피로한 기색이 력력한 충혈진 홍명희의 안색을 근심어린 시선으로 쓰다듬으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었다.

《문건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내는건데 쉽게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었습니까?》

《시장운영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기본원칙으로 내세워주신 시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꾸리는 문제가 쉽게 매듭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공습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자면 그 무슨 과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놓고 모여앉기만 하면 구구한 론쟁끝에 또 시작점에 돌아가 제자리걸음을 합니다.》

홍명희는 자상히 사흘동안의 고충을 다 털어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홍명희가 말끝에 긴 한숨을 내쉬는것을 보시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이께서는 하얗게 서리가 돋친 숲속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다가 홍명희에게로 돌아서시었다.

《그만큼이면 연구도 깊어졌고 무척 진척되었습니다. 사실인즉 시장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긴급과제입니다.》

나는 요즈음 미군비행기들이 당장이라도 시장에 달려들가봐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서해상공으로 달려든다면 여기 평양까지 잠깐이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홍선생이 언급한것처럼 시외로 옮기면 술한 사람들이 로상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신통한 해결책은 못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민들에게 마음을 놓고 장을 볼수 있는 장마당을 마련해줄수 있겠는

가. 홍선생의 말처럼 파격적인 대책이 서야 합니다.

나도 요즈음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굴러봤는데 그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시다가 무춤 동안을 두시고 홍명희를 바라보시었다.

홍명희는 언제나 그러하듯 그 어떤 비상한 역사적인 용단이 **김일성** 동지의 비범한 사색과 담력속에 불쑥 솟아오르리라는 커다란 환희속에 그이를 우러렸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른주먹을 높이 추켜드리며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래 다른 선택은 있을수 없습니다.

난 어제 저녁에 어떤 공습에도 끄떡없는 시장을 지하에 만들어줄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갑시다!》

《예?! 지하에 시장을 말입니까?!》

홍명희는 무엇인가 헛갈려들은것 같아 되물을수 밖에 없었다.

참으로 그것은 그 어떤 위인들도 상상할수 없는 거창하고 혁신적이고 대담한 용단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크게 놀라는 홍명희를 지켜보시다가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금 확정적인 어조로 설명하시었다.

《땅속에 굴을 널직이 파서 시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야 미군비행기가 제아무리 폭탄을 던져 봐야 헛일이 아니겠습니까. 홍선생 의견은 어떠합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야!... 이건 그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인류의 전쟁사에 특기할만 한 역사적사변입니다! 지하시장이라!... 이건 정말 장군님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비상한 결단입니다!》

홍명희는 너무도 꿈같은 장군님의 결단을 놓고 그를 평가할수 있는 자기의 지적인 준비가 부족하게 안타까운듯 이렇게 아이들처럼 환성을 올리기부터 하였다.

땅속에서 떡을 구워팔고 물건홍정도 한다! 이건 정말 옛말같은 일이다! 아니, 이런 옛말이야기를 그 누가 생각해내랴!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없을 전설같은 사변이다! 그러나 감격의 상승기가 가라앉자 그에게는 실무적인 난문제들이 먹구름처럼 눈앞을 가리웠다.

울해초에 내각청사위치를 잡을 때 있었던 일들이 때없이 감쳐들었다.

《지금 전선에서는 한그람의 폭약, 한사람의 폭파수도 귀합니다.》

그것은 장군님을 모실 집무실을 전망적으로 서

문밖앞산에 굴을 파고 꾸릴데 대한 의향을 내비치였을 때 그이께서 엄하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전선이 38도선에서 고착될수 있는 전쟁정황을 고려하여 진지전을 적극 벌릴데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여기에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선고지들을 요새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벌써 홍명희의 심중을 넘겨짚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물론 필요한 폭약과 폭파수들을 확보하는것은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민의 생명과 생활터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내가 며칠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조선사람의 넋을 지켜주는 문제입니다.

로력과 자재가 좀 든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홍선생님, 우리의 전쟁도 결국은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시장문제를 놓고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같아서는 땅속에 궁궐같은 멋진 시장을 만들어주고싶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최단시일내에 완공해야 합니다.

지하시장은 평양뿐아니라 도소재지들에도 하나씩 꾸려줍시다. 시, 군소재지들의 시장도 전반적으로 정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 이설하도록 합시다.

난 어제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단을 내리고나서 지하에 극장도 마련해서 평양시민들에게 노래와 춤을 보여줄 생각도 하였습니다.》

《지하극장 말입니까?!》

홍명희는 **김일성** 동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거창하고 경이적이고 꿈같아서 그 어떤 신비경에 휩싸여있다가 극장소리가 나오자 또 한번 몸을 흠칫 떨었다.

《홍선생님, 그렇게 합시다. 인차 군사위원회에 제기할 결정서초안을 잡으십시오.

지하극장위치는 모란봉이 좋을듯싶습니다. 우리 그곳에다가 인민들이 즐길수 있는 예술의 전당을 지어줍시다.

평양시지하시장은 전날에 선생님이 내각청사 자리로는 명당이라고 하던 사창시장 맞은편등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창시장 맞은편등성이 말입니까?》

홍명희는 경충 놀라며 이렇게 큰소리로 되물었다.

이미 그곳에 장군님을 모실 강도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면작성과 로력, 자재, 설비준비가 끝나가고있다.

민족보위상(당시)은 며칠후에 공병중대를 불러들여 공사를 시작하겠노라고 바로 엿그제 점심 녘에 약속하였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자고 서로 굳이 의논까지 되었었다.

홍명희는 그날의 약속부터 떠올라 서둘러 말쑥을 올렸다.

《저... 시장위치는 저희들이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홍선생, 나도 어제 저녁 전선에서 돌아오다가 그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파시 명당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쪽에서 파들어가면 남과 서로부터 미군놈비행기들이 달려들었잖아 범접하기 힘들것입니다.》

그쪽으로 합시다. 명당자리를 두었다가 어데 쓰겠습니까. 우리 평양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뭘 아끼고 꺼릴게 있습니까. 홍선생, 그렇게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명희의 결단을 촉구하시듯 다시금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홍명희는 더는 피해설 길이 없었다.

그리고 김일성동지께 장차 그쪽에 집무실을 마련해드려야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민족보위상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또 자기더러 너무 무르다고 칭언을 하겠지만 어찌는 수가 없었다.

그때 홍명희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드려었다.

《장군님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순간 못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진동시키며 속안의 자그마한 허물도 깨끗이 정화시켜주시는 유정한 미와 호방한 기개가 느껴지는 그이의 그 특유한 장쾌한 웃음소리가 서리꽃천지를 흔들며 하늘높이 터져올랐다.

그 웃음소리에 홍명희의 속은 삽시에 쨍— 하고 열렸다.

찢광이덤불속에 깃을 내리고 잠들었던 한무리의 새떼가 그이의 웃음소리에 깨어나 포르릉 날아올랐다.

《아, 우리 동거자들의 새벽단잠을 깨쳤군.》

그이께서는 머리우에서 우짚으며 날아가는 새무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며 꺾꺾 웃으시었다.

새들은 그이의 머리우에서 그냥 크게 원을 지으며 돌아간다. 그러다가 서리꽃을 피워 머리에 이고있는 로송나무가지들에 술방울처럼 대롱대롱 맺혀가지고 팔알같은 눈알을 대룩거린다. 그 묘한 부리를 벌리고 일제히 새날의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하였다.

새들이 오르내리는 서슬에 서리꽃이 흩어져 그이의 옷자락에 하얀 꽃보라처럼 내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들이 지저귀는것을 즐거운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홍명희에게 돌아서시었다.

《좋은 새벽입니다. 홍선생이 동의하셨으니 시장위치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시장문제는 이것으로 마음을 놓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큰 시름을 덜어놓으신듯 사뭇 밝으신 안색으로 홍명희를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이제 지하에 시장이 서고 그안에서 인민들이 마음을 놓고 장을 보게 될 생각을 하니 그이께서는 절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우시었다.

며칠전에 만났던 로인의 말이 생각나시었다.

미군놈들이 조선사람의 씨를 말리려고 해도 절대로 안된다고 했지. 우리 민족은 불속에서도 무럭무럭 번성할것이라고 했지.

그때, 그게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이지... 할머니, 이젠 마음을 놓고 떡을 구우십시오...

어느덧 회부영던 하늘이 행창하게 밝아졌다.

《자, 날이 밝습니다. 이 새벽에 우린 또 한가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로인같은분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보조금을 지불하는 문제도 토론해봐야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쁨에 잠기시여 홍명희의 팔을 끼시고 숲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홍명희는 그냥 가슴이 쿵쿵 세차게 뛰었다.

그이로부터 받아안은 너무도 큰 충격에 심장은 흉곽을 꺾지르고 튀어나올듯싶었다. 그 세찬 박동이 뇌리에 뜨거운 공명을 일으켜 웅건한 력사의 화폭을 펼쳐놓은것이였다.

참으로 이분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반만년 이 나라 력사에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곳에서 이처럼 걸출한 영걸을 보았더냐.

선망의 눈길도 있지만 우려의 눈길도 있다.

며칠전에 보았던 서방통신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비좁은 반도의 땅, 그 땅에서 아직도 생명이 존재하는것이 의심스럽다. 하늘은 불타고 땅도 꺼져든 황량한 폐허...》

우리의 한 시인도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던가.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

바로 그 땅, 숨이 꺼져든듯 한 그 땅, 재더미만 남은 도시에 바로 지하시장이 건설된다!

지하극장의 무대에서 선녀들이 너울너울 춤가락을 펼친다!

나팔이 풍썩거리고 가야금이 뚝뚝거린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도시의 땅밑에서는 인민의 삶이 약동하며 활기 띤 랑만이 내려친다!

홍명희에게는 인간을 무시하는 작가적인 안목이 있었다.

인간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것은 작가의 고유한 직분이며 재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홍명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인간상을 몇마디로 특징지을수 있는 그런 말을 여적 찾지 못하였다.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있을수 있다더냐.

그 바닥이 짙어지지 않고 그 높이가 보이지 않고 그 폭이 가늠되지 않는 세기의 위인의 무변광대한 세계!…

…

문득 갱도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가루개에서 들어오는 도로의 보초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뒤따라 자동차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부관이 자그마한 함지박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오다가 **김일성**동지를 뵈자 열른 함지박을 내려놓고 인사를 드리였다.

《무슨 일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소 먼구스러운 거동으로 함지박을 두다리로 가리우고있는 부관을 웃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물으시였다.

《방금전에 전번 장군님께서 만나신 일이 있는 떡장수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떡장수할머니가?… 원참 동무두, 그 할머니 들었다간 종아리를 맞겠소, 영웅의 어머니를 보고.》

그이께서는 떡장수할머니라는 말이 듣기가 거북스럽기도 하시여 우스개소리로 가볍게 나무람하시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슨 일때문에 새벽참에 왔다고?》

《뭘 별건 아니구…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인즉 꼬박 사흘밤을 뜬눈으로 새우다가 왔다는겁니다.》

《사흘밤이나 새우다니? 어째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차 안색을 흐리시며 다그쳐 물으시였다.

《장군님께 구운 떡을 팔아드리고 돈까지 약차하게 받았으니 아무리 생각해야 백성도리가 안되

였다는겁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동네사람들이 할머니를 되게 편잔한것 같습니다.

더구나 전선에 가있는 아들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찌할고 하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원참… 그 일때문에…》

《그래 이 새벽에 장군님을 뵈고 사죄를 드리고… 돈도 도로 드리고싶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군님께 한끼 찰떡을 올리고싶어 알알이 고른 찹쌀과 팔을 이렇게 가지고왔습니다.》

부관은 뒤에 밀어놓았던 함지박을 그제야 슬며시 내놓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찰떡을 제 손으로 쳐올리고싶지만 늙은이가 힘한 손으로 만들어올리는것이 마음에 걸리어 저희들더러 찰떡을 이리저리 치고 팔보송이를 이리이리 만들어서 한끼 대접해드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시여 함지박에 있는 찹쌀과 팔을 랑손에 한웅큼씩 집어드시였다.

새하얀 쌀과 윤기가 자르르 도는 팔알들이 손가락새째로 흘러내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찌르르해오는것을 느끼시였다.

(이 사흘동안 로인은 이 쌀과 팔을 알알이 고르느라고 떡구이도 하지 못했겠구나.… 그런데 무슨 사죄란 말인가?)

그이께서는 가슴속에 차드는 감개를 금치 못하시였다.

지금도 피로움에 시달리고있을 로인앞에서 미안한 심정을 가무릴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인을 다시 보고싶으시였다. 로인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주고싶으시였다. 그리고 그 로인이 키워내는 손자들도 보고싶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쌀과 팔을 도로 함지박에 놓으시며 물으시였다.

《그래 그 할머니를 어디 모시였소? 어서 모셔오오.》

《돌아왔습니다. 걸어가겠다고 하는것을 차에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에 장군님 계시는 곳이 어디냐고 하더니 큰절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이제 봉산에 있는 팔집에 간다고 합니다.》

《봉산에? 그럼 손자들은 어떻게 하구?》

《힘은 들어도 딸네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어주며 손자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뭘요?… 할머니가 그 년세에 무슨 농사일이요. 그래 언제 떠난다고 했소?》

《이제 집에 돌아가면 새벽바람으로 손자들을 데리고 떠나간답니다.》

《랑패로군. ...》

김일성동지께서는 크게 랑패스러워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이렇게 혼자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어찌 날 찾아온 할머니를 그렇게 돌려보냈소? 동무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지내온 사람인데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모른단 말이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노여움이 서린 음성으로 부판을 책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소 급하신 어조로 부판에게 지시를 주시였다.

《우선 당장은... 동무가 이길로 할머니를 찾아가시오. 평양을 떠나지 말라구, 이제 지하에 시장을 큼직하게 건설한다고 말해주시오. 아니, 아니요. 내가 가겠소. 차를 준비시키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초조해하시였다.

로인이 이제 당장이라도 울망줄망한 아이들을 앞세우고 새벽길에 나설듯싶어 마음이 급해지시였다.

빨리 로인을 만나 로인의 까맣게 탄 손을 잡고 로인의 아픈 속도 풀어주고싶으시였다.

《장군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한데 할머니한테는 제가 인차 갔다오겠습니다.》

부판이 이렇게 고개를 떨구자 홍명희가 앞에 한 걸음 나서며 말씀을 드렸다.

《제가 가서 장군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그 로인을 데려오겠습니다.》

《아니 홍선생님, 내가 가야 합니다. 대신할 일이 따로 있지요. 이런 일이야 누가 대신해줄수 없

지요. 로인에게서 내가 큰 힘을 얻었는데 그것때문에 로인이 괴로워하신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난 그 할머니가 보고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그 로인부터 만나봐야 일이 손에 잡힐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부판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저 함지박에 있는 쌀과 팔도 자동차에 실어야겠소. 난 동무들과 함께 꼭 그 할머니가 직접 빚어주는 떡을 들고싶소. 전쟁의 불길속에서 여섯 손자를 거느리고 억세게 살아가는 그 할머니의 손으로 빚은 떡을 말ियो.》

잠시후 **김일성**동지께서 타신 승용차가 채석장을 떠나 가루개재등으로 올라섰다.

뿌연게 흐린 눈으로 **김일성**동지를 바래워드리던 홍명희는 그이를 우러러 허리를 깊이 숙이였다.

온몸에 산악같은 무게를 가진 그 어떤 비상한 힘과 배심이 든든히 자리잡는것 같았다.

부지중 그의 입속으로는 열찬 부르짖음이 튀어올랐다.

(맥아더, 이놈!

초토화를 열번 해봐라! 네놈족속들을 다 끌고 덩벼들어봐라.

원체 네놈이 대적이 되는 놈이냐?!

...

아, **김일성**민족은 이제 소리치며 번성할것이다.

력사의 기슭에서 수난받던 인민을 넓으신 한 품에 안아 피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기를 돋구어주시는 저 위인의 심장...)

홍명희는 자기의 사무실을 향하여 힘있게 걸음을 옮겼다.

상 식

생명과학의 새로운 영역 펨토생물학

새 세기 3대과학기술분야의 하나로서 세계를 놀래우고있는 나노과학이 물질의 특성과 그 호상작용을 나노크기에서 연구하는 과학 즉 나노크기의 공간분해능으로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면 펨토과학은 대단히 높은 시간분해능(펨토초 $fs=10^{-15}s$)으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재 펨토과학은 주로 3가지 분야 즉 펨토물리학, 펨토화학, 펨토생물학으로 발전하고있다.

펨토생물학은 펨토레이자기술을 리용하여 생

명체안에서 일어나는 초고속빛물리학 및 빛화학, 빛생물물리학적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나노생물학이 나노크기의 공간분해능 즉 단분자수준에서 생명운동법칙을 연구한다면 펨토생물학은 fs의 시간분해능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한다.

본격적인 연구단계에 들어선 펨토초기술은 자연계의 여러가지 초고속동력학적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환희의 봄이 왔다

석 남 진

잔디는 푸르고 갖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4월의 봄명절!

맑게 개인 하늘에서는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제비며 비둘기들이 춤추며 날아댄다.

봄빛은 하늘땅에 넘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온통 웃음꽃이 만발하다.

우리 인민의 마음과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 봄날.

태양절을 앞두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였다.

그러니 인민의 기쁨과 감격은 봄빛처럼 하늘땅에 차고넘치는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가 있는 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니 나이 80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돌보기를 코에 걸고 재봉기를 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는 손녀가 나가 일하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지원하겠다면서 작업장갑들을 만들고있었다. 내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젠 그만 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느슨하게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였으니 내 갑자기 10년은 젊어진것 같은게 힘이 난다.》

어머니의 주름잡힌 얼굴엔 정력이 넘치고있었다.

바라던 소망이 성취된 기쁨이 것처럼 사람의 육체에 활력을 부어주는것인가.

나에게는 문득 아버지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의 그 비통한 애도기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늘쌍 눈물을 흘리며 날을 보내던 어머니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작가로서의 보람찬 한생을 보낸 아버지와 살면서 장군님의 예지와 덕망을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체험한 어머니였고 아버지가 사망하여 영생의 언덕

에 오른 후에도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어머니였다.

하여 어머니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듯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을 하였다.

강산을 덮으며 하얗게 눈이 내리던 영결식날에 어머니는 아버지장군님의 태양상을 뵈옵는 순간 사무쳐오르는 슬픔과 절통함을 못이겨 끝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어머니가 중태에 빠져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고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영 우리결을 떠나가셨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구나.》

나를 올려다보는 어머니의 두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아들인 나보다 먼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때 쓰러진 환자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주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찾아온 평양시당의 일군들이였다.

나는 어머니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일군들을 보면서 애도기간 것처럼 크나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있으면서도 인민들의 건강을 그리도 따뜻하게 념려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깊이 머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아뢰이였다.

《아버이장군님, 장군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아버이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봐주고계십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일군들도, 의사들과 그 자리에 있던 환자들모두가 평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신 아버지장군님께와 그이의 뜻과 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마음속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어머니는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다시 소생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였다는 보도에 접하여 마치 세상의 행운을 다 받아안은듯이 기뻐하고 활기를 보이는것이였다.

하기야 어느 누구의 가슴엔들 걱정이 뚫지 않으랴.

돌이켜보면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싶은 념원이 화산마냥 세차게 끓어올랐던것이다.

생의 마지막나날 인민생활에 대해 마음쓰시며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문건에 친필비준을 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고 장군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전해지도록 애도기간에도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정녕 두분은 풍모도 덕망도 하나같으신 인민의 친어버이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안겨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을 더욱 확실하게 되였고 비애의 눈물을 씻고 억세게 일어설수 있었다.

생각할수록 뜨거움이 북받쳐올라 나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들어왔다. 불밝은 거리의 장식등들은 축포의 불꽃마냥 반짝이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이밤을 보낸다.

자연도 약동하고 사람들도 환희에 넘쳐있다.

아, 이 환희의 봄, 이 활력의 봄은 어디에서 찾아온것이나.

강추위가 들이닥친 조의식장들에서 우리가 받아마시던 더운물에, 우리의 몸을 녹여주던 가설막의 훈훈한 공기속에 오늘의 봄이 실려왔다.

우리가 눈물속에서 받아안았던 사랑의 물고기들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

할데 대한 그 사랑의 친필속에 오늘의 봄이 태동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각지에서 보내오는 편지들을 다 보시고 몸소 쓰신 사랑의 친필들은 오늘의 봄을 알리는 글밭이였고 그이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군인들의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지으시던 그 밝은 미소에 실려 이 땅의 영원한 봄은 왔다.

그리고 이 봄은 자연의 봄처럼 단순히 싹을 틔우고 꽃만 피우는 봄이 아니다. 우리 조국에 찾아온 봄은 단열매를 주는 풍만한 가을까지 안은 봄이다. 어버이장군님 뿌리신 행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게 하시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조국을 이끄시며 혁명의 진두에 서계신다.

벌써 우리는 그 열매들을 맛보고있지 않는가. 부강조국의 성새처럼 거연히 일떠선 희천발전소, 사랑의 기념탑마냥 빛을 뿌리는 만수대지구의 고층빌딩들과 새 세기 문화예술의 전당인 인민극장...

조국땅 그 어디서나 펼쳐지는 전변을 보며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더욱 부강하고 행복해질 조국의 래일을 확신한다.

이제 내 어머니는 더욱더 젊어져 복을 누리게 되리라. 어머니뿐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환희의 봄을 맛보고내며 기쁨에 넘쳐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되리라.

저기 만수대언덕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축복 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태양의 품에서 자라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이 땅의 영원한 봄의 주인이 되라 고무추동하신다.

아, 내 조국땅에 영원한 환희의 봄이 왔다!

조선속담

기쁨, 만족, 행복

- 경사엔 조상도 온다
- 물본 기리기, 꽃본 나비
- 석달장마끝에 해빛(을) 본것 같다
- 잔치날에 큰상 받은 기분
- 쌀독에 앉은 쥐
- 집안이 흥하면 손님이 많다
-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

- 배부른자에게는 고량진미를 주어도 별맛을 모른다
- 찰떡에 조청 찍은 맛
※조청—굳게 졸이지 않은 물엿.
- 비지 먹은 배는 연약파도 싫다 한다
※연약파—연하게 잘 만든 약파.

나는 노래를 부른다

리 영 철

겨우내 덧쌓였던 흰눈이 다 녹고
아지마다 새움이 파아랗게 깃을 편
백두대지의 5월이 오면
나는 노래를 부른다

여기로구나 대흥단벌
빨찌산대오를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신 우리 수령님
항일대전의 큰 승리 떨치신 곳이
시인의 이 마음 불러찾는 혁명전적지가

그날을 못 잊어
망울터친 철쭉꽃은 떨기떨기 붉게도 타고
그날을 길이 전하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은
총대의 모습으로 높이 솟아
이 땅에 영원한 봄빛을 뿌려주나니

화전을 일쿠며 숨어살던 사람들
마르고 터갈라진 그 가슴들에
새삶의 씨앗이 안겨진 날이여
노예의 슬픔만이 가득찼던 그 눈빛들에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이 비껴진 날이여

그날에 뿌리를 두고 철이 오면
하늘과 맞닿은 대흥단벌 저 한끝까지
감자꽃 하늘하늘 하얗게 피어 웃고
선렬들 피가 스민 붉은 흙우에
무거운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밀바다 끝없이 설레이누나

동을 보라 서를 보라
행복의 창문을 열어젖힌 저 제대군인마을
복속에 태어난 흥단이 대흥이들이
활개치며 걸어가는 드넓은 학교길
백두산마을에 차넘치는 즐거운 인민의 생활
한쪽의 그림처럼 유정하구나

총소리 총소리에 실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메아리가
이 벌에 서있는 내 마음에 울린다
가장 뜨거운 사랑의 노래가
내 심장을 불태워준다

내 어찌 노래를 부르지 않으랴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핀 이 땅에서
총대에서 시작된 이 행복을 두고
총대를 떠난 다른 노래를
나는 부르지 않는다

떨기떨기 피여웃는 저 철쭉꽃들도
씨앗을 품은 넓은 대지도
추녀마다 푸른 봄빛을 떠인 살림집들도
해빛밝은 락원의 저 거리가 그대로
총대승리의 기념비로 안겨오는
여기 대흥단벌에서

아, 우리 수령님 안아오시고
우리 장군님 꽃피워주신
총대의 노래를 나는 듣는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땅에 더 크게 울려퍼지는
총대의 노래를 나는 부른다

행복의 기슭에서

박 정 철

꽃배를 타잔다
세살잡이아들애
꽃배를 타고서
꽃이 웃는 강반
저 기슭으로 가잔다

그 작은 가슴에도 벌써
행복으로 깃들었구나
꽃배...
유보도...
보통강...

나서 처음 외워보는 그 말들이
나서 처음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이
그저 꽃이며
맑은 물이며
행복이며 웃음인줄 아는 아들이

그래 꽃배에 어서 오르자
이 강물에 비껴내린
네 태어난 보금자리며
청류관 빙상관 창광원...
네가 즐길 그 모든것과 함께

그러면 오, 그러면
이 기슭에 꽃피난 아름다운 생활들이
이 꽃배에 실려
이 행복이 시작된
추억의 그 기슭으로 가려니

그렇다!
이 물결 타고 오르면
5월의 훈향 넘치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우리 수령님 건국의 첫삽을 뜨신 곳

그 첫삽으로
한숨과 눈물의 동을 터뜨려
세상밖으로 영영 흘러보내고
그 기슭에
오늘의 락원을 세워주신 수령님

수령님 그날에 첫삽으로 열어주신
행복의 물결에 실려 사랑의 꽃배는 가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력사의 기슭에서 우리 수령님 그려보시던 곳
우리 장군님 리상을 없으신 곳
강성국가의 그 기슭으로

처녀의 기쁨

박희구

조용히 불러주는 정겨운 노래런가
기대의 동음에 들먹이며
하냥 부풀어오르는 처녀의 가슴속 심장
늘썉 5월의 그 감격속에 뛰느냐

머나먼 북변의 신발공장에 찾아오신
아버이 우리 장군님
인민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이런 멋있는 공장을 돌아보실 때
제일 기분이 좋다고 하실제
남몰래 처녀는 깊이깊이 생각했네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기쁨속에
내 드린 기쁨은 과연 무엇일가
생각은 깊어지고 얼굴은 붉어지는데
태양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아버지장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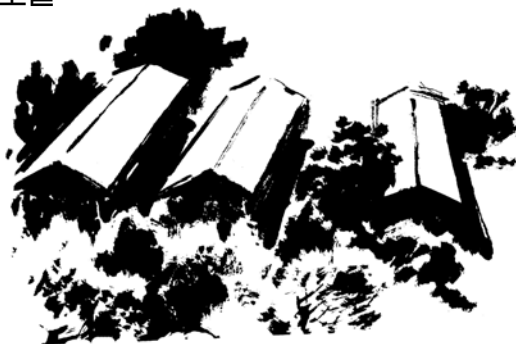
처녀의 일터를 찾아주신 장군님
신발의 속안까지 만져보시더니
추운 이곳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신발을 만들었다고
량강도특산물이니 량강도숨장화라고

이름을 다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네

따뜻한 5월에 그이는 벌써 그려보셨네
흰눈 내려쌓이는 벌목장의 산판우에
탐사의 높고 험한 설령우에
힘차게 짚어가는 숨장화의 그 자욱을
거리와 마을에서 발시린줄 모르고
웃으며 걸어가는 얼굴들을

그러시고도 오히려 자신은
평범한 구매자가 되시어
추운 겨울에 다시 오시면
량강도숨장화를 사서 신겠다고 하실제
그이를 우러르는 너의 두볼엔
기쁨의 눈물 흘러내렸지

너는 기대와 함께 여기서 일을 해도
내가 만든 량강도숨장화는
눈보라 세찬 북방의 혹한속에서도
따사로운 5월의 아버지사랑속에
불타는 충정의 자욱을 뜨겁게 새겨가누나



분계선 호광이

김영선
그림 김광석

1

하늘은 가없이 높고 푸르렀다.

승용차들은 분계연선도시를 벗어나자 황금과도 일렁이는 들길에 들어섰다. 무겁게 고개를 숙인 벼이삭들은 가벼운 바람에도 금시 논뚝을 넘어 날듯 파도치며 설레이고있었다.

손을 내밀면 금시 잡힐듯 넘실거리는 벼이삭들을 흐뭇해서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 문득 옆에 앉은 오진우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참, 이제 한주영련대장의 나이가 서른을 넘었겠구만요.》

최전연초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히 관철하겠는가 하는 생각에만 몰두했던 오진우는 뜻밖의 말쑥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그 련대장의 정확한 나이가 인차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한주영이란 전선중부를 지키고있는 군부대의 한 평범한 련대장의 이름이다.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보시느라 것처럼 바쁜신 장군님께서 왜 그 련대장의 나이를 물으시는지 미처 알수가 없었던 오진우는 눈길을 내리깔며 어줍은 어조로 말씀드렸다.

《예, 서른은 넘은것 같습니다.》

《둘 다 부모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결혼식상을 차려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그이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깨달은 오진우는 일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한 인민군련대장에 대한 그이의 각별한 사랑이 뜨겁게 안겨오는것과 함께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게 된것이 죄스러웠던것이다.

《저... 결혼은 쉽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오진우는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듯 목소리가 저

절로 잦아들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며칠전에 제가 보배동무를 만나보았는데 주영이한테서 자기를 잊어달라는 편지가 와있었습니다.》

《잊어달라구요? 왜 말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우시여 오진우에게로 반쯤 몸을 돌리시었다.

오진우는 그이께서 또 근심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몹시 저어되었으나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얼마전 전선중부에 나갔던 오진우는 그곳 관들속에서 주영이를 두고 《영원한 총각》이라는 말이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여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리유인즉 주영이가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졌는데 그후부터는 여자소리만 나와도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군 한다는것이였다. 평양에 돌아온 오진우는 보배를 만나보고서야 주영이가 군사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그들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영이가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담화를 할 때 해당 일군들은 그를 총참모부에 보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본인이 분계연선초소를 절대로 떠날수 없다고 주장하여 전선중부에 있는 군부대 련대장으로 배치받게 되었다.

그때 보배는 주영에게 왜 자기와 의논도 없이 그랬는가고, 평양에 떨어지면 부상당했던 자리가 도져도 치료하기 유리하고 자기도 무대생활을 계속할수 있지 않는가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주영은 여느때없이 날카로운 어조로 국사중의 국사는 조국보위라고 잘라매고는 그날로 떠나갔다는 것이다. 그뒤 얼마동안 소식이 없다가 그런 편지가 왔다고 한다.

《제 그래서 그 편지를 달래가지고 왔습니다. 주영이 그 사람을 만나면 단단히 혼쌀을 내주자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오진우가 드리는 편지를 읽어보시었다.

《...보배, 열번백번 생각하고 내린 결심이요. 부디 나를 잊어주기 바라오. 조국앞에 지닌 우리의 의무가 서로 중한만큼 이제라도 헤어지는것이 옳은 처사일것 같소...》

...

조국의 초소는 넘려마오. 내가 한목숨바쳐 조국의 판문을 지키겠으니 보배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오...》

행복하고 또 행복하시오...》

편지의 몇몇 구절을 다시 훑어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황금나락 설레이는 시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웬일인가, 일구이언을 모르는 한주영이가 아닌가. 일상생활에서는 말이 적고 조용하지만 일단 마음만 먹으면 칼날에라도 올라서는 성미였다. 그들사이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주영이... 그이께서는 불시에 가슴이 저려드는것을 느끼시었다. 적아쌍방간의 군사정치적대결속에서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치열한 대적투쟁의 전구, 판문점이 눈앞에 떠오르시었다.

...삼복치고도 류달리 찜물쿠는 7월 어느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최전연초소 판문점을 찾으시였었다.

판문각 2층에 오르시여 회의장구역을 굽어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한곳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자글자글 내려쪼이는 피약별을 받으며 몸매 다부진 전사가 근무를 서고있었다. 한치도 드팀없이 서있는 전사의 모자밑으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였으나 눈썹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온 신경을 모두어 주변에서 씨글거리는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고있었다. 그의 군복은 물속에라도 들어갔다가 나온듯 화락하게 젖어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딘가 낯이 익어보이는 그 전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신채 판문각휴계실에 들어서시었다. 수도를 떠나 수백리 전선길을 달려오신 그이의 웃옷도 땀에 폭 젖어있었다. 일군들이 그이의 앞에 선풍기를 놓아드리었다. 기세 좋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얼핏 띄여보신 그이께서는 또 다시 전사들이 근무를 서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시며 경무원들의 모든 방에 랭풍기를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군사정전위원회 사업을 료해하시고 앞으로 대적투쟁과 경비안전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개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말씀하시는 사이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헤어질 시각이 되어오자 전사들의 얼굴에 석별의 정이 어리고 눈굽이 젖어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시적으로 원쑤들과 한마당에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싶으시여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었다.

순간 그들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소리 안나게 박수를 쳤다.

위험한 곳이어서 사진은 교대로 찍어야 하였다. 회의장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근무를 서던 전사는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가 거수경례를 하는 순간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뭇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었다.

《아니, 이게 한주영동무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룡강을꾼이, 하하하. 어쩐지 아까부터 낯이 익다했더니...》

김정일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주영에게 다가가시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우람해졌으니 알아볼수 있나. 어디 손을 좀 잡아보자구. 음, 팬찮아.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박살내겠는걸.》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도 대견하시여 주영을 선풍기앞에 끌어다앉히고도 손을 놓지 못하시었다. 주위에 둘러선 일군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룡강을꾼이란 이 동무의 별명이요. 아버지수령님께서 혁명학원에 나가실 때마다 이 동무가 한쪽팔소매를 꼭 잡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 시샘이 난 처녀애들이 별명을 붙였댔소. 룡강내기거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영을 정찬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같은 나이또래들에 비해 주영은 남달리 키가 작고 체소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혁명학원에 나가시면 키가 작거나 얼굴색이 좋지 못한 원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돌리며 꼭 만나보곤 하시였는데 그때마다 주영은 빠질적이 없었다.

《너는 왜 이렇게 크지 못하느냐?》

아버지수령님께서 자동보총이 발뒤꿈치에 닿을것만 같은 주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근심하시였고 예술공연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할 때면 늘 옆에 끼고 다니시었다.

어느해 4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기념 열병식에 참가하게 된 원아들의 훈련모습

이 보고싶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훈련현장에 나가신적이 있었다. 그때 열병식훈련을 총책임졌던 오진우도 함께 나갔었다.

두부모처럼 규모있게 선 대렬이 움직이려 할 때였다. 맨 뒤줄에 선 원아의 키가 너무 작은것을 본 오진우가 얼른 다가가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었다.

《애, 넌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그 애가 성난듯 팔을 뻗 나꾸쳤다.

《이걸 놓으라요.》

《넌 안되겠어.》

오진우는 우야 엄한 표정을 지어보이였다.

《왜 안된다는거예요?》

주영의 얼굴은 약이 올라 빨개졌다.

《키가 너무 작아.》

《작다고 원쑤와 싸우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총알같이 쏘아붙인 주영은 참새가 황새걸음하듯 급히 대렬을 따라갔다.

《허, 고녀석 작아도 고추인걸.》

좀해서 웃지 않는 오진우도 어이없어 허허 웃었다.

열병훈련이 끝나자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원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주영이만이 한쪽구석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있었다. 키작은 자기때문에 대렬이 규모없게 보인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고 그렇다고 빠지자니 억울했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가 주영을 대오에서 빼내려고 할 때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이 흐려지시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숙보판뒤에서 울고있는 주영에게 다가가시여 손을 어깨에 얹으시고 다정히 말씀들을 건네시였다.

주영은 태어난지 한달도 못되어 랑부모를 다 잃었다고 한다. 해산하러 본가인 통강에 갔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자 남편의 뒤를 이을 총대감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원쑤놈들과의 격전에서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받아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해산후 쇠약해진 몸에 너무도 심한 타격을 받았던것이다.

주영은 할머니품에서 밤으로 쏜 암죽을 먹으며 자랐다. 밤이 많은 고장이였다.

부족한것이 없었으나 주영은 왜서인지 앓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몇번을 죽는다고 소문났었다. 그

러나 혁명학원에 온 다음부터 크지는 못했지만 앓지는 않는다는것이다.

주영이가 바로 15년전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희생된 경무장의 아들임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솟구치는 런민의 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영의 자그마한 손을 따뜻이 감싸주시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자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밖에 씻을게 없어.》

김정일동지께서는 눈물을 씹어삼키느라 어깨를 떠는 주영에게 이제 오진우장령이 대렬배치를 다시 해보겠다고 했으니 열병식에 꼭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신심을 주시며 원아들이 춤추는 곳으로 보내시였다.

그때 나긋나긋하던 손이 군대에 나온 몇년사이 어떻게 단련하였는지 쇠뭉치처럼 단단해지고 몸도 우람차게 자랐다. 사람마다 크는 계기가 제가끔인 모양이다. 이렇게 튼튼한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대견해하겠는가. 언제인가 군사정전위원회 일군들에게서 들으신, 백날이 되는 날 큼직하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버르다가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그 아버지의 전우들의 눈물젖은 말이 지금도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으시였다.

《주영이, 오늘은 나하고 웃으며 사진을 찍자구.》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영의 손을 꼭 잡으신채 사진을 찍으시였다. 얼마후에는 경무원들의 모든 방에 랑풍기를 놓아주시고 산뜻하면서도 품위있는 레복과 평상복도 고급천으로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주영은 경무원으로부터 경무관으로 자라났다. 어느날 판문점초소에서 정상근무를 수행하던 주영은 불시에 도발을 걸어온 적들과 단신으로 맞서 싸우게 되었다. 그는 성난 사자마냥 펄펄 날며 미군과 괴뢰군 여러놈을 단숨에 쳐눕히였지만 전우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고 나무에 기대여 쓰러져있었다. 생명이 위급하였다.

이 실태를 보고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일군들에게 해당한 지시를 주시는 한편 강력한 의료진을 무어 직승기로 떠나보내시였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개성시민민병원에서는 직승기가 도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재삼 강조하시였으나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얼핏 시계를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집무탁으로 가시여 문건을 펼치시였다. 그러나 두장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방안을 거니시는데 오진우가

조심히 들어섰다.

《직송기가 도착했습니까? 환자의 상태가 어떨습니까?》

컴컴하게 얼굴색이 질려 서있던 오진우는 그이의 재촉을 받고서야 떠듬떠듬 보고를 드리었다.

흉부와 대퇴에 관통상, 온몸은 물론 머리에만도 여러곳의 칼자리로 전신출혈, 계속되는 고열과 혼수상태에서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뇌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원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흉부에 관통상이면 폐와 심장이 일없겠는가, 온몸에 칼자리라니 피는 또 얼마나 흘렸겠는가, 뇌수까지 다쳤다면 그 후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일찌기 부모를 잃어도 당의 품에서 억센 복수자로 자라난 그가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도 그토록 관심하시던 주영이인 것이다, 어떻게 해서나 살려야 한다, 무조건 원상회복시켜 어버이수령님앞에 내세워야 한다.

오진우와 함께 급히 병원에 나가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병원정문앞에서 눈물겨운 일을 목격하시었다.

병원앞은 원쑤놈들과 싸우다 사경에 처한 판문점용사에게 자기의 피와 뼈를 주겠다고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던 것이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막아나서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밀고들어 가려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었다. 이런 좋은 인민을 위해 주영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것이다.

새벽부터 타들던 그이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며 주영이가 살아날수 있다는 신심이 솟구치시었다.

이날 1차수술은 힘겨웁게 진행되였다....

2

승용차는 별가운데 가리마처럼 뻗은 길로 쉬임없이 달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동안 말씀이 없으시자 오진우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경에서 구원된 주영이가 이번에는 혼사문제로까지 그이께서 마음쓰시게 만든 것이 민망스러웠다. 혁명학원 시절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속을 그렇게도 태우더니 이제는 또 장군님의 애까지 말리우지 않는가.

《오진우동지, 우리가 처음 강보배를 찾던 일이 생각납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근심이 어린 오진우의 얼굴을

돌아보시었다.

《예, 등잔밑이 어둡다고 곁에 있는것을 모르고...》

《그때 오진우동지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요?》

《무슨 말씀을... 장군님이 아니셨다면 주영이가 의식을 차릴 때까지 찾거나 했겠습니까.》

오진우는 눈을 습벅이며 젖은 소리로 말씀드렸다.

주영이가 2차수술을 한지 며칠 지난 어느날 이었다.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오진우는 급히 서해지구의 한 료양소로 떠났다. 원래 그날은 **김정일** 동지께서 사격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였었는데 갑자기 주영의 병력서와 함께 담당의사를 데리고 료양소로 오라는 기별이 왔던 것이다. 주영의 림상소견을 직접 알아보시려는 것 같았다.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에서도 한 전사의 건강이 넘려되시여 매일처럼 알아보시는 그이께 조금이나마 안심하실수 있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것이 다행스러워 오진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주영이 뇌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을 아시면 그이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무엇보다도 주영의 뇌타박을 우려하시던 장군님이시었다. 오진우 역시 제일 고심하던 것이 이 문제였다. 설사 주영이가 소생된다 해도 다시 초소에 설수 없다면 그이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는가. 열병식훈련장에서 알게 되신 뒤로 주영이가 앓을세라, 주눅이 들세라 여러모로 원심을 쓰시던 장군님이시었다.

혁명학원에 나가시여 사열식을 할 때면 키를 조절해가며 기준선에 세워주시고 기념촬영을 할 때에는 얼굴이 가리워질세라 자리를 끌라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오진우는 어린시절 항일의 불길속에서 자신을 따듯이 손잡아 키워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생각으로 눈물이 솟구치곤 했었다.

그처럼 다심한 정을 기울여키우신 주영이가 생사기로운 놓였으니 그이의 마음이 어느 하루인들 편하시겠는가.

오진우는 운전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몇번이나 독촉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구월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큰길가에서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중년의 료양소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었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의사도 왔습니까?》

《예, 뒤차에 있습니다.》

야전복차림 그대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가 드리는 주영의 병력서를 찬찬히 훑어보시었다.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했구만.》

그이의 눈가에 실망의 그림자가 얹게 비끼었다.

《의사들의 말이 이달말쯤이면 회복될것이라고 합니다.》

《뇌수술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장군님!》

오진우는 스스로도 자신이 흥분되는것을 느끼었으나 억제할수 없었다.

《뇌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병력서에서 오진우에게로 재빨리 시선을 옮기시는 그이의 눈가에 의문이 어리었다.

오진우는 서둘러 말쑼올렸다.

《의사들의 말이 머리에 난 칼자리가 여러곳이지만 다행히도 뇌수는 다치지 않았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한가닥의 희망이 보이시는듯 반색을 지으시었다.

《예, 의사들이 그러는데 주영의 머리뼈가 류달리 굳고 두텁다던지... 하여튼 기적이라고 합니다.》

《머리뼈가 굳고 두텁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편이어 의사들을 꺼드는 오진우의 말을 조용히 받아외우시며 길옆으로 흐르는 개울물에 시선을 돌리시었다. 구월산에 시원을 둔 맑은 물은 닭알껍질처럼 하얀 바위들을 타고넘으며 기세좋게 흘러내리었다.

《뇌수가 일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한걸 보면 뇌타박이 심상치 않은것 같습니다. 치료에서 무슨 애로는 없습니까?》

《특별히 제기되는것이 없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난방이랑 잘 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실조건이 좋고 의약품도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오진우는 팬히 별치않은것을 말쑼드리여 그이의 마음을 번거롭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었다.

《어서 이야기하십시오.》

오진우는 두손을 앞으로 모아쥐며 머리를 기웃하였다.

《주영이가 수술을 받은 뒤 헛소리를 치군 했는데 이따금 보배라는 말이 튀어나오군 한답니다.》

《보배? 그가 누구니까?》

《모르겠습니다.》

《판문점에 알아보았습니까?》

《예, 군인들은 물론 가족들속에도 그런 녀성이 없답니다.》

《친척같지는 않습니까?》

《예, 주영이에게 그런 친척은 없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병력서를 료양소 소장에게 주시었다.

《소장동무는 담당의사와 주영동무의 차후치료문제를 토의해보시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여기서 완치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담당의사를 부르시여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 그이께서는 오진우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이 료양소 물이 뼈재생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다리부러진 종달새가 이 물에 목욕을 하고 나았다는 전설이 있어 종달온천이라고 한데 주영동무치료에 좋을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승용차걸로 다가가시었다.

《이제는 여기 일을 의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격장으로 한바탕 달려봅시다.》

그이께서 왜 이 료양소로 담당의사를 부르시였는지 비로소 깨달은 오진우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주영이의 현재 입원치료뿐만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치료문제까지 넘려되시여 그 바쁘신 길에도 몸소 료양소에 들리신것이다. 주영인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랑속에 소생되고있는지 알기나 할가. 오진우는 또다시 뜨거운것을 삼켰다.

승용차는 패속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르롭게 울리는 승용차의 동음을 들으시며 가을걷이가 끝난 드넓은 벌을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가벼운 피로를 느끼시며 승용차등반이에 몸을 기대이시었다.

(보배라...)

어딘가 귀에 익은 이름인데 주영이가 찾는 보배가 누구인지 인차 가늠이 가지 않으시었다. 혹시 애인은 아닌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영의 경력을 더듬어보시었다. 혁명학원시절부터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군복만 입고있었는데 언제 처녀를 사귀었을가.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에게 애인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의 나이가 벌써 서른이 되어오지 않는가.

주영의 경력을 다시금 더듬어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짙어지는것이 있으시었다.

열병식에 참가하게 된 혁명학원원아들의 훈련모

습을 보아주신 바로 그날이었다.

주영이가 출판으로 가려 할 때 한 녀학생이 누구를 찾는지 남학생들이 춤추는 원주위를 뱅뱅 돌고있었다. 그때 분명 주영이가 《보배-》하고 소리친것 같으시었다. 북소리, 노래소리, 손풍금 소리에 녀학생이 미처 듣지 못하자 주영은 어쭙게 웃으며 장군님께 자기와 혁명학원에 같이 온 동무인데 하급생이라고 말씀드리었다. 어렸을 때 밤따러 산에 자주 같이 다녔는데 녀자인데도 나무타기명수라는것이다. 오늘 자기가 열병식에서 빠지는줄 알고 고민할가봐 찾아오는것 같다고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녀학생이 계속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웃으시며 어서 가보라고 주영의 등을 떠미시었다. 그 녀학생한테로 달려간 주영은 손짓을 해가며 자기도 열병식에 참가하게 될것이라고 어깨를 으쓱해보이는것 같았다. 기쁜듯 손뼉을 마주치는 녀학생...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멀리에서 보시였던지라 녀학생의 얼굴모습은 떠오르지 않았으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그때 주영의 키가 그 처녀애보다 작았던것이였다.

혹시 그 처녀가 아닌지... 후에라도 그들사이에 사랑이 맺어졌다면 지금의 처지에서 주영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보배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주영이가 의식을 차리지 않을가. ...

김정일동지께서는 밤이 이속해서야 집무실에 들어서시었다. 집무탁에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문건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그이의 결론을 기다리는 문건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을 보기 시작하시었다. 어떤것은 직접 결론을 주시고 어떤것은 전화로 알아보신 후 옆으로 밀어놓으시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섰다. 그러나 매일 아침에는 북부지구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일정이 물려있으므로 쉬실수가 없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다음문건을 드시었다. 우리 나라 예술단이 외국공연에서 대파문을 일으키고있는 자료였다. 문건뒤에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매혹적인 예술》, 《세계에서 으뜸가는 예술》 등의 표제를 달고 사진까지 받쳐 대서특필한 여러 나라 신문들이 함께 놓여있었다.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시는듯 만족하여 신문을 훑어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흰눈같이 하얀 무대복을 펼쳐입은 녀성기악중주단의 사진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가운데 앉은 바이올린연주가, 그의

이름이 보배가 아니었던가.

강보배, 모직양복!

순간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학원시절 주영이가 찾던 그 보배와 모직양복을 입은 보배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져 몇해전에 있었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떠오르시었다.

어느해 설명절을 며칠 앞두고 어느 한 극장에 나가시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녀배우가 편습실에도 회의실에도 군복을 입고 다니는것이 이상하여 일군들에게 물어보신적이 있었다. 그 신인배우는 군대에서 새로 뽑혀왔는데 부모들이 없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녀배우의 심정이 헤아려지시여 몸소 모직양복을 마련해 보내주시었다. 그때 일군들이 강보배가 혁명학원졸업생이라고 하였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큰숨을 몰아쉬며 그 기악중주단사진을 이윽도록 보시었다. 이 동무가 주영이가 찾는 그 보배가 틀림없다는 확신이 드시었다.

급히 송수화기를 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당 일군을 찾으시여 우리 예술단이 언제 돌아오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나라 관중들의 요구가 끝이 없기때문에 공연일정을 연기해야 할것 같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설명절이야 체집에서 쇠야지 객지에서 지내면 되겠는가, 계획대로 설명절전에 돌아오도록 하라고 이르시었다.

그리고 병원일군을 찾으시여 최선을 다해 주영의 병을 빨리 완쾌시키라고 당부하시었다.

얼마후 주영이에게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었고 보배는 예정대로 설명절전에 귀국하였다.

창밖에서는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은은히 울려퍼지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영이와 보배의 잔에 술을 부어주시고 오진우와 자신의 잔에도 부으시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잔을 들고 다가가시자 주영이와 보배는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뜨리었다.

《설날에 울어서야 되겠습니까. 울지 마시오. 주영동무가 이렇게 완치되고 영웅이 되어 보배동무와 만났으니 얼마나 기쁠니까. 오진우동지가 주영동무 건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기에 이렇게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에 하나하나 잔을 쥐여주시었다. 그래도 주영이와 보배는 어깨를 떨

며 흐느끼기만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심정이 헤아려지시어 잠시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오진우가 급히 다가가 귀속말로 자꾸 울면 어떻게 하는가고 깨우쳐주어서야 그들은 나란히 서서 정중히 허리를 굽히었다.

《정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고맙소, 차린것은 없지만 어서 앉으시오. 주영동무가 밤을 좋아한다기에 같이 나누고싶어 찾았소.》

김정일동지께서 삶은 왕밤을 주영이앞으로 밀어놓아주시자 그들은 더 세차게 어깨를 들먹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보배쪽으로 돌아앉으시었다. 보배는 언제인가 자신께서 보내주신 모직양복을 입고있었다. 얼마나 정히 간수하고 아끼였는지 지금도 새것처럼 말쑥하였다.

《보배동무, 주영동무에게 〈룡강울꾼이〉라는 별명을 제일먼저 붙인게 동무라지?》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던 보배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어쭙은 미소가 입가에 그려졌다.

《하나 더 묻자구. 의사들이 주영동무의 머리뼈가 류달리 굳고 두텁다는데 보배동문 알고있었소?》

보배는 어리둥절하여 주영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똥기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처음 듣는 모양이구만. 주영동무가 엉큼하거던. 먹은것을 모두 머리뼈에 축적해두는것도 모르고 우린 그저 키가 크지 않는다고만 걱정했다니까. 안 그렇소, 보배동무?》

《주영동무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받기를 잘했습니다.》

드디어 보배가 눈물을 닦고 명랑한 어조로 대답 올리자 **김정일**동지께서도 마음이 한결 즐거워지시였다.

《그것 보라구. 의사들의 말이 맞지 않나. 만약 주영동무의 머리뼈가 굳고 두텁지 못했다면 이번 싸움에서 큰일날번 했지.》

보배가 또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다.

《아닙니다. 주영동무가 다시 소생할수 있는것은 정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보배의 목소리는 책을 읽듯 또렷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가로 저으시였다.

《그건 주영동무가 훈련을 잘했기때문이야.》

이때 부관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들어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에게 혁명학원에서 부르던 노래를 해보라고 하시였다. 보배가 바이올린을 타고 주영이가 노래를 불렀다.

함박눈 송이송이 내려썰여도

항일의 녀전사 서계시였네

만경대 찾아올 유자녀들 기다리시며

아 저물도록

...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찡해움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거치른 이역땅에서 막돌처럼 굴러다니던 혁명가유자녀들이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당가에 나와 눈을 맞으며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시여 마음이 숙연해지시였다.

녀전사의 옷자락은 흰눈에 젖고

품에 안긴 아이들은 감격에 젖네

마안산의 아동단원 따듯이 안아주시던

아 그날처럼

...

창밖에서는 여전히 함박눈이 내리고있었다. 이 세상의 행복을 다 차지한듯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축복하여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 주영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으로 보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년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리상적인 한쌍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와서 결별이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먼 산발을 내다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였다.

《지금 보배동무의 립장은 어떻습니까?》

《보배동무는 이 편지를 받자 즉시 주영이네 부대에까지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주영이가 좀처럼 만나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보배동무가 무작정 주영의 방에 찾아들어가 막 들이댔답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것만 변절인줄 아는가, 사랑을 배반하는것도 변절이다,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이 조국인들 배반하지 않겠는가고...》

《보배동무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주영이는 보배동무의 말을 듣더니 자기는 일구이언하지 않는다면서 보조병들에게 다

시는 저 녀자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는… 초소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럼 아예 끝장이 났단 말입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연한 표정으로 오진우를 바라보시었다. 오진우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용차는 어느덧 별관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파수원이 펼쳐졌다. 울긋불긋 무르익은 과일들이 유난히 진한 빛을 뿌리었다. 만물이 결실을 서두르는 계절이었다.

《오진우동지는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진우는 한동안 머뭇거리었다. 보배가 무대를 떠나기 아쉬워하면 잘 타이틀 대신 결별을 선언한 주영의 행동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사랑이야 장군님께서 축복해주시지 않았는가.

《예로부터 바늘 가는데 실따라 간다고 하였는데 보배가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들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서로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다시 보십시오. 마치 최후결전장이라도 나가듯 한감이 들지 않습니까?》

오진우는 그이께서 가리키는 대목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일단 싸움이 붙으면 맵싸게 담차지는 주영의 성미뿐 별다른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혁명학원시절부터 주영동무는 총을 잡는 것이 희망이었고 보배동무는 예술가가 되는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조국보위도,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자는것도 다 애국의 마음인데 그것이 왜 합쳐지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영동무의 생활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일정이 긴장하지만 그의 부대에도 들려봅시다.》

오진우는 대뜸 긴장해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어둡기 전에 돌아서려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심각해진 오진우가 두손까지 내젓는것을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달래이듯 말씀하시었다.

《문제가 생긴것을 안 이상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가 중상을 입었던 그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오진우는 자기자신에 대한 타매의 감정으로 가슴을 쳤다. 이 사실을 아시면 그이께서 또 마

음쓰실줄 알면서도 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가. 그이께서 한주영을 남달리 사랑하신다는것을 알면서도… 죄스러웠다. 오늘 그이께서 사선을 헤치며 가셔야 할 그 길이 결국 자기 불찰때문이라는 생각에 오진우는 얼굴을 들수 없었다.

더구나 지금 장군님께서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계시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그이를 기다리고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오진우였다.

이제 한주영을 찾아가신다면… 또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에돌아야 하겠는가.

생각할수록 죄스러웠다.

《장군님, 제일에 아직 빈구석이 많습니다.》

오진우가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자애롭게 웃으시었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부터 주영동무를 한번 만나보고싶었습니다. 부상당했던 계절이 오면 혹시 상처가 재발되지 않겠는가 근심되었고 지금은 또 중상당했던 사람이니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것만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원히 만나보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 보배동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위험해도 갑시다.》

《장군님!》

오진우는 목이 짹 메여 더 말을 못하였다.

승용차는 속도를 높이였다.

3

김정일 동지께서 런던에 도착하시자 한주영이 달려나와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오래간만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이라…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건강하고 혈기에 넘친 주영의 모습을 직접 대하시자 한시름 놓이시었다.

주영의 온몸에서는 청춘의 패기와 열정이 넘쳐나고 구리빛이 도는 얼굴에는 그이를 모신것이 뜻밖인듯 벅찬 감격과 함께 놀라운 표정이 어리었다.

《어떻게 사는지 보고싶어 들렀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범상하게 말씀하시며 골안에 오בות이 들어앉은 런던건물을 바라보시었다.

주영은 세간난 자식이 부모에게 자랑하듯 런던의 구석구석까지 끌고루 안내해드리었다. 어디나 정신이 벅쩍 들게 깨끗하고 알뜰하였다. 창고덕대에는 여러가지 말린 산나물들과 해산물 그리고 콩마대들이 천정에 닿게 쌓여있었다. 창고뒤로 돌아

가니 인기척을 느꼈는지 살찐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그에 화답하듯 염소들이 매매거리었다. 팔뚝같은 무우와 실한 통배추들이 고랑이 안 보이게 자라는 발머리에는 보초병인양 과일나무들이 둘러섰는데 잎새를 털어버린 노란 감들이 저녁해빛에 반들거리었다.

세목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목욕탕물에 손을 잠그어보시었다. 밑바닥이 들여다보이게 맑은 물은 뜨끈뜨끈하였다. 온밤 언땅에 배를 붙이고 근무를 선 군인들이 이 물에 목욕을 하고 고향집아래목처럼 따뜻한 병실에 들어서면 온갖 피로가 다 풀릴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으시었다. 취사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가마와 여러가지 양념이 들어있는 단지뚜껑까지 일일이 열어보시고야 만족해서 말씀하시었다.

《괜찮아, 이만하면 생활을 괜찮게 꾸린다고 볼 수 있소.》

훈련은 전술훈련장과 사격장 그리고 지휘부 앞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주영은 근무성원을 제외한 모든 전투원들이 다 참가하게 훈련을 조직하고 자기자신이 직접 앞장에 서서 지휘하였다. 부대 전술훈련과 여러가지 불의의 정황들을 처리하는 사격훈련이 끝나자 격술훈련이 진행되었다. 《결사옹위!》, 《총폭탄!》하는 우렁찬 구호와 함께 벽돌장들이 박살나고 두터운 참나무판자조각들이 공중으로 휘뿌려졌다. 무엇보다 놀라운것은 중상당했던 주영이가 모든 훈련의 앞장에 서있는것이였다.

주영은 확실히 준비된 싸움군이였다.

그가 완치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이 정치일군으로 키우겠다고 하자 싸움군인데 군사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욕심부리던 오진우의 모습이 생각나시여 그이께서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때 종목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보내주시었다.

《대단해, 모두가 펄펄나는 장수들이구만.》

그이의 결에 서있던 정치위원이 여기 참가하지 못한 구분대군인들도 모두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보고드리었다.

《대원들을 모두 잘 키웠소. 련대장동무는 훈련하는게 눈에서 불이 펄펄 이는구만.》

《우리 련대장동무는 훈련뿐아니라 일상 생활도 화선에 선 병사처럼 하고있습니다, 대원들에게도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고...》

《너무 내민다는 의견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련대장동무의 강한 요구성과 이신작칙이 모든 군인들을 오늘처럼 키울수 있었습

니다.》

《그런데 그가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대답하던 정치위원의 얼굴이 대뜸 굳어졌다. 물으심이 너무 뜻밖이었던 모양이였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나는 오늘 정치위원동무를 만나 그 사연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정치위원은 굳어진 표정을 펴지 못한채 안타까이 주먹만 주물렀다.

《나에게 말 못할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시오.》

김정일동지께서 정색해서 바라보시자 비로소 결심이 선듯 정치위원은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전연중대 군인들이 근무를 서다가 분계선을 넘어 기여들던 적무장간첩들을 체포한적이 있었다. 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판문점격투때 쓰러졌던 주영이가 죽지 않았을뿐아니라 분계연선초소에 련대장으로 배치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자 적들은 경악실색하였다. 이 사실이 남조선주둔 미군 사령부에게까지 보고되어 사령관놈의 책상위에 주영의 사진이 놓이게 되었다. 악이 치받친 사령관놈은 미군을 여럿이나 죽인 주영이를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산채로 잡아다놓거나 목을 따오라고 호통을 쳤다는것이였다.

《우리 련대장동무는 죽음을 각오하고 분계연선초소를 지키고있습니다. 보배동무때문에 피로워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탕하기때문에 자기가 물려서려는것입니다.》

말을 마친 정치위원의 눈가에 눈물이 핑 고여올랐다.

《음... 그래서 결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이의 안색을 우려했던 오진우가 조심히 말 씀드리었다.

《자칫하다간 아까운 사람을 잃을것 같은데 평양으로 데려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옆에 끼고있으면서 잘 돌보아주겠습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시었다.

《아닙니다, 피할것이 아니라 맞받아나가야 합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키워야 맹수로 됩니다.》

오진우는 자신의 생각이 소심하고 짧았음을 다시금 느끼며 눈길을 떨구었다.

언제인가도 이런 일이 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혁명학원에서 여름철강행군을 떠날 때 주영이를 빼놓겠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었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혁명가유자녀들을 량반군대로 키워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주영이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서면 능히 강행군을 해낼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였다.

그때 주영은 장군님의 뜻대로 강행군의 부담을 기어이 이겨내고 총화모임에서 토론까지 했었다.

연단에 나선 주영은 며칠사이에 어른이 된듯 숙성해보였다. 행군을 떠난 처음 며칠은 너무도 힘들고 지치며 동무들이 총과 배낭을 메다주고 야간행군을 할 때에는 걸으면서도 졸아 남의 손목을 잡고 끌려가다싶이 했다는것이다. 야간행군을 끝내고 새벽에야 천막을 치고 숙영하게 되었는데 이날따라 주영은 아침식사당번이어서 잠에 취한채 쌀이남박을 들고 개울로 나갔다. 벌써 동무들이 먼저 나와 돌가마를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었다. 주영이 우선 찬물에 세면부터 하여 거마리처럼 달라붙는 졸음을 털어버리고 쌀을 씻으려는 순간이였다.

《만세!》

갑자기 아래쪽다리목에서 함성이 터져오르는 바람에 주영은 이남박을 든채 달려갔다. 이른새벽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학원원아들이 강행군중이라는것을 아시고 몸소 차에서 내리신것이다. 순간에 원아들이 모여들어 그이를 성벽처럼 에워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검실검실하게 탄 원아들의 얼굴을 둘러보시며 모두가 참 용타고, 혁명가유자녀들은 절대로 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우리는 어느때든지 한번은 미제와 결판을 내야 하기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영이가 버릇처럼 그이의 한쪽팔소매에 매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꼬마가 행군길에 나설 용단을 내린것이 기특하다고, 이렇게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제 손으로 밥도 빨래도 해보고 천막도 쳐보면서 모든 일에 정통해야 혁명적대사변이 닥쳐와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토론마감에 주영은 이렇게 웨치였다.

《제가 이번행군을 끝까지 해낼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요란한 박수소리와 함께 꼬마의 성과를 축하하는 꽃다발이 안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원아들이 너무도 장하고

대견하시어 그들모두를 고급빠스에 태워 평양시 여러곳을 참관시키고 극장들의 예술공연과 함께 이름난 옥류관국수맛도 보게 해주시였다. 후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진우는 혁명가유자녀들을 나라의 억센 기둥으로 키우시기 위해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로고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눈시울을 적시였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혼련을 끝내고 힘있게 다가와 보고드리려는 주영의 손을 잡아 옆에 앉히시였다.

《수고했소. 모든 전투원들을 일당백용사로 키운 동무에게 감사를 주오.》

주영이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다시 손목을 잡아앉히시며 심중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주영동무의 나이가 지금 몇이요?》

뜻밖인듯 주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배동무를 처녀로 늙히겠소? 이제 결혼을 해야지.》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미리 외워두기라도 한듯 일사천리로 대답하는 주영을 제지시키시였다.

《우리 혁명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요. 동무혼자 혁명하다 말겠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던 주영은 한옆에 송구스럽게 서있는 정치위원을 바라본 뒤에야 짐작을 한듯 얼굴에 엄숙한 빛이 어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분계연선초소를 한목숨 다 바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너무 비장하게 말하지 마오. 그래서 보배동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소?》

편지를 받아든 주영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대답해보오, 이것이 동무 사랑의 전부인가? 진심을 말해보오.》

사람의 마음속 밑창까지 꿰뚫어보시는 그이의 눈길앞에서 주영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사실 저는 설음을... 부모없는 보배동무에게 또다시 설음을 남길가봐...》

주영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했다...》

한동안 괴로운 마음을 달래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영의 얼굴을 다시금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땀이 식은 그의 얼굴에 실오리처럼 가느다란 검버섯이 여기저기 돌아있는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강심을 먹고 보배에게 편지를 썼을 주영의 심정이 헤아려지시여 가슴이 저러드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더욱더 남쪽땅을 바라보시었다. 침침하게 구름이 드리운 그 하늘아래로 몇마리의 날새가 푸드득거리며 날아오고있었다. **김정일** 동지의 눈빛이 번쩍하였다. 분계선말뚝밑에까지 황금나락 설레이는 반면에 논밭맞은편 저 너머에는 해묵은 쭉대만 흐느적이는 남쪽땅이 생기없이 누워있었다. 황량한 들판에는 키를 넘는 가시철조망이 둥글둥글 쳐있고 그뒤로는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구축되어있었다. 적의 화점들에서는 금시라도 총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국토분별로 온 민족이 겪고있는 비극이 새삼스럽게 절감되시여 주먹을 짹 부르짖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영이에게로 돌아서시여 낮으나 준절히 타이르시었다.

《동무의 심정은 나도 이해되오. 그러나 왜 죽을 생각부터 하는가.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이긴다는 배짱이 있어야지. 동무들의 사랑이 한갓 남녀간의 애정에 머무르는것이요? 원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가 그밑에 깔려있지 않소. 그런데 잊어달라구? 이것은 심각하게 표현하면 패배주의란 말이요.》

《경애하는 장군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영의 눈에서는 끝내 쇠물처럼 뜨거운것이 쏟아져내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소 갈리신 음성으로 진정을 담아 말씀을 이으시었다.

《사랑은 힘이요, 열정의 샘이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군관의 안해들이 남편과 동지가 되어 한전호에서 원쑤놈들과 싸우고있소! 보배동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것 같소? 아니요, 그도 혁명학원출신이요.》

어느덧 대지에 어둠이 깃을 퍼기 시작하였다. 부판이 다가와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었다. 벌써 몇번째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언제인가처럼 주영의 두손을 꼭 감싸주시었다.

《물론 보배동무가 무대를 떠나기 아쉬워할수 있소. 그러나 노래는 군대에도 필요한것이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소.》

《알겠습니다.》

정치위원에게 따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별인사로 한손을 드시었다.

주영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자채양에서 손을 내릴줄 몰랐다.

4

그날 주영이를 위하여 그토록 먼길을 예도신 장군님이시었다.

장군님께서 주영이를 위해 기울이시는 사랑이 왜 그리도 각별한지 그이의 심중을 다는 알수 없었지만 오진우는 번마다 가슴뜨거움에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었다. 그런데도 주영이는...

오진우는 목이 말라드는것을 느끼며 장군님앞에 송구스런 자세로 서있었다. 백전로장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그였지만 장군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는 그 주영이가 범한 엄중한 파오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니 자꾸만 갑자르게 되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다 아시면 장군님께서도 또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그러나 사실대로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근무성원들은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 오솔길을 따라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었습니다.》

오진우는 이 보고가 한주영의 위훈에 대한것이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목소리가 탁 갈려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불쑥 하나의 가슴뜨거운 일이 영화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공연표를 가지고 극장에 들어서는 한주영, 자기 자리를 찾아가던 한주영이 눈이 둥그래진다. 뜻밖에도 옆자리에 보배가 앉아있는것이다.

《아니, 이게 누구요? 보배!》

주영은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바라본다는것도 잊고 보배의 손을 와락 그러쥐었다.

《보배, 그사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소?》

보배는 고개를 수그리며 속삭이듯 말한다.

《아니예요, 순간이나마 동요했던 제 잘못이 더 크지요.》

《아니, 잘못은 나에게 있소. 내 오늘 정식으로 동무한테 사죄를 하오.》

《됐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드디어 나란히 앉아 공연을 보는 두 젊은이.

그러는중에도 주영은 보배의 손을 꼭 쥐고있었다.

《보배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진짜보배라니까. 하마트면 잃을번 한 보배를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주시었구만.》

공 연 이 끝나자 오진우는 그들을 데리고 장군님 계시는 곳으로 갔다.

《상봉을 축하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란히 들어서는 그들을 반갑게 마중하시였다.

아버이정이 넘치는 눈길로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과 의논할 일이 있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배동무도 군복을 입겠다고 한다는데 항일유격대식으로 결혼식을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해서입니다.》

동무들의 부모들을 대신해서 내가 간소하게나마 결혼식상을 준비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두 젊은이는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어올라 눈물만 흘렸다. 나란히 서서 깊숙이 허리숙여 장군님께 절을 올리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와락 장군님 품에 안기였다.

《아버지!》

장군님께서 한 품에 그들을 안으신채 만시름을 놓으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런데... 이런 주영이 무슨 그런 과오를...

오진우는 그 어떤 의분을 느끼며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우리 순찰근무성원들이 군사분계선표식물앞을 지나치는데 가까운 풀숲에 숨어있던 적들이 불시에 기관총과 자동무기들로 일제히 사격을 해왔습니다. 불의의 습격에 우리 순찰성원 두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순찰근무성원들이 즉시 대응사격을 시작하자 기다렸다는듯 적들이 등지를 틀고앉은 좌우측 초소들에서 동시에 총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우리 순찰성원들이 희생되고 민경초소가 파괴되였다.

분노한 한주영은 상급의 승인도 받을 사이 없이 즉시 적들이 등지를 틀고앉은 고지를 무자비하게 불바다로 만들어놓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무자비한 대응타격에 아연해진 적들은 한순간 평해진듯싶었다. 이윽고 청와대가 끊고 백악관이 끊기 시작했다.

미제는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으로 침략무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후방에 있던 중무기들을 모두 끌어내어 전전선에 걸쳐 배치하고 임의의 시각에 사격할수 있도록 모든 포들에 장탄까지 해놓았다. 이 땅우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다.

오진우의 보고가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였다.

《주영동무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자체검토를 시켰다고 합니다. 군단에서는 그의 자유주의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비판하고 권리정지처벌을 주자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권리정지라...》

김정일동지께서는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높지 않은 발자국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오진우의 마음은 불안스러워졌다. 자의적인 결심으로 나라에 엄중한 정세를 조성시킨 주영에게 너무 가벼운 책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그이께서 너무도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여 차마 침묵을 깨뜨릴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자신의 결론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느끼시면서도 계속 방안을 거니시였다.

과연 오늘의 이 침예한 정세가 주영의 강력한 대응타격때문이겠는가. 적들은 어째서 먼저 도발을 걸었는가. 제놈들이 도발을 해도 우리가 참을 줄 알았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것은 분명 의도적이였다. 벌어진 사건을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최근에 조성된 정세와 결부시켜 전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무너지자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할 날은 멀지 않았다고 고아대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고립압살책동과 군사적압력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피괴들과 전쟁모의를 거듭 벌여놓고 그들에 대한 군사적원조를 대폭 늘이는 한편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감행할 기도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련이어 계속되는 미제호전광들의 남조선행각과 화약내 풍기는 전쟁소동은 심상치 않은것이였다. 그러고보면 이번에 적들이 감행한 무장도발사건은 결국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였다.

조성된 정세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의 진면모를 세계면전에 날날이 까밝혀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영의 대응타격이 결코 무분별한것이 아니였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덤벼들다가는 그런 뉘벼락을 맞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근엄하신 표정으로 일군들

을 둘러보시었다.

《이번에 적들이 감행한 무장도발행위에 대하여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수를 높여 되게 때리는것이 좋겠습니다. 호랑이를 건드리면 어떻게 혼썰이 나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어 회의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강력한 실무진도 파견해주시었다.

세계를 그토록 들썩하게 만들었던 놈들의 전선중부무장도발은 우리의 승리로 결속되었다.

5

오진우가 장령전장을 단 주영을 데리고 들어서자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환히 웃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사단장으로 승급한 주영동무를 축하합니다.》

그이께서 기쁨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다가가시었으나 주영은 인사말 한마디 변변히 못 올리고 눈시울만 적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것처럼 결패있고 원썩들앞에서는 성난 호랑이마냥 용맹한 그가 자신만 만나면 눈물짓는 그 여린 마음이 헤아려지시어 주영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었다.

《이러지 마오. 이제는 적들이 주영동무가 군사분계선에 나타만나도 무서워 별별 편다는데 울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동지들과 인사부터 나눕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안에 둘러앉은 지휘성원들앞으로 주영의 손을 따듯이 잡아 이끄시었다.

《동무들, 알고 지내시오. 이 동무가 최근 놈들의 전선중부무장도발때 분계선호랑이로 소문을 낸 한주영사단장입니다.》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주영은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하였다.

《이번에 적들을 무자비하게 잘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렸습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철의 의지가 저에게 그런 용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적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무쇠주먹맛을 톡톡히 보았을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영의 손을 다정히 만져보시었다. 학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는 처녀애처럼 만문하던 손이다. 자동보총 하나도 제대로 다루기 힘들어하던 나 어린 소년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

가. 키가 작고 허약하여 주먹으로 눈물만 흘치던 주영이가 어엿한 군사지휘관으로, 숨쉬있는 싸움군으로, 영웅사단장으로 자라는 과정은 우리 군대와 우리 조국의 주먹이 더욱 억세어진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밖에 씻을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결사옹위의 억센 주먹으로 분계연선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순간 장내에서는 그의 맹세에 호응하여 열렬한 박수갈채와 함께 《결사옹위!》, 《총폭탄!》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회의를 끝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정겨운 눈길로 주영을 쳐다보시었다.

《주영동무는 이제 나와 함께 갈곳이 있습니다. 보배동무도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수령님께로 갑시다.》

순간 한주영은 자기가 잘못 듣지는 않았는가 하는듯 놀란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제가... 제가 수령님께로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렇습니다. 난 언제든 오늘과 같은 날이 꼭 오리라 믿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어제날의 〈룡강울꾼이〉가 이렇게 장령으로 자란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장군님!》

한주영은 꼭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외로 꺾었다. 더는 참아낼수 없는듯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울었다.

세찬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한주영이뿐이 아니었다.

오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아!》하는 경탄의 소리를 내며 장군님을 우려했다.

그 순간 언제인가 **김정일** 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것이다.

그것은 혁명학원에 열병식행사준비를 보아주러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나갔을 때 있던 일이었다.

《수령님께서 오늘 오진우동지가 한주영이를 키가 작다고 대렬에서 떼어내려 하는것을 보고 안색을 흐리시며 걱정하시었습니다. 한주영이가 몸이 약해서 마음이 안 놓인다고... 그 애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겠는데 하시면서... 우리 한주영이를 잘 키웁시다.

벌에 올리는 노래

조 광 철

이 봄날 해빛은 류달리 눈부서라
모내는기계운전공 어제날 제대병사
논벌을 푸르게 누벼가는데
월참이라 사람들 저마다 찾네
병사의 노래 한곡 청하누나

모내는기계를 세우고
논두렁에 올라선 제대군인
마치 전장을 굽어보는 병사인듯
오늘 부르는 노래도 전시가요

마치도 가없이 넓은 들과 하늘가엔
그 노래소리만이 가득히 차있는듯
격정에 넘쳐 듣는 사람들
그들은 모내는 농장원들뿐이던가
로동자들 일군들

모두다 따라부르는구나
재청이 따로 없는 그 노래
2012년의 이 봄날 모를 내고 씨를 묻는
전투장마다에서
포연이 숨배인 전시가요
그 가락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프락또르며 모내는기계마다
이 노래소리에 동음은 더 높아지고
온갖 가증스러운 원썬들의 심장에

폭탄처럼 던져지는 이 노래

진정 오늘의 이 봄이 어떤 봄임을
벼모 한포기한포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준절히 깨우쳐주는 노래
어제날 전선에서 불렀고
오늘도 전선에서 부르는 노래

철비 불비속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안아온
불굴의 인간들이 심장으로 부르던 그 노래를
오늘 농업전선 그 어디서나
온 나라 인민들이 부르는 심장의 노래여

조국땅 방방곡곡 모를 내는 전선마다
이 노래 어린 모의 젖줄기되리
봄내 여름내 풍요해질 가을까지
이 노래 난알을 지키는 성새되리
쌀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갈
신념이 되고 진함없는 힘이 되려니

즐겁고 건드러진 가락도 좋지만
전투장엔 전투적인 노래가 제일
그 선물속에 울려퍼질
강성부흥의 아리랑을 위해
전선의 노래 전시가요런곡을 오늘에 부르자

수령님께서 기뻐하시게 말입니다.》

오진우는 불물같이 뜨거운것이 목안으로 가득
차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장군님께서 그리도 정
을 기울여 한주영이를 키워오시였구나.

수령님앞에 땀땀이 내세워주기 위해서...

주영이를 아버지처럼 분계선의 호랑이로 키워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정녕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얼마나 숭고
하고 넓고도 깊은것인가.

그 사랑속에 어제날의 의기소침하고 나약하던
주영이가 마침내 호랑이로 자라났다. 어찌 주영이

뿐이라. 조국의 최전연초소는 물론 하늘과 바다,
땅 그 어디나 그이께서 온 심혼을 기울이시여 키
워낸 주영이와 같은 무수한 호랑이들이 서슬푸르
게 지키고있어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덤
벼들지 못하는것이다.

아, 언제나 아버지수령님께 드릴 기쁨만을 마련
해가시는 우리 장군님...

《자, 이젠 어서 잡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학원시절처럼 주영의 손
을 꼭 잡으시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4월의 따사로운 태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쳐주
고있었다.

울려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여!

허 수 산

1

종소리 종소리
맑고 푸른 하늘가에
종소리 울린다
인민대학습당의 유정한 종소리

종소리에 맞춰
여기 남산재언덕으로
물결쳐오른다
과학자, 대학생들의 대오가

인민대학습당이어!
너의 넓은 문이 열린 때로부터
서른해
종소리는 오늘처럼 쉬임없이 울렸다
이 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물결 그칠새 없었다

서른해
나는 너와 정들은 독자
너의 시계종소리에 맞춰
교육자의 내 한생 흐르지 않았더냐

이 아침도
너는 푸른색합각지붕
희망의 나래마냥 펼쳐들고
나를
대학생 나의 제자들을 부르거니

얼마나 좋은 자리나
이 언덕에서 온 평양이 바라보이고
가슴 확 열리고 마음이 탁 트인다
끝없이 희망찬 넓은 길로
내 조국이 가는 모습 보이는듯싶다

이 언덕에 서니

온 평양이 인민대학습당을 축복하는듯
앞으로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봉화는
우리의 앞길 환히 밝혀주고
대동강의 분수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탐구의 길 힘차게 걸어가라는듯

참으로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자리는 명당자리
이 명당자리에
인민의 학습전당 높이 섰으니
아느냐 사람들이여 그 뜻깊은 사연

전후복구건설의 그 나날
일군들이 간절한 청 올렸더라
—수령님
저 좋은 남산재언덕에
정부청사를 건설하였으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수령님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며
굳이 만류하시였다
여기에 정부청사를 앉히면
인민들이 우릴 보고
관료주의자들이라고 할거라고...

해를 두고 평양의 명당자리는
크나큰 그 무엇을 기다리는듯
그냥 빈 자리로 남아있었어라
수령님의 크나큰 꿈을 안고
아끼고 아끼시는 자리로

그때로부터 1970년대
어느날 모란봉을 거니시던 수령님
남산재쪽이 비였는데
거기에 평양의 얼굴이 되는
중심건물을 앉히자고

저 남산재에 전민을 학습시키는
큰 학습당을 짓자고 말씀하셨어라

인민대학습당을 서양식으로가 아니라
동양식으로 우리 식으로 지어야 한다고
건물은 합각지붕으로 하되
건물이 큰 텅어리로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는 전국의 모든 인민들이 다 와서
공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아,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이어
우리 인민들을 가장 문명한 인민으로
우리 조국을 가장 발전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그 념원 그 높은 뜻이어

해방후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소박한 책장을 꾸리시여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렸던
그날의 책장의 사연이어
그 책장을 온 나라에 펼치고싶으셨던
수령님의 높이신 뜻이어

책을
인생의 귀중한 길동무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
억만금을 들여
책 - 그것을
인민의 재부로 안겨주시려 하셨거니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자신이 건설주가 되겠다 하시며
전국적현상모집으로
인민대학습당형성도안을 모색하시고

아버이수령님께서
건설건재대학에서 설계한
조선식건물형성도안이 좋다고 하셨을 때
너무 기쁘시여
온 나라 인민을 인민대학습당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아버지장군님이시여!

자리도 제일

설계도 제일
시공도 제일
모든것을 제일로!
밤낮없이 건설전투를 벌리던 나날이어

건설에서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
그 나날들의 새벽은 그 얼마던가
그 나날들의 깊은 밤은 또 얼마

세상에 없는 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다른 나라에 비행기까지 띄워
최첨단 과학기술도서들을 들여오게 하시고
강력한 번역기지까지 꾸려주신분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드디어 수령님탄생 70돐을
세계의 대경사로 맞이하는
뜻깊은 1982년 4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 아버지수령님 모시고
완성된 인민대학습당에 나오시였나니

한생의 소원 다 풀리신듯
더없이 환한 웃음 지으시던 수령님
몸소 책상에 앉아 살펴보시며
독자들의 키에 맞게 조절할수 있는
책상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자상히 마음쓰시던 수령님

그 밝으신 미소에
인민대학습당 푸른 추녀가
더 높이 들리고
다심하신 그 사랑에
호실마다 따뜻한 해빛으로 가득찼어라

대학습당이름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부르자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원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인민을 위한 집이니
인민의 이름으로 부르자고 하시며

정부청사가 인민대학습당아래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이라는것이

대번에 알린다고
만족하게 웃으시던 미소여!
그 미소 천만년이 간들 우리 어찌 잊으랴

부강한 오늘을
천리혜안으로 내다보시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인민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하늘높이 세워주신
귀중한 인민의 재부여!
아버이장군님의 귀중한 유산이여!

종소리 울린다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
이민위천의 뜻이 어린 종소리
그 사랑 그 뜻 잊지 말고
어서 더 크게 전진하라고
인민대학습당 종소리 오늘도 울린다

2

너의 종소리 울린 때로부터 30년!
너의 자랑스런 영광의 걸음은
위대한 장군님 사랑에 받들리어
걸음걸음 걸어온 승리의 길이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그날에도
너의 문만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었다
밖에는 눈보라 불었어도
인민대학습당은 호수처럼 고요하였다
봄날처럼 어머니품처럼 밝고 따뜻하였다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푼의 돈도 쪼개써야 하던 나날
귀중한 책들과
현대적인 설비들이 쌓아졌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문화
세계의 지식의 보물고로 솟아오른
배움의 전당

벌써 대학시절
만폐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고
세계의 고전들을 독파하시고
수많은 사상리론저서들을 집필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우리 장군님

지식은 광명 무식은 암흑이라시며
전국을 과학기술혁명으로 불러일으켜
우리의 인재로
우리의 기술로
이 땅에 수령님의 리상 꽃피워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세우시려는

그 높은 뜻 받들어
전국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 일떠섰다
30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대오에 들어섰던가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
인민대학습당의 혜택 입었던가

여기서 인민들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하였고
열람실에 가면
과학자자리가 기다렸더라
여기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오직 무료교육 무료봉사!

참으로 무료교육의 상징
사회주의교육의 상징
전민사회교육의 전당
인민대학습당이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사상
빛나게 구현한 집이여!

너의 지붕아래서 학습한 사람들이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렸고
조국의 존엄을 지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되게 하였고

너의 책상에 앉아 공부한 사람들이
서해갑문을 설계하였고
우리 힘 우리의 기술로
주체비날론 주체비료 주체철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조국은 일떠섰다
조국은 문명해졌다
조국은 강대해졌다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장군님
바로 흥하는 오늘을 내다보시고
이 집을 지으시기에
사회주의교육의 본태가 꽃피었거니

아, 종소리 울린다
온 세계가 듣게
인민대학습당 종소리
영원한 사랑의 종소리
영원한 추억의 종소리 울린다

3

그 종소리 대를 이어
이 땅에 힘차게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이신
인민사랑의 화신이신
우리의 최고령도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인민대학습당에
갓가지 귀한 책들을 보내주시었다

2012년 새해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그 병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새해진군을 힘차게 내디디시던 그때

이 땅에 총대와 함께
더 많은 책이 있어야 하기에
인민들을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부르고부르는 귀중한 책들
새해 인민에게 안겨주셨나니

오늘은 지식경제의 시대
과학과 기술이 조국을 부강케 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시대
누가 최첨단과학기술의 소유자들인가 하는
인재전 두뇌전의 시대

오직 우리 인민의 힘 우리 식으로
최첨단과학기술의 돌파전으로

강성대국 그날을 앞당긴다
우리는 인재가 많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필요한것은 인재! 새로운 발명!

천만금으로 지은 이 집은
전민이 학습하는 인민의 집
궁궐같은 이 집은
그대의 집 우리의 집이다

대학에는 방학이 있으나
여기는 사시절 방학없는 대학이다
하루 수천명의 독자들을
주소도 직업도 차별없이
숙연히 들여세운다

제집 문고리 잡듯
스스럼없이 들어선다
여기서 온 세계를 알수 있고
조국의 래일을 볼수 있다

분발하고 분발하자
지식인들이여!
대학생들이여!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히려는
장군님사랑 여기서 꽃피나거니

조국은 재사들을 부른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오, 경사로운 30돐
인민은 노래를 드린다
인민은 감사를 드린다
인민에게 선물중의 선물을 주신
우리 수령님께!
우리 장군님께!

앞으로 또 30년
앞으로 또 300년
합각지봉의 청기와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더 푸르고 푸르러지리라!

시는 시대정신의 울림이며 메아리이다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시작품들을 두고)

김 봉 민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환희와 긍지에 넘쳐 주체101(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인민을 끊임 없는 위훈과 혁신으로 부르고있다.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다르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도 하루가 새롭게 달라져가고있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향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을데 대한 과업을 우리 작가들앞에 제기하였다.

지난해 피눈물의 12월의 언덕에서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절통함으로 가슴을 치고 아버지장군님의 생전에 더 많은 명작을 창작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뜨거운 눈물속에 몸부림치던 우리 작가들이다.

그날의 절통함, 죄책감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겨 안고 시대를 울리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다는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우리 시인들앞에 나서고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창작된 시작품들의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연구해보고 그것을 앞으로의 창작실천에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시작품들에서의 기본주제는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변할줄 모르고 더욱 강렬해만 가는 그리움의 주제였다.

작품들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시고 인민을 찾아 멀고먼 길을 걸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폭넓고 감동깊은 형상으로 펼쳐보이면서 장군님은

곧 우리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시며 장군님의 건강이 곧 인민의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시 《인민의 소원입니다》(김경남 작 1호)에서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을 바라고 건강을 축원하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독특한 시적발견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봄바람 향기로운 봄날과 록음이 설레이는 여름의 좋은 날들은 인민에게 주시고 자신께서는 정월의 찬눈, 찬바람을 맞으시며 곳은 길만 걸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을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작품에서는 자신께서는 험한 추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먼길을 떠나시면서도 로동자들이 추울세라 들어가라고 손짓하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장군님의 건강은 곧 우리 조국의 운명이고 인민의 행복이라는 사상을 독특한 시적발견으로 노래하고있다.

...

—장군님 차문을 닫으십시오
장군님 건강하셔야
인민들이 입는 비단옷도 따스합니다
장군님 건강하셔야
조국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의 소원입니다

그렇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한평생 헤쳐가신 눈바람 세차고 비바람 세찬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이 마련되고 꽃피어났다. 하기에 우리 천만군민은 조국과 혁명을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천만고생을 달게 여기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뜨거운 눈물속에 우러르며 그이의 안녕과 건강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선군시대 기본감정을 독특한 시적발견으로 매우 뜻깊게 노래하고있다.

시 《함박눈은 내리고 그리움은 쌓이고...》(문동식 작 12호)에서도 진실한 체험과 독특한 시적정서로 아버지장군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인민

군군인들의 절절한 서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는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최전연고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어깨의 눈도 털어주시고 솜옷의 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며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며 그이를 지켜, 조국을 지켜 백승만을 펼쳐갈 열의에 불타있는 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

사랑과 그리움을 안고 솟은
여기 조국의 고지는 무적의 요새
우리 장군님의 백두산총대로
백승만을 펼쳐갈 멸적의 승리봉

이 고지에 장군님의 봄빛같은 정을 안고
이밤 함박눈은 내리고
장군님의 병사들 우리들의 가슴속엔
불같은 그리움만 쌓이고 또 쌓이여라

내리는 함박눈, 쌓이는 그리움...

독특한 발견이고 특색있는 시적대비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찾고찾으신 조국의 고지들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맞는 병사들의 가슴속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불같은 그리움의정이 쌓이고 또 쌓인다는 시적일반화는 류다른 매력과 감미로운 시적서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밖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한 페이지를 깊은 체험과 서정으로 노래한 시 《위대한 행군》(허수산 작 3호), 나라없던 그 시절에 원한의 강으로 불리우던 보통강기슭의 토성랑을 인민의 보금자리로 전변시킨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그리움의 서정으로 노래한 시 《전국의 첫삽우에》(박현철 작 5호),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수령님이 그리워 온 나라 인민이 오르고 또 오르는 만수대의 꽃바다를 노래한 시 《꽃의 바다 만수대》(김용엽 작 7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생애를 뜨겁게 추억하며 어머니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의 서정을 노래한 시 《고결한 생애앞에》(박기석 작 9호)등의 작품들에서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절한 그리움을 뜨겁고 정서있게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작품들에서 울려나오는 정서적메아리는 그대로 억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할줄 모르고 더해만 가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진심의 분출인것으로 하여 매우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주제의 작품들에서 그전에 비하여 정서적폭과 깊이

가 더 보장되고 그 정서적체험이 보다 풍부하며 시적발견이 새로운것으로 하여 우리 시인들에게 일정한 경험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시작품들도 왕성하게 창작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호의 시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박세일 작), 《나는 고난의 나날에 아버지로 되었다!》(윤정길 작), 3호의 시 《누가 애국에 사는것입니까》(정동찬 작), 《열여덟살》(김연 작), 4호의 시 《나는 병사출신농민이다》(김경석 작), 6호의 시 《강원땅에 부치노라》(박웅전 작), 7호의 시초 《돌격대의 첫날, 백날》(김정곤 작), 9호의 시초 《조국과 녀인》(렴형미 작), 12호의 시뭇줄 《영원한 동행자의 발걸음》 등의 시들에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커다란 정신적힘에 대한 시대적해명을 서정적으로 진실하게 주고 있다.

특히 시 《나는 병사출신농민이다》의 서정세계는 병사시절의 걸음새로 농업전선 포전길에 복무의 한생을 엮어가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을 진실하게 펼친것으로 하여 비교적 읽히우는 시이다.

작품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병사출신의 농민이다.

꿈도 많았을것이다. 희망도 컸을것이다.

허나 그는 왜 농민이 되어 이 땅에 땀만이 아닌 간절한 소망도 함께 심는것인가. 그 소망은 무엇인가.

시에서는 이러한 형상적물음을 제거하면서 제대 병사 서정적주인공은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리 기 위해 농민이 되어 이 별을 잘 가꾸고 어버이장군님을 모시는 그날 그이께서 병사시절 중대에 찾아오셨던 그날처럼 기뻐하시었으면 하는 너무도 간절한 소망을 심는것이다.

작품에서는 바로 이렇게 선군시대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는 애국의 마음은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간절한 소망에서 꽃피난다는것을 서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시초 《돌격대의 첫날, 백날》도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으로서 비교적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6개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이 넘쳐나고 청춘의 랑만과 희열이 꽃피나는 돌격대생활에 대하여 실감있고 재치있게 그려보이면서 선군시대 청춘들의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애국심의 정신적원천에 대하여 깊이있게 노래하고 있다.

시 《돌격대의 첫날, 백날》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돌격대의 하루하루를 청춘의 위훈과 용맹으

로 뿔뿔이 빛내가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열정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돌격대의 첫날 맡겨진 너무도 엄청난 일감에 입만 하 벌리던 돌격대원들이 하루하루를 거쳐 어떻게 기적의 창조자, 위훈의 창조자로 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걸음발을 희천속도에 맞추어 시대의 기념비를 건설하였는가를 보여주면서 흘러내리는 땀속에서 그들은 시대의 영웅들로 자랐다는것, 바로 그것이 청춘이 사는 멋이라고 긍지롭게 토로하고있다.

돌격대의 첫날, 백날!

청춘은 이 땅우리 기념비만이 아니라 애국에 높뛰는 심장도 함께 자라왔다는것이 이 작품이 밝힌 시대적주장이다.

시 《격정도 많아진다》와 시 《목마》 역시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커지는 심장과 함께 불타는 애국의 탑, 시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실감있게 노래하고있다.

한편 시 《밤메아리》에서는 우리 시대 청춘의 가장 큰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당원증을 받아안은 돌격대원 철남이를 축하해주는 돌격대원들에 대한 시적세부속에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다음 시 《성장》에서는 리수복영웅의 가슴에 간직되어있는 애국심을 그대로 간직한 우리 시대 청춘들의 불타는 열정과 애국의 마음을 일반적인 시어로가 아니라 리수복영웅의 정신세계에 한발자욱 더 다가선 청춘들에 대한 독특한 서정과 시적발견으로 의의있게 형상하고있다.

마감시 《랑만》에서는 청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 랑만을 새로운 위훈을 찾아 갈망하는 선군시대 청춘의 본태에 대한 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잔물결 출렁이는 호수가에 앉아 앞으로 서게 될 휴양객이며 야영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앞날의 위훈과 기적이 태어날 새로운 일터로 마음부터 앞세우는 청춘의 랑만에 대하여 노래함으로써 시대의 영웅들이 수많이 자라나는 오늘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돌격대의 첫날, 백날》, 이는 정녕 선군시대의 자랑찬 시대상에 대한 의의있는 노래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으로서 시초 《조국과 녀인》의 창작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작품에서는 깊은 철학적사색속에서 《어머니》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조국과 녀인에 대하여 형상을 펼쳐면서 진정 조국은 우리모두의 어머니이며 조국이 있어 어머니로 불리우는 녀인들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가 비로소 꽃피날수 있다는

사상을 격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정서적체험으로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철학적사색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먼저 첫시 《그 부름앞에》에서 어쩌서 조국과 녀인은 똑같이 어머니란 부름으로 불리우는가 하는 철학적물음을 제기하고있다.

아름벌게 자라 어릴 때처럼 껴안아줄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곁에 있으면 좋기만 하는 어머니, 그는 녀인이며 서정적주인공이다. 그런 그가 아들을 자기의 품에서 떼어놓을 때가 되어 느끼는 정서적체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크나큰 조국과 녀인은 똑같이 어머니란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었다. 이로부터 서정적주인공은 조국과 녀인의 부름에 대한 철학적물음을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다음 시 《어머니모습》, 《제일 큰 대학》, 《믿음》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앞머리에서 제기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집과 어머니를 떠나 초소로 간 아들이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나라 녀인들의 뜨거운 진심에 대한 형상을 시적일반화로 펼쳐보이고있다.

그러다가 마감시 《조국과 녀인》에서 마침내 조국과 녀인이 어쩌서 똑같이 어머니로 불리우게 되었는가를 해명하고있다.

생명을 낳고 배고플세라 아플세라 보살펴주는 녀인—어머니—서정적주인공!

그런 한 녀인의 자식을 품에 안아 나라의 주인으로, 시대의 영웅으로, 참된 삶의 체현자로 키워주는 조국—이도 역시 어머니!

생과 삶.

생은 어머니가 준다.

그러나 참된 삶은 조국이란 크나큰 어머니가 안겨준다.

하기에 조국과 녀인은 어머니란 고귀한 부름으로 함께 불리워진다.

바로 여기에 깊은 철학적사색속에서 시대의 진리를 밝힌 이 시의 창작성과가 깃들어있다.

시뭇음 《영원한 동행자의 발걸음》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믿음속에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작가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선군혁명동지, 시대의 대변자로 불러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어제날 풀대처럼 연약했던 붓을/백두산붓대로 억세게 버리어》 안겨주신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시대의 선도자로 자라난 작가

청 산 별 의 모 내 기

김 학 룰

나는 지금 모를 심는다
청산리 취득부락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
마흔한해전 봄날
몸소 모를 내신 포전에

돌이 많아 돌모루, 석두재...
망썩마저 가난에 짓눌려
굶어죽었다는 망썩골의 전변이
더욱 사무치게 안겨오는
력사의 고장 청산리

이 전변의 새 력사를 불러오시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찾으신 새벽 걸으신 두령길이
청산별이 걸어온 력사의 길이 되고
우리 농촌이 가야 할 리정표가 된 청산리

우리 수령님 몸소 가꾸시는
저택의 시험포전과
지경없이 펼쳐져
눈도 비도 계절도
함께 맞고보낸 땅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우리 수령님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보름낮 보름밤 농민들과 함께 계시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며
우리 농촌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래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수령님 그날에 그려보신
사회주의무릉도원의 새봄을
여기 청산별에 활짝 꽃피우시려
이 별에 몸소 모를 심으셨나니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 하시며
그날에 벌써 수령님의 념원
자신의 리상을 담아
강성국가의 봄씨앗 물어주신 력사의 땅이어

나는 지금 모를 심는다
우리 장군님 남기신 불멸의 자옥우에 설레일
풍요한 가을을 안아보며
나는 행복의 모를 심는다

모두의 긍지감을 뜨겁게 토로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태양의 빛으로 눈부신 별무리》가 되고 《최고사령부의 종군시인》이 되었으며 그 품속에서 죽어서도 영생하며 복받은 삶의 희열과 랑만을 떨쳐가는 작가들의 가슴속에 고패치는 애국의 열정과 불타는 충정의 맹세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작품들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정서적열정과 깊이 있는 체험, 독특한 시적발견과 여운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장군님의 축복과 믿음속에서 참된 삶의 노래, 시대의 노래를 불러가는 작가들의 모습을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지난해 창작된 시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선군시문학발전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부족점도 일부 나타나고있다.

두고두고 사람들이 음미해보고 생각하게 될만한 명작, 시대를 선도하고 강렬한 시대정신을 사람들이 절절히 느낄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앞으로 우리 시문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

제인것이다.

일부 시작품들이 체험이 깊지 못하고 시적발견이 없으며 시적주장 역시 메마르고 하여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는 현상도 앞으로의 창작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아버지장군님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시대정신이 메아리치고 시대정신이 울리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자.

맹세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오직 명작을 창작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만이 우리 작가들이 아버지장군님께 다하지 못한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명작창작이라는 일념을 안고 수령의 기억속에 남아있고 시대와 인민, 조국과 력사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탐구와 사색의 정열을 바쳐야 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괴뢰역적패당을 단매에 죽탕쳐버릴것이다.

수 필

병사의 선언

원 위 성

예로부터 무언이 더 무섭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아마도 그것은 천백마디의 말보다 침묵끝에 이어질 단호하고도 격렬한 행동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연평도가 바라보이는 서해안의 어느 한 포병구분대에서 얼마전에 내가 만났던 군인들에게서 바로 그것을 느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리명박역적패당과 총결산할 각오로 부글부글 몸과 마음을 끓이고있던 때였다.

화석인듯 굳어진 자세로 조준경에 눈길을 박고있던 한 군인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짝 틀어진 주먹을 포신에 얹으며 고개를 돌렸다.

시퍼런 불길이 이글거리는 그 눈길과 마주치자 다른 한 병사가 벌떡 몸을 솟구치며 포탄상자 뚜껑을 열어제꼈다.

우리와 동행한 지휘관은 당장 무슨 일을 칠것만 같은 그들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그런데 포신옆에 서있던 신호기발을 든 포장이 한발 나서며 대들듯 말했다.

《개명박이 저 죽탕치고 칼탕쳐죽일 역적놈의 새끼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했는데 왜 가만있습니까!》

그것은 당장 《쫓!》 구령을 내리지 않는 지휘관에 대한 원망이었다.

《예?!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

지휘관도 나도 대답을 찾지 못했다.

리명박역적새끼들이 이 세상 언어가 닿지 못하는 개망나니짓을 꺼리낌없이 감행했으니 정말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민족대국상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에 낯강도 미제와 야합하여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을 벌려놓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역적패당과 어찌 한하늘을 이고 솟을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인민이 진심으로 운명을 의탁하고 사는 요람이며 삶의 터전인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헐뜯다 못해 천만군민의 목숨과도 같은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만고역적의 쥐무리를 우리 어찌 용서할소냐.

리명박역적패거리들아, 똑똑히 알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면서도 위대한 아버지의 초상화에 한점 물방울이라도 스며들세라 정히 싸

안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우리 수령의 존칭수식사를 정중히 부르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적구에서 네놈들을 전률시키던 그날의 병사들이 여기 있다.

구호나무를 지켜 타래치는 불길속에 뛰어들어 온몸이 불에 타면서도 우리 수령의 초상화장만은 죽안에 꼭 쥐고 놓지 않았던 불굴의 영웅들이 바로 여기 있다.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그 심장에 천만이 피줄을 잇고 사는데 우리의 그 생명선을 끊어보려고 지랄발광을 했으니 이 땅의 산천초목까지도 보복성전의 날창으로 치솟은것 같다. 길가의 돌맹이마저도 수류탄인양 한껏 달아올랐다.

천만군민은 보복성전의 만장약을 하고 명령만 기다리고있다.

그 대오의 한사람인 한 평범한 가정부인의 말이 떠오른다.

《내가 너자라지만 짐승잡는 솜씨가 좀 있는데 개명박인지, 쥐명박인지 하는 놈을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면 단숨에 칼탕쳐 죽이겠다.》

어찌 그 녀인뿐이라.

온 나라 남녀로소가 쥐명박이잡이에 일떠섰다.

미친개, 몽둥이, 대갈통, 박산, 죽탕, 칼탕, 불벼락과 같은 단어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격한 목소리들에서 나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느꼈다.

우리 병사들은 그 목소리들을 새겨들으며 말없이 총탄과 포탄을 재우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리명박역적패당이 서울의 땅굴속에 있든 부산에 있든 천백배 보복의 불벼락사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침묵하고있는 병사들의 서리찬 눈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렇다. 병사는 말로 안한다.

오직 총대로만 하고싶은 말을 다할것이다.

병사의 선언은 불벼락이다.

병사가 말하는 그날에는 리명박역적무리가 이 세상에서 재가루로 날려가는 날로 될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 병사들은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운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결사옹위의 피를 끓이며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용서치 않으리라

황 명 성

입에 올리გი조차 역겹다
리명박 좀스런 네놈의 이름은
우리 추호도 용납 못할 복수의 대명사
갈기갈기 찢어던져야 할 죽음의 대명사

그런데 아직 살아서
복수의 벼락을 내릴 우리의 총대를 모르고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불망나니 미친개짓을 또다시 했던 말인가

이미 네놈은 규탄의 폭풍에
이미 네놈은 징벌의 노한 퇴성에
얼을 잃고 사형대에 올라
죽은 시체가 되었나니

비록 명줄이 붙어있다고 해서
리명박 네놈은 살아있는게 아니다
죽어도 구역질나는 네놈의 몸뚱아리조차
신성한 이 땅엔 묻힐 곳 없다

만약 네놈 몸뚱아리 재가 되었다 해도
우리 분노가 만장약된
섬멸의 탄창을 다 풀어
재마저 이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리명박역적놈의 그 족속 씨도 없이
세상 끝이라도 쫓아가 멸살시킬테다
오, 이것이 내 으스스리게 들어온
선군승리의 보검인 백두산총대의 선언이다!

총대가 몸부림친다

리 찬 호

총대를 잡은 병사의 이 손은
어디에 필요한가를
병사가 틀어잡은 총대와 탄알이
무엇에 필요한가를 준렬히 깨우쳐주는 이 시각

총대의 총기름 배이고
총탁못이 깊이 박인 이 손은
조선인민의 극악한 철천지원쭉
리명박역도의 대갈통을 박살내기 위해
병사가 틀어잡은 총대의 총알은
리명박역도무리들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만장약된것!

어찌 그냥 둘수 있으랴
어찌 더이상 참을수 있으랴
위대한 어버이를 하늘처럼 믿고사는
우리의 운명을 건드린 놈
태양에 감히 섰대질을 한 놈

대국상의 나날 피눈물을 씹으며
네놈들의 못된짓 참아온 우리
이제 더는 견딜수가 없어
만장약된 분노를 뿜으며
달아오른 총대가 몸부림친다

조선은 총대로 강해진 선군의 나라
우리의 최고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인민
어찌 참을수 있으랴
우리의 아량과 참음이 한계를 넘었거니

더는 용서치 않으리
더는 참지 않으리
증오로 버려진 총창앞에
복수로 만장약된 총탄앞에
네놈은 백번천번 죽음을 당하리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라!

잊지 말아다오 내 아들이

류 정 실

산천초목도 분노로 치밀고
푸른 하늘에서 벼락이 쏟아질듯
사무친 원한을 안고 군복을 입은 아들이
복수를 다짐하는 연단에
너 용약 나섰구나

머칠전만도
대학입학의 꿈을 키우며
불밝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미래의 꿈을 펼쳐가던
네가 아니더냐

허나 오늘
선참 군복입고 나섰구나
하늘같은 아버지를 잃고
땅을 치며 피눈물 뿌리던 겨레의 가슴에
총칼을 휘둘러댄 리명박역적무리를
이 땅에 그대로 둘수 없어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한 깡패무리들을
정녕 이 하늘아래 그대로 둘수 없어
그처럼 사랑하던 펜을
멸적의 총검으로 바꾸어 들었구나
복수의 성전에 단연코 나섰구나

미처 몰랐구나 이 어머니도
수학공식과 화학기호밖에 모르는

아직은 철부지로만 생각하던 그 작은 가슴에
그처럼 억센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이 자리잡은줄
원췌에 대한 증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있는줄

아,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이처럼 너를 키우셨구나
네 아침마다 달려가던 희망넘친 등교길
전적지와 야영의 등산길을
한없이 귀중한 조국애로 가슴에 새기도록

하저늘
모독당한 우리의 존엄을 두고
네 심장 어찌 복수의 폭탄이 되지 않으랴
피끓는 가슴에 깊이 새기거라
우리의 최고존엄은 너와 우리모두의 운명
한없이 귀중한 조국의 운명
그 존엄과 운명을 지키는 성전에서 너는
첫번째 총폭탄용사가 되어야 함을

나는 본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위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내 아들이
받아다오 사랑과 믿음에 불타는
이 어머니의 뜨거운 부탁을
부디 잊지 말아다오!

상 식

필적과 성격

- 룬괘이 뚜렷한 필적—진취성과 비판정신이 강하거나 지도능력이 있다는것.
- 힘있는 필적—의지가 굳세고 용맹하다는것.
- 미끈하고 고운 필적—성미가 온순하다는것.
- 대범하고 믿음성있는 필적—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갖고있다는것.
- 시원하고 간결한 필적—재능과 지혜가 있고 일처리속도가 빠르다는것.
- 통두사미격으로 어울리지 않는 필적—참

- 을성과 인내성이 부족하다는것.
- 어울려 한덩어리가 되는 필적—사유는 정확하지만 창조적정신이 부족하다는것.
- 런던달아 이어진 필적—사유가 신중하고 세심하다는것.
- 아래로 약간 내려가는 필적—용기가 부족하거나 압박감이 있다는것.
- 나중에 쓰는 획이 밖으로 비교적 길게 뻗은 필적—창조적정신이 높다는것.
- 나중에 쓰는 획이 안으로 뻗은 필적—자기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쌓는다는것.



백 상 균

아침일찍 집을 나서는 승민의 귀를 간지럽히며 안해의 꾸밈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시간엔 꼭 데려와야 해요.》

쓰다 달다 말이 없이 계단을 내리는 승민의 마음도 가볍지 못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인 딸 은정은 승민이가 직장장으로 일하는 동천기계공장에 내려와 주축가 공반현대화설계를 하고있었다.

오래간만에 부모슬하를 찾아왔건만 설계를 빨리 끝내야 한다면 집에서 하루밤 묵고는 이튿날로 공장 외래자합숙으로 옮겨앉았는데 요즘은 통 얼굴을 볼수가 없다.

하긴 요전날 공장구내에서 잠간 만났을 때 자료작업은 기본적으로 끝냈는데 신통한 착상이 떠오르지 않아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언제 제 생일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는가.

아무리 바빠 돌아가도 오늘만은 집에 데려다가 생일상도 차려주고 머리섬도 하게 해야지.

욕버리며 외래자합숙으로 들어서던 승민은 은정이가 어제 저녁 평양에 갔다올 일이 있다면서 급히 떠났다는 합숙관리원의 말에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갑자기 무슨 급한 사정이 제기되었길래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떠났을가.

딸에 대한 원망이 가슴 한귀퉁이를 비집고 머리를 쳐들었다.

일도 참 맹랑하게 되었다.

지금쯤 안해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한창 분주탕을 피울텐데...

맹랑한 심정으로 후줄근해서 돌아서던 승민은

갑자기 누군가가 출입문을 막아서는 바람에 튕기듯 한옆으로 물러섰다.

이크, 이걸 웬 녀석이야.

골살을 찡그리고 흘깃 상대를 쳐다보던 승민의 눈살이 대번에 막대기처럼 꼳꼳해졌다.

영, 이게 누구야? 건설직장의 림길천이가...

《미안합니다.》하며 고개를 쳐들던 길천은 승민을 알아보고 반죽죽게 웃으며 꾸벅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장동지.》

승민은 이마에 새긴 갈매기를 지우지 못한채 무뚝뚝하게 말을 던지었다.

《여긴 왜 왔나?》

흘끔 웃측쪽을 올려다본 길천은 어쭙은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리었다.

《저... 연구사동무를... 만나려고...》

《?!》

뜻밖인듯 승민의 눈이 덩돌해졌다.

하마트면 입에서 《뭐, 우리 은정이를...》하는 소리가 튀어나올번 하였다.

이녀석이 은정이를 만나러온 까닭이 무엇일가. 우뚱씨처럼 달라붙는 의문을 풀어보려고 갑자르던 승민은 부지중 뭔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언젠가 길천이가 승민을 찾아와 은정이를 만나겠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때 승민은 언제 봐야 푼수없이 놀아대는 길천이가 은정을 방해시킬것 같아 잘라매였었다.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어 아직도 기신기신 쫓아다니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속구구를 하던 승민의 입에

서는 저도 모르게 《연구산 어제 밤 평양으로 올라갔네.》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게 사실입니까?》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합숙관리원에게 물어보라구.》

《아니, 됐습니다. 연구사동무가 평양으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마당삼이라도 만난것만큼이나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길천을 보는 승민의 눈은 의아함으로 꺼벅거렸다.

이녀석이 뭐가 좋아서 저럴까.

혹시 그때 은정이를 만난게 아닐까.

만났다면 무슨 약속을 했고...

병어리 뺨가슴앓듯 하며 갈래없이 아지를 치는 의문을 한줄기에 꿰어보려고 애써보았지만 도저히 가슴이 가지 않았다.

이미전에 길천에 대해 도리를 저었던지라 맞대놓고 쿵이야 팔이야 하고싶지 않았다.

조만간에 돌아올 은정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텐데 하고 생각한 승민은 찌뿌둥한 낮빛으로 합숙을 나섰다.

몇걸음 내짚지 못했는데 등뒤에서 《저, 직장장동지!》 하는 목소리가 잔등을 두드리었다.

못마땅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어느새 다가온 길천이가 히죽히죽 웃으며 왕청같은 소릴 꺼낸다.

《저, 듣자니 직장장동진 공장적으로 아니, 시적으로도 상대가 없는 장기선수권보유자라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닌밤중에 흥두깨라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승민은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반문하였다.

《사실이면 어쩔텐가.》

《저와 한번 겨루어보지 않겠습니까?》

《?!》

하, 이것 봐라. 길천의 도전에 승민의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이녀석이 차길, 말길이나 알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이야말로 개미가 거목을 건드리는 격이라 하겠다.

《허허허! 나와 마주섰다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가. 자네같은 풋장기군은 차포를 떼고도 이길 자신이 있어.》

《그와 정반대로도 될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나 무슨 일에서 자기가 제일인체 하는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 봐라, 쪽정이밤이 머리를 쳐든다더니. 하긴 소총명이 머리꼭뒤까지 꼴깍 찬 녀석이니 그럴

수밖에...

《이번 공장창립절날 체육오락경기를 크게 하는데 그때 온 공장이 지켜보는 속에서 맞서봅시다. 전 꼭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승민은 억이 막혔다.

오냐, 어디 맞서보자.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다시는 그따위 건방진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납작하게 눌러놓을테다. 무슨 말인가 하려던 승민은 입이 쓰거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정정거리며 발가는대로 걸음을 옮기는 승민의 가슴속에서는 불쾌감이 죽가마쭈듯 하였다. 팔에 대한 불만에 길천의 놀림까지 받고보니 속이 울퉁거리 참을수가 없었다.

상사말 뛰듯 덤벼거리는 발에 무엇인가 걸채었다.

제길, 이건 또 뭐야.

신경질적으로 공차듯 힘껏 발길질을 하던 승민은 그 어떤 예감에 무춤 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내려다보다가 시한탄이라도 났은듯 와뜰 놀라며 뒤걸음쳤다.

아뿔싸, 이 무슨 실수람.

눈앞에 승민의 발에 채워 뿌리채 뽑힌 애어진 나무 한그루가 안겨왔다.

그 나무인즉은 약효성분이 인삼 못지 않다는 말에 귀가 향아리만 해서 보름전에 멀리 교외에 있는 양묘장에 찾아가서 구해다가 심은 단나무였다.

어서빨리 자라라고 부식토도 듬뿍 주고 정성스레 가꾸어왔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제발로 차서 넘어뜨리다니.

용서를 빌듯 무릎을 꿇고 앉은 승민은 맨손으로 구덩이를 다시 파고 단나무를 세웠다.

헛참, 시어미역정에 개열구리 찬다더니 길천 이녀석때문에 아까운 나무를 죽일번 했군.

초대처럼 곧추 세운 나무주위를 땀뿜며 발로 흙을 쾅쾅 다지는 승민의 귀전에 부지중 채두의 목소리가 살아났다.

《난 직장장이 길천이를 아껴주었으면 하네. 그 단나무를 애지중지하는 심정으로 말일세.》

무슨 일때문에 채두반장이 그런 말을 했던가. 추억의 물이랑이 승민을 끌어갔다.

×

석달전이였다.

대상설비생산으로 들끓는 작업현장을 돌아보

는 승민의 눈에 이따금 한 낮선 청년이 쌀속의 뭉치처럼 걸려들곤 하였다.

나이는 서른전, 중키에 다부진 몸매, 날이 선 코, 빠른 하판에 어딘가 사색적인 눈은 열정이 보통 아니겠구나 하는 인상을 풍기었다.

재두반장의 작업반 기대사이를 오가며 설비들을 유심히 살피기도 하고 재두와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인가.

승민은 그 이상한 청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가공반장 재두를 찾아갔다.

재두로 말하면 30년전 승민이가 공장에 입직했을 때 제자를 키우는 심정으로 기술을 익혀주었고 앞으로 큰일을 하자면 배워야 한다면서 대학으로 떠밀어준 잊지 못할 사람으로서 공장에서 손꼽히는 고급기능공이었다.

작업반휴계실에는 재두 혼자 있었다.

그는 두툼한 돋보기안경을 끼고 책상우에 퍼놓은 무슨 도면인가를 심중해서 들여다보고있었다.

《뭘 그렇게 보십니까?》

기척을 느낀 재두가 얼굴을 쳐들었다.

《직장장인가? 어서 오게. 경찰이녀석이 기술혁신을 한다면서 뭘 끄적거리왔길래... 그녀석 열성이 보통이 아니야.》

승민은 의자에 앉으며 흥소하였다.

《엇그제 공장에 들어온 풋내기가 뭘 안다고...》

《허, 무슨 소릴... 사람을 그렇게 얹잡아보는게 아닐세. 직장장도 공장에 처음 왔을 때 경찰이보다 나은게 있었던가.》

재두의 가벼운 핀잔에 승민은 열적은 웃음을 지었다.

《듣고보니 그렇군요.》

《인재라는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라 우리곁에 있는게 아니겠나. 그들을 찾아내고 내세워주는게 일군이지. 그래 무슨 일로 왔나?》

《예, 요즘 반장동지네 작업반에 드나드는 청년에 대해 알아보자고 왔습니다.》

그 말에 재두의 입이 벅글서 벌어졌다.

《건설직장 림길천이 말인가? 허, 직장장도 어느새 그 친구에게 눈독을 들이고있었구만. 역시 인재를 알아볼줄 알거던.》

《인재라구요?》

흥이 난 재두는 제 아들 자랑하듯 말을 이었다.

《몇번 대상해보니 사람이 흠뻑해. 아는것도 많고 학구적이고... 군대때 팡크병으로 복무했다던지... 지금은 공장대학 2학년에서 공부하는데 기계속내에 어떻게나 밝은지 탄복할 정도야. 본인은 공장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직장에 와서 일했으면 하는데... 한번 만나보라구. 단번에 마음에 들걸세.》

빨래줄처럼 긴 재두의 요란한 광고에 부쩍 호기심이 동한 승민은 얼른 옷주머니에서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들었다.

《예, 당장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이 림길천이라고 했던가요? 건설직장 림길천...》

《그런 사람이라면 공장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게 있습니다. 당장 끌어와야지요.》

《옳거니.》

호두껍질처럼 주글주글하던 재두의 얼굴이 다림질을 한듯 짙어졌다.

×

이튿날 길천을 만나보려고 건설직장으로 향하던 승민은 어디선가 울리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여! 동무가 기계물계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입हे픈 동네아낙네처럼 난딱 나서서 공장망신을 시키는거야.》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분명 부직장장인데...

돌아보니 아닐세라 부직장장이 서리맞은 돌배처럼 시퍼런 얼굴을 하고 누군가를 도리깨질하고있었다.

평시에 말이 적은 부직장장이 저렇듯 성을 내는 것은 처음 본다.

무슨 일때문일까.

그냥 지나칠수 없어 그쪽으로 스틱스적 다가가던 승민은 어마지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부직장장한테 두드려맞는 상대가 길천이었던 것이다.

《부직장장동무, 무슨 일이요?》

넋지시 던지는 승민의 물음에 부직장장이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듯 격해서 하소연하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데 있습니까. 글썄이 사람때문에 대상설비 접수왔던 명산광산사람들한테 코를 때울번 하지 않았습니까.》

《?!》

억울하다는듯 씨근덕거리는 길천을 띠여본 승민은 부직장장의 자초지종에 귀를 기울이었다.

...

번쩍번쩍하게 도색을 한 덩지 큰 설비가 자기의 위세를 뽐내듯 우뚝 버티고서서 힘찬 동음을 울리고있었다.

만족한 표정으로 설비를 돌아보는 광산사람들에게 설비의 성능과 우월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한 부직장장은 10년은 고장없이 사용할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광산사람들은 환성을 올리었다.

《대단하구만!》

《10년동안 고장없이 쓴다면 수입설비보다 열싸 하구만!》

그때였다.

어디선가 《그건 잘못된 소립니다!》 하는 놀라운 소리가 그들의 머리위로 돌덩이처럼 날아들었다.

새납에 장고까지 두드리며 흥을 돋구는 출판처럼 흥그럽던 분위기가 순간에 싸늘하니 조용해졌다.

죄없이 대낮에 뺨맞은 사람모양 얼굴색이 새하얗게 부직장장이 급해맞아 사방을 두리터리며 짹소리쳤다.

《누구야! 허튼소릴 하는게...》

그러자 《예, 접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설비 옷부분에서 웬 사람이 금방 땅을 헤집고 솟아오르는 버섯모양 머리를 쑥 내밀었다.

부직장장이 기겁한 소리를 하였다.

《동문... 대체 누구요?》

태연스레 그들의 앞으로 다가온 길천은 배포유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예, 전 건설직장에서 일합니다.》

건설직장이라는 소리에 부직장장은 기가 막힌듯 입을 항 벌리었다.

《뭐야?! 건설직장...》

광산사람들중 한사람이 말을 끊으며 사색이 되어 물었다.

《동무, 그건 무슨 소리요?》

《예, 그건... 주축의 정밀도와 정결도가 표준수치를 따라서지 못해...》

두눈에 화불을 지피고 길천을 쏘아보던 부직장장이 참지 못하고 말허리를 꺾었다.

《여! 동무, 무슨 가을베꾸기같은 소릴 하는거야. 건설직장에서 블로크나 주무르는 주제에 뭘안다고...》

《뭐라구요?!》

부직장장의 도끼질을 모욕으로 느낀 길천의 얼굴이 험하게 이그러졌다.

...

명산광산사람들을 겨우 리해시켜 설비를 실어보냈다는 부직장장의 말에 승민은 다행이라는듯 안

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성이 가라앉지 않은 부직장장이 길천을 흘려보고 어디론가 훌 가버리었다.

마음을 휘젓는 불쾌감을 달래는 승민의 머리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널뛰듯 하였다.

도대체 길천이가 무엇때문에 이제껏 기정사실화되다싶이 한 설비의 10년사용주기를 부정했을까, 주축의 정결도와 정밀도가 표준수치를 따라서지 못했다는것은 무슨 소리이고...

문득 채두반장이 길천이가 감탄할 정도로 기계속내에 밝다고 하던 말이 생각키웠다.

《동문 그 설비에서 무슨 결함을 발견했길래 그런 소릴 했소?》

승민의 점잖은 물음에 찌뿌둥해있던 길천이가 모두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땅크든 자동차든 모든 기계설비들은 주축이 기본이 아닙니까. 주축의 정밀도와 정결도가 어떤가에 따라 수명이 좌우되지요. 그런데 좁전에 명산광산에 넘긴 설비에는 주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전 그걸 설비가 가동할 때 나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건 주축의 정밀도와 정결도가 표준수치를 따라서지 못했다는것을 말해주지요. 그 설비는 5~6년안팎으로 주축이 물러앉아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유능한 의사처럼 확신에 넘치는 길천의 주장은 승민을 깜짝놀라게 하였다.

그런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결함을 찾아낸다는것은 웬만큼 기계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길천의 진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5~6년안팎에 주축이 물러앉는단 말이지. 정말 그렇게 될가.

승민은 부정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동무 말을 리해할수가 없구만. 내 직장장 15년에 술한 대상설비들을 만들어 전국의 탄광, 광산들에 보냈지만 아직 한번도 질적인 문제라든가 운영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들어본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

응당 그런 말이 나오리라는것을 예견하기라도 한듯 길천은 거침없이 반문하였다.

《직장장동진 상점에서 전기제품들을 사서 써보신적이 있습니까?》

《?!》

《그 제품의 설명서를 보면 사용주기들이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요. 하지만 사용하는 과정에 고

장이 생기면 사용자들은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부주의로 여기고 수리소로 달려가지요. 알겠습니까, 가공직장에서 생산한 설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는지.》

승민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시기 승민이 자신도 상점에서 산 전기제품들을 리용하는 과정에 고장이 생기면 수리소로 달려가면서도 생산자들을 탓한적이 없었다. 하다면 우리 직장에서 생산한 설비들이 길천의 말처럼 되지 않았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모순된 감정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승민을 깨우치듯 길천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리듯 더 크게 들리었다.

《직장장동지, 제가 보기엔 주축가공반이 낡았습니다. 회전이 뜸니다. 회전이 뜸 설비에서 가공되는 제품이 정밀도와 정결도가 표준수치에 도달할수 없다는것쯤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

《지금 온 나라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에 호응하여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은 가공직장에서도 주축가공반과 같은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올바라말씀처럼 곳곳해서 길천의 훈시에 반박의 말을 고르지 못하는 승민의 심중에서는 알지 못할 의분이 끓었다.

사실 승민은 직장의 설비현대화를 놓고 은근히 원심을 쓰고있었다. 하면서도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것은 자신의 기술능력으로는 오늘의 발전된 최첨단과학기술에 맞설만 한 자신심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길천이가 그 문제를 거들면서 승민에게 훈시질을 하고있다.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불만이 의문으로 번져졌다. 지난 시기 쥐꼬리만큼 알면서 세상만사를 달통한듯 유식을 뽐내고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속물들과 맞다든적이 있는 승민은 길천도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두고 보아야겠다.

《좋은 말을 해주어 고맙소, 가보오.》

장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은 학생처럼 벅글거리던 길천은 한마디 더 비치었다.

《직장장동지, 제가 지금 있는 주축가공반을 대신할수 있는 현대화된 가공반을 설계해보랍니까?》

《동무가?》

《예, 제 요즘 좀 생각해본게 있는데 열흘후엔 가져다보이겠습니다.》

《...》

꾸벅 인사를 한 길천은 가벼운 걸음을 떼었다.

멀어지는 길천의 뒤를 이윽토록 지켜보는 승민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스치였다.

히, 저녀석 괴짜네.

×

뜻밖의 장소에서 있는 길천과의 담화는 승민에게 번거로운 인상을 남기였다.

보기도문 인재가 아니면 속물이라는 하늘과 땅차이의 평가중에서 어느것을 택해야 하겠는지.

길천의 말대로 열흘후에 정말로 현대화된 주축가공반설계를 들고 나타난다면 전자의 평가를 내릴것이요 아니면 후자의 평가로 다시는 상대를 하지 않을것이다.

문제는 길천이가 내놓은 설계를 보고 승민으로 하여금 이제껏 자신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최첨단돌파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 하는것이였다. 공장대학 2학년생이 하는걸 나라고 못하겠는가 하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늦어지는 법이라더니 열흘이 썩 지났지만 길천은 그림자도 열썩하지 않았다.

승민은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이녀석이 허풍을 친게 아니야. 그렇다고 건설직장에 찾아가 머리를 기웃거리고싶지는 않았다. 좀더 기다려보자.

마음을 눅눅히며 길천을 기다리던 어느날이였다.

퇴근후에 새로 들어온 기술도서를 들여다보다가 모를것이 있어 기술과에 찾아가던 승민은 앞마당에 있는 휴식터의 장기관을 지나치다 걸음을 멈추었다.

참새 방아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장기라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드는 승민이라 속이 근질거렸다.

승민에게 등을 돌려대고 두 청년이 장기를 두는데 수들이 별로 신통해보이지 않았다. 한심한 풋수들이로군.

귀뺨을 맞으면서 하는게 장기훈수라 가까이 다가서던 승민은 귀거슬리는 소리에 그 자리에 굳어졌다.

《내 언제부터 말하지 않던가, 뭘 좀 안다고 나

서기를 좋아하는 그 버릇을 꼭 고쳐야 한다고...
가공직장장이 어떤 사람인줄 알아. 기술에선 공장
적으로 몇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인데 그앞에서 주
축가공반현대화설계를 내놓는다고 흰소리를 쳐.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지겠다.》

신경을 도사린 승민은 충고자의 상대가 길천임을
알아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난 모르겠어. 기술이 높다는 가공직장장이 자
기 직장 설비들이 낡은줄 모른다는건 최첨단돌파
전의 시대인 오늘 제자신이 뒤떨어졌다는걸 모른
다는것을 말해주거던.》

허, 이녀석 봐라.

《여, 가공직장장이 그 소릴 들었다간 큰일나겠
다. 내 친구로서 진심으로 권고하는데 이제라도
가공직장장을 찾아가 겸손하게 못하겠다고 하라
구. 괜히 허풍쟁이라는 말을 듣지 말고...》

《...》

승민은 속이 울컥하였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말을 쓰다듬어주려다가 뒤발
통에 채운 격이라고 하던가. 음, 알만 하다. 이제
보니 네녀석은 소총명이 머리뒤통수에까지 꼴까
찬 허풍쟁이었구나. 그 주제에 뭐 내가 시대에 뒤
떨어졌다구? 헛참, 이런 녀석에게 뭔가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었지.

생각같아서는 길천의 털미를 잡아일으켜 한바탕
욕설을 해주고싶었지만 꼭 참고 돌아섰다.

재두반장이 저런 말공부쟁이의 뭘 보고 인재라
고 추어올렸는지 모르겠다.

×

새끼누에만 한 눈꼴을 뵈조롭히 내민 단나
무가지들이 산산한 바람에 몸을 말기고 춤을
춘다.

물뿌리개로 물을 주는 승민의 마음은 첫걸음마
를 떤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처럼 흐뭇하였다.

물을 다 준 승민은 해빛에 물기가 날아갈세라
두손으로 흙을 덮어주었다.

그때 등뒤에서 《허, 직장장이 원예사 못지 않
은걸.》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허리를 펴며 돌아보니 재두가 느슨한 웃음을 짓
고 서있었다.

《이걸 보십시오. 벌써 싹이 났습니다.》

두눈을 쪼프리고 싹이 움튼 단나무가지를 유심
히 들여다보던 재두가 신기한듯 혀를 찼다.

《허, 처음 옮겨심을 땐 뿌리도 내릴것 같지 않

더니.》

《품을 들이면 구실 못할게 없지요.》

《하긴 그래.》

공감이라는듯 머리를 끄덕이던 재두가 생각난듯
물었다.

《그래 길천일 만나보았나?》

길천이라는 소리에 불쾌감이 살아난 승민은 시
들해서 중얼거렸다.

《예,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보니 어떻던가?》

승민은 잠시 망설이였다.

생각같아서는 길천에게서 받은 불만을 말짱 다
토로하고싶었지만 재두앞이라 서슴어졌다. 그래도
완곡하게나마 자기 립장을 밝혀야 하였다.

《거 뭐... 반장동지한테서 들은 말과는 다릅디
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속은 차지 못했
더군요.》

신중해서 듣는 재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허, 그러니 쓸모가 없는 쪽정이라는 소리
로군. 유감인걸...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는가?
아니야, 길천인 버려도 아깝지 않을 쪽정이야 아
니라 보배덩이야. 실토리가 클수록 단번에 못 푼
다지 않나. 속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만나보라
구.》

뜨직뜨직 말을 하던 재두는 웃주머니에서 네
겹으로 접은 종이를 꺼내 승민의 앞으로 내밀
었다.

《옛네, 줌전에 길천이가 날 찾아왔더군.》

《?》

《오늘 갑자기 살림집건설장에 나가게 됐다고
하더구만. 그래 직장장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냥
간다면서 날 보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군.》

승민은 어정쩡해서 물었다.

《이건 뭘니까?》

《주축가공반현대화착상안이라면서 직장장의
의견을 듣고싶다더군.》

시답지 않게 흙이 잔뜩 게발린 손으로 그것을
받아친 승민은 펴보지도 않고 웃주머니에 쑤셔넣
었다.

《난 직장장이 길천이를 아껴주었으면 하네. 그
단나무를 애지중지하는 심정으로 말일세. ...》

무슨 말인가 더 하려던 재두는 터벌터벌 작업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활동처럼 굽어든 재두의 잔등을 멀거니 쳐다보
는 승민의 속은 아릿해났다.

혼자 삭이면 뭇길 공연히 쓸데없는 소릴 해서

재두를 노엽혔다는 생각에 자신의 처신이 불만스러웠다.

×

그로부터 한달후.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인 딸 은정이가 동천기계공장을 연구지로 정하고 내려왔다.

공장의 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은정은 현대화하여야 할 여러 설비들중에서 먼저 가공직장의 주축가공반을 선정하였다.

이제나저제나 은정의 설계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어느날이었다.

퇴근준비를 하던 승민은 방안으로 들어서는데 길천과 맞다들리었다.

길천은 해별에 검실검실하게 탄 얼굴에 웃음을 한가득 담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장동지.》

창황중이라 승민은 어정쩡해서 인사를 받았다.

《살림집건설장에 나가있다더니 어떻게...》

《예, 재두반장아바이가 평양에서 연구사가 내려왔다면서 만나보라는 전화가 와서...》

《재두반장이?》

승민은 재두가 왜 길천을 불러들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구사는 왜 만나라는건가?》

《예, 그건... 참, 전번에 재두반장아바이가 직장장동지한테 뭘 주지 않았습니까?》

《뭘 말인가?》

승민은 어리둥절해서 반문하였다.

《제가 그린 주축가공반착상안 말입니다.》

《주축가공반착상안?》

승민은 기억의 갈피를 번져보았다.

생각이 났다. 언젠가 재두반장이 길천이가 그린 착상안이라며 준 종이를 펼쳐보지도 않고 웃주머니에 넣던 일이...

가만, 그걸 어떻게 했던가. 또 한갈피의 기억을 더듬던 승민은 혹시나 해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작업복을 벗겨들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스럽게 그때 받은것이 그대로 있었다.

종이장을 꺼내든 승민은 긴숨을 내쉬었다.

《이것 말이지?》

길천은 빙그레 웃으며 기대를 안고 물었다.

《예, 옳습니다. 보셨습니까?》

승민은 그만 입이 벌어불고말았다.

보지도 않고 보았다고 말하자니 속이 켹기었고

못 보았다고 변명하자니 난처하였다.

그렇다고 이제 펴본다는것도 웅색한노릇이었다.

꿀먹은 벙어리모양 입을 못 떼고 전전공공하는 승민의 부자연스러운 거동에서 뭔가 느낀듯 한 길천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이 덮이였다.

《그걸 주십시오.》

승민의 손에서 종이장을 받아쥔 길천은 락심해서 돌아섰다.

《그럼 전...》

순간 승민은 길천이가 딸 은정을 만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착상안이라는데 어떤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에 쫓겨 바빠 돌아가는 딸에게 등에 닿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한다면 사색에 혼란을 줄수 있었다.

승민은 다급한 소리를 하며 길천을 불러세웠다.

《가만!》

사무실문턱을 넘어서던 길천이가 엉거주춤하며 돌아섰다.

《왜 그러십니까?》

승민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연구사에겐 시간이 그 무엇보다 귀하오. 언제 동무와 한가한 시간을 보낼새가 없거던.》

《그래두 알겠습니까? 제 의견이 혹시 도움이 될지.》

승민은 짜증이 났다. 그쯤 말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동무가 무슨 의견을 준다는거요, 그 수준에...》 하던 승민은 자신이 실언하였음을 깨닫고 허끝을 가무리었다.

승민의 진속을 헤집어본듯 한 길천의 시선이 뻥뻥하니 번개처럼 번뜩이였다.

《그랬듯군요. 알만 합니다, 직장장동지가 무슨 말을 하자는것인지... 사람을 너무 알잡아보지 마십시오.》

의분을 억제하며 거친 숨을 내뿜던 길천은 다시는 상대를 하지 않을듯 문을 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어 뿡- 문닫기는 소리가 승민의 고막을 때리었다.

×

즐거지 못한 추억에서 깨어난 승민의 마음은 갈팡질팡하였다.

불협화음으로 혼탁되어 길천을 벼랑끝으로 몰아

가던 속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온 승민은 그때 자신이 너무 매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처신이 오죽이나 불만스러웠으면 길천이가 공장창립절날 장기경기에 도전하였겠는가.

그날 자신이 이길것은 뻔했지만 과연 승자의 패감을 느낄수 있겠는지.

...

드디어 공장창립절날이 왔다.

아침일찍 부지런한 누군가가 물결레질을 한듯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맑고 푸르렀다.

직장별대전인 축구, 룡구, 배구경기들은 사람들의 열기띤 응원속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이루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이채를 띠는 경기는 공장은 물론 시적으로도 맞설 상대가 없다는 강자인 승민과 보는 사람마다 무슨 망신을 당하자고 맞서는가 하는 의혹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길천과의 장기경기였다.

허나 경기는 시작되어 15분도 못되는 사이에 길천의 승리로 결속되어 못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었다.

숨돌릴 틈이 없이 들이대는 길천의 드센 공격에 궁지에 빠진 승민은 몇수 써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고말았다.

두번째 회전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고 머리를 쥐어짖지만 역시 패하고말았다.

한방망이 드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승민은 자신의 패배가 상대를 약자라고 속보다가 진것이 아니라 수적, 기술적차이의 패배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소식은 삼시에 온 공장을 구름처럼 덮어 사과나무에 배가 열린것만큼이나 희한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장기경기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듯 《직장장동무, 그게 사실이요?》하고 물을 때면 쥐구멍에라도 뛰어들고싶은 심정이였다.

사냥군의 총에 맞고 비틀거리는 호랑이꼴도 자기보다는 비참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 승민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깨어날 정도였다.

뜩비 맞은 사람처럼 후줄근해서 돌아가던 어느날 승민은 평양에 갔던 딸이 주축가공반설계를 완성해가지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싶게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올렸다.

발에 날개라도 달린듯 기쁜 마음으로 외래자합

숙의 3층계단을 두세개씩 정충정충 뛰어오른 승민은 은정이가 든 방문을 벌컥 열어제끼다가 그만 망두석처럼 굳어졌다.

《?!》

방안에 은정과 함께 길천이가 있었던것이다.

문소리에 얼굴을 돌리던 은정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한순간 방안을 헛갈린 사람모양 멍청해있던 승민의 입가에 어설픈 웃음이 스치였다.

《수고했구나.》

승민의 출현이 뜻밖인듯 눈이 떠꾼해진 길천은 피하듯 황망히 방을 나섰다.

그제사 강직이 풀린듯 한 승민은 창가옆에 놓여있는 등받이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통명스럽게 물었다.

《저너석은 왜 왔댔나?》

그 말이 거슬리는듯 은정이가 고운 눈을 흘기였다.

《아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계를 완성하는데 길천동무가 얼마나 큰일을 한줄 아세요?》

《뭐라구?!》

승민은 천둥소리에 놀라듯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길천동무의 착상안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 설계를 완성하지 못했을거예요.》

승민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

시내물처럼 차분한 은정의 목소리가 의문투성이인 승민의 마음을 쓰다듬으며 울리였다.

...

설계에 대한 착상이 떠오르지 않아 모대기던 은정은 어느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설계실을 나섰다.

훈훈한 봄바람이 기다린듯 은정의 얼굴이며 옷자락에 매달리며 어리광쳤다.

이렇듯 상쾌한 봄기운을 맛보지 못하고 동면하는 곰처럼 설계실에만 박혀 은둔해있었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신이 무능한것만 같은 허무감과 승산이 없는 일을 시작한게 아닐가 하는 의문이 머리속을 휘저었다.

《허, 연구사얼굴 보기가 험치 않군.》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재두가 스적스적 다가오고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래 설계는 잘되나?》

《...》

대답을 못하는 은정의 입에서는 느닷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για 새것을 창조하는 일인데 떡먹듯 쉬울 수가 없지. 참, 길천일 만나보았나?》

《길천이라니요?》

어리둥절한 은정의 반문에 채두가 랑패한 표정을 지었다.

《허, 그녀석 연구살 만나겠다고 하더니 어떨가서 해매나.》

은정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가 누구예요?》

《응, 건설직장에서 일하는데 열정이 보통이 아니야. 주축가공반현대화착상안을 만들었는데... 연구사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딜 갔을가?》

주축가공반현대화착상안이라는 소리에 은정은 귀가 솔깃해졌다. 목마른 때에 샘이라도 만난 심정이었다. 한시바빠 그를 만나보고싶었다.

《어딜 갔을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던 채두가 갑자기 환성을 올리었다.

《응, 저기 마침 오누만. 범 제 소리하면 온다더니...》

제답담 흥이 난 채두가 팔을 길게 내뻗치며 소리쳤다.

《이 사람 길천이, 빨리 오라구.》

눈깜짝할 사이에 뛰어온 길천이가 채두곁에 서 있는 은정을 띠어보며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인사하게, 임자가 만났으면 하던 그 연구사야.》

《그렇습니까! 야, 정말 반갑습니다.》

무등 반가와 벅글거리는 길천을 보며 은정은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사내싸게 생긴 길천의 모습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품들어 처녀, 총각 맞세운 사람마냥 호뭇해하던 채두가 이마를 탁 치더니 《원, 이런... 그럼 들어서 이야길 하라구.》 하더니 자리를 피하였다.

은정과 길천은 합숙공원의 장기판이 그려진 돌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앉았다.

수채구멍으로 물 빨리워들어가듯 착상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은정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야, 야 하는 감탄이 뽀발되었다.

착상이 기발하고 새로왔던것이다.

이것이 우리 식의 현대화된 주축가공반이다.

홍분한 은정의 머리속에서 설계에 대한 환상이 가지에 아지를 치며 등나무줄기 뻗듯 하였다. 미구에 완성된 주축가공반의 실체가 석연하게 안겨왔다.

별안간 《어떻습니까?》 하는 길천의 조심스러운 물음이 아쉽게도 은정의 흥을 깨뜨리었다.

《착상이 마음에 들어요, 기발하고 형식도 새롭고...》

시험점수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해있던 길천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그렇습니까!》

한동안 터진 팔자루처럼 열려진 입을 다물줄 모르던 길천이가 은근하게 물었다.

《저... 미안하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뭘데요?》

《저의 착상을 연구사동무가 설계로 완성해보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천의 권고에 은정은 숨이 꺾 막히었다.

《그럼 동문...》

《전 개의치 마십시오. 하루빨리 세상에 소리칠 수 있게 주축가공반만 현대화할수 있다면 전 바랄것이 없습니다. 연구사동무, 꼭 성공해주십시오.》

움쭉 몸을 일으킨 길천은 은정이가 어쩔새도 없이 돌아섰다.

길천의 돌발적인 행동에 아연해진 은정은 용수철 튀듯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외마디소리를 하였다.

《아니... 제 좀 서세요.》

허나 길천은 바람에 날려가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

승민은 절벽앞에 마주선듯 눈앞이 아득하였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널뛰듯 하였다.

한달나마 작업복주머니안에 갇혀 잠을 자던 길천의 착상안이 그렇듯 홀룡한것이었던 말인가.

아, 내 무슨 실책을 범하였는가.

뼈아픈 후회가 순간에 온 정신을 잡아휘둘렀다.

내가 언제부터 남의 말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대중속에 길천이처럼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는 인재들이 있다는걸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을 청맹파니라고 하던가.
이제라도 길천에게 용서를 빌고싶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일을 해주면 겨우 몇달동안 기억하지만 나쁜 말은 한마디만 해줘도 평생 속에 품고 다닌다지 않는가.

나에 대한 원망이 풀리지 않았을 길천이가 날 용서할텐가.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은정의 목소리에 승민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은정을 마주보기가 부끄러웠다.

지난 시기 자기와 길천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은정이가 안다면 이제껏 아버지를 존경해온 딸이 뭐라고 할텐가.

승민의 심정을 알리 없는 은정이가 상글상글 웃으며 웅석부리듯 말하였다.

《아버지, 제 생각엔... 설제를 길천동무와 합작으로 제출했으면 해요.》

《?!》

승민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대견스러운 딸의 두손을 꼭 잡은 승민은 자신에게 말하듯 또박또박 뇌이였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게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덕이고 도리이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

×

외래자합숙을 나서 직장으로 걸음을 옮기던 승민은 무엇인가 바지가랭이에 감기는 감촉을 느끼고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뒤로 한걸음 물러서며 내려다보니 단나무의 여린 가지가 울려다보고있었다.

하마트면 전번처럼 실수할번 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났다.

주인을 잘 만나 이제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청춘기에 들어섰노라 인사를 하는듯 한 단나무를 이윽도록 지켜보다가 돌아서던 승민은 흠칫 놀랐다. 언제 나타났는지 재두가 서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엄한 표정이 섬광처럼 시야에 비껴들었다.

승민은 그를 마주보기가 두려워 낯날에 찍히운 풀대처럼 고개를 푹 꺾었다.

《난 임자가 그렇게까지 무능하고 편협한줄은 몰랐네.》

재두의 날카로운 질책이 칼끝처럼 승민의 가슴

을 쿡 찔렀다.

《어디 말 좀 해보라구, 길천이가 로동자여서 숙보았나 아니면 자기가 남보다 총명하다는 우월감이었나?》

승민은 온몸이 입이라도 할말이 없었다.

재두의 목소리가 갈리였다.

《최첨단을 돌파하고 어버이장군님께 기쁨드린 런하기계개발자들중에 공장대학졸업생도 있었다는걸 직장장도 모르지 않을텐데... 내 언젠가 말하지 않던가, 인재는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속에, 바로 우리곁에 있다고... 그런데 자넨 길천이 같은 인재를 눈앞에 두고도 청맹파니노릇을 하였으니 그게 무슨 지식경제시대의 일군이겠나. 우린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가.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가슴을 치던 그 뼈저린 죄책감을 다시 또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한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거네.》

재두의 말은 뜨거운 불뭉치인양 무섭게 가슴을 지저대였다.

회오와 자책으로 모대기던 승민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만하십시오. 전 이번일을 통해 심각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인재를 찾아낼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것이 일군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입니다.》

《허허허! 그걸 이미전에 알았다라면 더 좋았을걸...》

듣기에도 속이 후련한듯 껄껄 웃던 재두가 능청스레 한마디 더 하였다.

《듣자니 길천이하구 장기경기에서 진 날 집에서 화술을 마셨다면서?》

《허허... 언제 그걸 다... 사실 그날 장기에서 진게 오늘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길천이가 장기경기에 도전한것이 자고자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웃으면서 뺨을 때린 셈이지요.》

《허허허! 직장장이 길천이한테 되젠 혼썰이 났는걸.》

《예, 정말 혼썰이 났습니다. 이제는 장기선수권보유자는 내가 아니라 길천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마주보며 어깨를 들썩이는 두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맑은 하늘가로 두둥실 떠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단나무가지들도 한들한들 춤을 추는듯싶었다.

련 시

제 강 소 여 너 와 함 께

김 정 삼

제 강 소 여

꿈결에도 그리워
항시 내 마음 내려쳐오던 곳
한가슴 가득찬 정 쇠물마냥 쏟으며
내 들어서는 인연깊은 제강소여

몇해만이나
어제날 전기로의 쇠물을 끓이던 나를
예나 다름없이 너는 반겨맞아주느냐
구내길의 가로수들도
아침해빛에 금빛일새 흔들며
—어서 오세요... 저저마다 속살대는듯

야금기지어 너는 내 청춘이 성장한 곳!
파견장 품고 공장정문으로 호기스럽게 들어섰던
중학교책상물림의 애송이였던 나를
강철기둥마냥
어엿한 용해공으로 역세계 길러준 곳

여기는 못 잊을 동지들이 있는 나의 집
용해장에 대학생이 났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로동의 벗들
언제나 쇠물같은 글을 짹짹 쓰라며
평양의 대학으로 손저어 바래주던
못 잊을 작업반 나의 동지들이 있는 곳!

랑만의 일터 용해장만이라

교대후면 떠들썩 물려가던
문화회관이며
손때오른 수첩에 즉흥시를 적어넣던
버드나무밑 저 푸른 잔디밭에도
온통 내 추억의 보석들이 빛나는 곳

구태여 상봉의 인사 나누어 무엇하랴
함께 있을 땐 다 몰랐던 소중함이
못 견딜 그리움으로 사무쳐
십여년세월 몸은 비록 용해장을 떠났어도
내 마음의 출근부엔
단 하루의 결근도 있어본적 없었거니

철의 기지어 너의 축복을 안고 떠난 이 몸
오늘은 당의 은정속에 시인이 되어
억세고 정다운 네 품에 안기나니
어서 다오 내 입었던 어제날의 용해복을!
마음은 벌써 내 노래의 주인공들과 함께
용해장의 열풍속에 후터워진다

당을 따라
조국의 부강위해
애국의 한마음 붉은 쇠물로 끓여가는
충직한 로동계급의 가수가 되고저
강철의 대오속으로 내 다시 들어서노라
아아, 내 노래의 고향 사랑하는 제강소여!

우 리 세 대

주강직장 활짝 열린 철대문앞에서
우리는 얼싸 부둥켜안았다
반가움이 넘치는 구리빛얼굴
그는 중학동창
견습공시절 나의 짝패였던 최동무

얼굴을 맞비비며 두손 잡아흔들며
앞마당의자에 걸터앉으니
쇠물처럼 쏟아지는 물음의 불줄기
—그래 다들 잘있었나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있나...

콩밭에 서슬칠 작정인가며
나의 무릎 툭 치며 꺾꺾 웃는 최동무
몸에서 쇠내를 풍기며 입을 연다
우리포레 벗들에 대하여

용해작업반 고수머리 박동무는
손타이 센 로장으로 소문을 내고
공장대학생이었던 원손잡이 김동무는
현장책임기사 기술혁신조 조장이란다

또 누구는 설비조립공장 지령장으로
또 누구는 공무직장 부문당비서로...

손세를 써가며 이야기하는 그의 걸걸한 음성엔
쇠물같은 공지가 첩첩 넘친다!

—그래 자네는? 나의 물음에
기다린듯 용해장에서 달려나오는
안전모 쓴 처녀의 쟁쟁한 목소리
—직장장동지 1교대 출강이에요

눈이 커지는 나를 보며
멋적은듯 일어서는 최동무
내 어깨에 큼직한 손 얹으며 걸걸 웃네
—그렇게 됐네 시인선생

출강종소리 둥근 첩지봉 흔들고
아름다운 불노을 펼치며
적황색불기둥이 쏟아져내리는데
별무리인양 피어나는 불보라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환희에 젖어

누구는 당원이 되고 기능공이 되고
누구는 군관이 되고 영웅이 되고...
억척의 기둥들이 되어 우뚝우뚝 솟아오른
젊은 우리포대들에 대하여
이 나라 위대한 새로운 주체100년대 출발선에
신심넘쳐 정렬한 우리 세대에 대하여...

내 눈앞에는 보여왔다
우뚝우뚝 천정기둥기가 들어올리는
저 이글거리는 쇠물남비가
마치 우리 세대의 피끓는 심장처럼
보여왔다 그 심장에 힘껏 받들려
부강조국의 봄하늘 높이높이
폭풍쳐 나래치는 선군의 내 조국이

작업반 칼의 실에서

감회깊구나
옷걸이에 외출복을 걸고
로동안전경표가 달린 새 로동복을 입는
이 순간의 심정이여

십여년전
정든 일터를 떠나 대학으로 갈 때
쇠물내배인 이 로동복 차마 못 벗어
쏴어보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전쟁로병이었던 박아바이는 말했었지
—마음속 용해복을 벗지 않으면 되느니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로앞에서처럼 마음도 몸도 훈훈해날거다...

대학생이 되어

작가가 되어
조국땅 넓은 곳을 밟던 그 나날
심장의 벽에 늘 걸고산
쇠내배인 나의 로동복이 아니었던가

사람에게 옷이 날개라면
로동계급의 정신으로 심장을 감싸주며
애국의 한길로 드림없이 떠밀어준
마음속의 로동복은 내 인생의 날개였던가

안주머니에 작은 시첩 척 넣고
위훈의 갑옷처럼 펼쳐입노라
로동복이 감싸준 이 심장은 이제
어떤 새생활의 노래를 탄주할것인가!...

불멸의 화폭앞에서

마치 열풍 이는 용해장에서
용해공들과 함께
이 하루 후련히 쇠물을 뽑으시고
방금 구내길에 나서신듯
반세기전 그날처럼 함박눈을 맞으시며
용해공들과 구내길을 걸으시는 수령님

눈바람에 외투자락 가볍게 날리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르니
그이는 나를 알아보신듯

결으로 몸가까이 불러주시는듯

—시인동무로구만
들끓는 현실속에 있는 시인을 보니 기쁘오

그이의 발걸음 따라서는 마음되어
나는 정중히 대답올린다
—수령님 로동계급과 함께 생활하니
정말 많은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속엔 온통 시와 노래가

쇠물처럼 끓고있습니다

순간

따뜻이 나를 굶어보시는듯
아버이의 안광은 더욱 환히 빛나는가
나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며
그이는 말씀을 이으시는듯

—좋은 일ियो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로동계급ियो
사회주의 붉은기를 지켜
거세차게 타오르는 강철로의 저 불길은
조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을 상징하고
있소!

크나큰 희열속에

주먹을 들어 힘있게 흔드시는가
불노를 타는 하늘을 바라보시는 수령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르시는듯

—나는 로동자들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오

김정일선군령장의 유훈을 받들어

강철로 **김정은**동지를 옹위해가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시를 많이 쓰시오!...

—수령님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 나라 장엄한 철의 교향악을 들으시며
영원한 기쁨을 안아보시는가
반세기전 그날처럼 함박눈 맞으시며
오늘도 야금기지에 계시는 수령님

마치 열풍 이는 용해장에서

이 하루 용해공들과 함께
후련토록 쇠물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며
또 다른 용해장으로 가시는듯...

눈 이 내 린 다

—피눈물의 나날에—

눈송이런가
불송이런가
불노를 타오르는 야금기지의 밤하늘에
피눈물의 12월을 소리없이 웨치며
눈이 내린다

이밤도 무쇠가슴 두드리며
메아리쳐오는 야전철차의 기적소리여
우리 장군님 인민에 대한 사랑의 그 절절한
유훈이

저 구만리상공에 층층 사무쳐
억만송이 불눈이 되어 내리고내리는가

쇠물노을 피어나는 구내에서 방열모를 벗어드는
용해공들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인다
그리움에 불타는 무쇠의 가슴들에

송이송이 애국의 불씨가 되어
눈이 내린다
붉은 눈이 내린다

세월이 흐르고 광풍이 인대도
이 불의 눈송이는 식지 않으리
이 불의 눈송이는 녹지 않으리
쇠물용암이 되고 세기에 파도치고
승리의 해돋이로 눈부시게 빛을 뿌리며...

억만년 꺼지지 않을 피어린 맹세가
산악의 무게로 밤누리에 실렸는가
철의 하늘가에
조국땅우에
눈이 내린다
12월의 불눈이 내리고내린다

제 강 소 여 너 와 함 께

2층 3호실 정든 합숙에서
방금 끝낸 시초고를 훑어보기가
더없이 마음 흐뭇하구나

오랜만에 옛 일터에서
쇠장대 잡고 쇠를 다루니

손바닥엔 어느새 장알이 박히고...
밤하늘엔 별들도 영글고...

밤도 펍 깊었구나
은하수비긴 저어기 공장상공엔
어둠의 장막을 활활 걷어내며

쇠물화광이 치솟는구나
지금쯤 2교대동무들이
출장으로 외딴 성수날 때로다

펼 펼 끊는 쇠물남비에서
손짓으로 천정기증기를 부르고있을
갓 장가든 제대군인 오동무를 그려보고
용해일지에 넘쳐 뽑은 쇠물량을 적어넣을
교대반장의 엄숙한 표정을 그려보니
또 새로운 시상들이 머리속에 번뜩

벌써 한해가 되었구나 현실체험 나온지도
친숙한 사람들과 로동을 함께 하며
투박하나 진정넘친 그들의 이야기에
스칠세라 욕심스레 귀를 기울이며
투쟁으로 충만된 생활속에서
얼마나 넓은 시의 세계를 보았던가

쇠물빛 질게 물든 사랑의 세계
쇠물을 두고 벌리는 과학의 론쟁
고심끝에 뽑아낸 쇠물폭포앞에서
억대우사나이들의 눈가에 고이던
환희의 세계

내 만약 이 벽찬 시대에
한적한 창작실의 책상을 불안고
땀젖지 않은 가슴 뻐죽한 하얀 손
고안해낸 상상으로 시를 썼다면
당의 숨결로 뛰는 로동계급의 가슴속

상 식

생 명 과 학 의 다 음 번 연 구 분 야 — 프 로 테 오 무 학

인간계놈계획이 종결되게 된 오늘 연구자들의 관심은 프로테오무학으로 쏠리고있다.

프로테오무이란 세포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단백질을 의미한다.

최근 프로테오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테오무학(일명 프로테오무해석)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로 등장하고있다.

프로테오무학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한 세포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단백질을 해석한다.

② 단백질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망을 형성하는가를 해명한다.

③ 단백질들의 정확한 립체구조를 해명하고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여단개(스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낸다.

불굴의 그 세계를 내 볼수 있었으랴

머나먼 북변땅 제강소에 찾아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간곡하신 당부로
신념을 굳히고
의지를 버려가며
강철의 붉은 주단을 펼쳐가는 사람들

존경하노라
야금에 앞서
계급의 의리와 망심을
혈관속 피방울로 뛰게 하여준
그대들은 모두 나의 스승 참된 시를 가르치는...

현란하고 세련되지 못해도 좋아라
나의 편편의 시들에서
오직 쇠물의 한빛갈
그대들의 마음의 향기
쇠내만 물씬 풍겨진다면

아, 어디서든지 한생토록
당이 바라는 시대의 나팔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이 세상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그이의 참된 전사 영원한 동행자로 살라고
걸음걸음 나를 깨우쳐주는
참된 시의 고향 제강소여
나는 너의 출신의 시인이다!

계놈은 사람의 유전정보의 총체이지만 단백질질을 만드는 설계도에 지나지 않는다. 세포의 구조나 활동은 모두 단백질에 의하여 지배된다. 사람의 몸안에는 각이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것은 단백질이다. 특히 한가지 세포에서도 병이 발생하면 정상상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사람의 전체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있으며 단백질의 호상작용들이 밝혀지고있다.

단백질구조를 연구하는것은 유전자(계놈)구조를 연구하는것보다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프로테오무연구에 세계적으로 많은 인적, 물질, 재정적투자가 돌려지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 사람같이 굳게 뭉치며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고 리상이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이 땅우에 일떠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오직 하나의 혈통, 백두산총대혈통으로 꿋꿋이 이어지는 우리 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빛내인 자랑을 안고 천만군민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혁명적대고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내딛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명작창작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결국 그 부피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 단편소설창작에서 명작대풍을 안아오기 위하여 지난해 작품창작실태를 잘 알고 그 성과를 적극 일반화하며 부족점들을 시급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거둔 성과와 교훈은...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는 10여편의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이 실렸다.

그가운데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단편소설 《눈보라치는 날에》(안명국 작, 1호), 《축복의 밤》(안홍윤 작, 3호), 《맑게 개인 하늘》(석남진 작, 4호),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을 내용으로 한 단편소설 《사과꽃》(최성진 작, 2호), 《흰눈세계》(김혜영 작, 2호),

《신해만의 풍경》(리명 작, 12호)은 수령형상소설로서의 사상예술적품격이 비교적 잘 보장된 우수한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 단편소설들에서는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뜨겁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눈보라치는 날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4(1975)년초 대한의 강추위는 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해지구의 한 농장 처녀작업반장의 반영자료에서 제기된 새로운 농법문제를 알아보시려고 현지지도의 일정을 하루 앞당기시는데로부터 이야기를 펼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벼랑상모를 기르는데서 아직 들으신적 없는 방법, 다시말하여 종래의 궁륭식이 아니라 활창대를 전혀 쓰지 않는 장판식방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를 다진 처녀작업반장의 반영문에서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발견하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방법을 창안도입한 간석지농장의 기사장에게서 그 우월성을 들으시고 지대별특성, 필지별특성을 적극 살리면서 그 고장의 기후풍토와 농민들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현대농업기술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것이 주체농법이라고 하시면서 주체농법이란 결코 제강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적지 않은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방법, 인민들속에 들어가 배우려 하지 않고 창조적사색을 게을리하는 무책임한 사업태도에 경종을 울리신다.

작품에서는 하나의 성과를 두고서도 온 나라 일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색의 세계를 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한점의 불꽃을 발견하시고 온 나라에 일반화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형상한 여기에 이 소설의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이 있고 작가의 깊은 탐구가 깃들어있다.

단편소설 《축복의 밤》은 조국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제3계단시기

를 배경으로 하여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모란봉극장에서 성대한 경축대회를 조직하도록 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담력과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뜨겁게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준엄한 환경이지만 여성들을 위해 3.8국제부녀절경축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각계층의 여성대표들과 함께 각국 외교대표들과 내외의 기자단도 초청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대회의 첫 순서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그 주구들과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벽성군녀맹위원장 조옥희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도록 하고 기념보고와 각계 인사들의 축하, 소년단축하단의 축하문, 종군시인의 시 낭송,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축하공연을 진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일정을 짜주신다. 또한 경축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대책을 취해주시나.

여성들도 영웅이 될수 있다는 크나큰 담력을 지니도록 하여주시어 이 땅에 수천수만의 조옥희들이 태어나도록 여성들의 심장에 애국의 세찬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님.

소설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환경 속에서도 온 세상이 보란듯이 3.8국제부녀절경축대회를 소집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의지와 크나큰 담력, 통이 큰 작전과 배짱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갈 주인으로 밀어주고 내세워주신 그이의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경축대회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인간관계를 잘 짜고있으며 그로 하여 비교적 짧은 분량을 가지고도 예술적감화력이 있게 이야기를 잘 펼치고있다.

우의 두편의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가운데서 자그마한 단면을 취하여 이야기를 담담하게 펼쳐나가면서도 작품의 사상을 전사회적인, 정책적인 문제로 승화시키나 간데서 그 우점을 찾아볼수 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풍부한 내면세계를 깊이 보여줄수 있도록 수령님의 시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작가의 시점을 교차시켜 직접적인 묘사를 일관하게 주고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생활을 작가와 제3의 인물의 시점에서 그리기도 하고 수령과 작가의 시점에서 그리기도 할수 있다. 여기서 수령의 풍부한

내면심리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자유분방하게 펼쳐주자면 수령과 작가의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우의 두 작품들은 이런 의미에서 수령과 작가의 시점을 잘 배합시켜 수령의 깊은 내면세계를 잘 그렸다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 《맑게 개인 하늘》은 오랜 지식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의 세계를 심각한 내부체험세계를 통하여 훌륭히 형상한 작품이다. 다만 작품의 결속부분에서 한 지식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세계에 대한 사상을 온 나라 지식인들에 대한 문제로 승화시켜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창작에서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주제를 바로세워나가는것과 함께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잘 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는 수령형상소설에서도 그대로 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독특하고 생동한 생활세부들을 잘 탐구리용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사과꽃》에 인입된 무우쫄각세부는 참으로 시사적이다.

작품에서 해방된 이듬해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원홍땅을 찾으시였을 때 환영하러 나온 마을사람들속에 아이를 업은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무우쫄각이 쥐여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가난의 흔적을 털어버리지 못한 여인의 허름한 차림새며 아이의 여윈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쥐여진 생무우쫄각을 보시고 매우 가슴아파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추켜세울 여러가지 방도를 의논하시면서 집 주변과 산기슭에 과일나무들을 심을데 대하여서도 세세히 가르쳐주시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깃든 력사의 고장 원홍. 이러한 사연을 가슴깊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이 원홍땅에 현대적인 과원을 일떠세울 구상을 펼치시고 그 과업을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에게 맡겨주시나.

이 무우쫄각세부는 파수종합농장건설을 책임진 윤승권의 어린시절과 잇닿아지며 그가 왜 말할 때마다 원홍을 가리켜 입버릇처럼 《우리 원홍》이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보인다.

이처럼 단편소설에서 하나의 이채롭고 독특한

생활세부를 인입하여 이야기를 줄기차게 끌고나간 것은 작품의 견인력과 예술적 흥미를 더해준다.

지난해에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거둔 성과는 이 밖에도 언어형상이 기쁨진 단편소설 《신해만의 풍경》이라든가 정서있게 씌여진 다른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다만 단편소설 《이 하늘 이 땅은...》(박종철 작, 7호), 《약동하는 계절》(김진경 작, 10호)을 비롯한 몇편의 작품들을 보면 상대인물의 격이 잘 보장되지 못하여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옛보임에도 불구하고 웅당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수령형상소설에서 상대인물의 격을 높이는 문제는 앞으로의 창작실천에 자못 중요한 교훈을 주고있다.

작가의 혁신적안목은...

지난해에 현실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단편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어 《조선문학》잡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그가운데서 단편소설 《새로 온 지배인》(배경휘 작, 4호), 《천리마를 탄 처녀》(림봉철 작, 5호), 《필요한 사람》(김기범 작, 11호), 《갈대숲서정》(곽성호 작, 8호) 등은 사상예술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새로 온 지배인》에서는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가야 할 오늘의 시대와 현실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 과학과 기술로 시대앞에 걸머진 임무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해결해나가는 사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자기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예술적 해명을 주고있다. 이러한 인간문제의 설정과 해명은 지식경제시대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과 함께 높은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대오의 앞장에 설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높은 정신력도 실력이 있어야 은을 내게 된다. 따라서 실력이자 곧 실적이라는 현실적요구를 외면한 일군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우의 작품이 제기한 새로운 인간문제의 진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에서는 대학때부터 실력에서 서로 앞자리를 다투던 경쟁자이며 대학생과학탐구상도 함께 수여

받은 한학급동창생들인 제대군인출신 옛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였던 명수와 그를 몹시 존경하고 따랐던 한미영을 주요인물로 내세워 이야기를 극성이 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이들은 근 10년만에 다시금 한초소에서 만난다. 조명수는 지배인으로, 한미영은 시험실기사로...

조명수는 부임되어오자마자 시내의 전력공급정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계통도를 만들고 큰 전력예비를 찾아내어 새로 건설되었거나 개건확장된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 혁신적인 안을 제기한다. 한편 각종 설비들의 상태를 검사하고 시험이나 책임적으로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기보신의 울타리를 쳐놓고 생활하던 한미영은 지배인이 주는 보충과업을 수행하면서 점차 개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두 인물의 인생관의 차이로부터 오는 생활목표와 사고의 차이는 동창생이라는 독특한 인간관계로 하여 소리없는 내적갈등으로 심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갈등은 외적인 충돌로써가 아니라 긍정적주인공인 명수의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안목과 실천투쟁속에서 발휘하는 비상한 전개력과 완강한 투지로 일을 제끼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그릇된 인생관을 바로잡는 한미영의 성격발전으로 해결된다.

작품의 우점은 부단히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나가는 일군만이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쓸모있는 일군으로 될수 있다는것,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수행에만 머리를 쓰고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지 않는다면 종당에는 시대의 락오자로 될수 있다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보인데 있으며 두 대조되는 인물을 극적관계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고나간데 있다.

지식경제시대의 혁신적안목이 없이는 들끓는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예술적해명을 줄수 있는 작품을 써낼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단편소설 《필요한 사람》에서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배기자존심은 어떤것인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에서는 혁신자선발문제를 둘러싸고 과학기술강국을 세우기 위해 온 나라가 분발해나선 오늘의 시대에 혁신자라는 말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지난 시기에는 맡겨진 생산과제를 남보다 육체적으로 두배, 세배 해제끼는 사람을 혁신자로 보았다면 오늘날에는 기술을 아는 사람, 두뇌로 일을 해

제끼는 사람이 진짜혁신자》라는 뜻이 깊은 대사로 철학성있는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우리 시대 진짜혁신자는 자기를 지켜내고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뿐아니라 자기의 부족점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분발해서 극복해나가는 참된 자존심을 지니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난날에 남보다 좀더 배웠다고 해서, 한때 기술혁신의 앞장에 섰다고 해서 고집과 독단만을 부리며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려먹는식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종당에 시대의 락오자로 떨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작품에서는 현대적인 공장설비로 팡팡 생산을 하는데 만족하여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혁신하려 하지 않는 직장장 진명이와 오랜 경험과 높은 기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최첨단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지금에 와서 자신의 부족점을 제때에 알고 젊은이들의 새 기술혁신안을 적극 도와주는데서 자기 위치를 찾는 학민아바이 그리고 새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젊은 노동자 영민 등 여러 인물관계를 통하여 누구나 새것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지식경제시대에 자기의 위치를 찾고 기술혁신의 봉화가 타오르는데서 한몫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될수 있음을 잘 풀어보이고있다.

작품에서 특색있는 인물형상은 자신을 제때에 잘 알고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새 세대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서서 이들의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될 각오를 굳게 다지는 학민아바이의 성격이다.

단편소설 《천리마를 탄 처녀》는 천리마동상 불장식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진하는 시대에 자신을 따라세우며 그 과정에 사랑도 희망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두 청춘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아기자기하면서도 정서있게 생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특색있는 묘사와 정서적이면서도 밝은 양상, 주인공들의 락천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으로 하여 이채로운 맛을 주

고있다.

《선군천리마는 오늘에 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반드시 타고 내달려야 할 시대의 준마》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노도치며 전진하는 시대의 흐름속에, 혁명적대고조의 대오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있는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지난해에 발표된 단편소설들가운데는 구성이 독특하고 예술적기교가 이채로운 작품들도 있다.

레컨대 단편소설 《우리 노래의 가락》(김홍균 작, 1호)은 이렇다 할 중심주인공이 설정되지 않고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으로서 예술적 흥미가 있게 이야기가 펼쳐져있다. 다만 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료양소생활을 두고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그것이 리치에 잘 맞지 않는것으로 하여 진실성의 측면에서 논의할바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단편소설 《아버지들》(림봉철 작, 8호)은 작가의 깊은 탐구가 깃들어있으나 시점을 지나치게 분산시켜 이야기를 토막내였으므로 읽기 힘든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구태의연한 문제를 들고나온 작품도 있다.

특히는 현실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함남의 불길의 창조자들의 모습이나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부문 일군들의 모습이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해 단편소설창작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와 교훈을 똑바로 알고 올해에 명작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힘차게 펼쳐나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명작창작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고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창조되는 들끓는 대고조의 전투장에 나가 현실체험을 진지하게 할뿐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피라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다.

상 식

식 후에 삼가해야 할 몇 가지 생활습관

- 인차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10배나 커진다.
- 인차 차를 마시면 음식이 체내에서 흡수되는것을 저해한다.
- 인차 잠자리에 누우면 비만증을 초래한다.

- 다과 특히 과일을 인차 먹으면 위장기능에 장애를 주게 된다.
- 인차 목욕을 하면 위장에서 피흐름량을 줄여 소화기계통의 기능을 급속히 약화시킨다.

달이 알아 별들이 알아

위 명 철

벌써 열흘째라지
청산벌 모내는기계 운전공처녀와
뜨락또르공장 조립공총각
한낮엔 벌가득 푸른 모 입혀놓고
저녁엔 어김없이 만난다지

지난봄처럼
반갑게 만나
낮에는 벌에 새기고
밤에는 달과 별들에 새기는 진정들
일잘하고 인물잘난 제대군인이라지
농장의 보배처녀 영옥이라지

정말로 그 진정 보배로웁다
헤어져사는 그날에도
농장소식 공장소식
서로의 가슴에 안고살며
애국의 마음 불태우는 그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그 자옥 그리도 뜨거운 땅에
우정만 아닌 사랑의 정으로
이 땅을 빛내온 그들

공장이 청산벌을 안았는가
청산벌이 공장구내에 이어졌는가
바라볼수록 한뜨락인듯만싶어
벌에는 모내는기계 뜨락또르동음 우렁차고
공장의 마음 언제나 벌에 잇대고사는 마음
그 마음이 펼쳐진 봄밤의 풍경이여

아직은 그들의 속삭임
그들이 만나는 사연 다 몰라도
밤하늘의 달이 알아 별들이 알아
그들이 이 벌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
은하수도 다리를 가깝게 놓았구나
그 한끝은 공장구내에
그 한끝은 농장벌에

봄새벽 모판에서

리 태 식

푸릿한 안개속에
저 멀리 동녘은 희붉해오는데
새벽들판은 벌써 떠들썩하다

흙을 치며 닭들도 울기 전에
누가 먼저 새벽문을 열었느냐
승벽을 다투며 모판을 타고앉아
모를 뜨고 모춤을 묶는 잣은 가락으로
모판의 고요를 깨치는 사람들

온 분조가 벌에서 장밤을 새운듯
철맞춰 벼모를 심어가도
채 마무리 못한 배미배미
가슴가슴에 맺혀

모판에 불이 달렸다
피눈물의 12월이 흐른 이 땅

낮에도 밤에도 안고살아
마음에도 불
일손에도 불
맹세의 불이 황황 탄다

저봐라
젊은이들과 겨루는 박아바이
못다 바친 충정의 날과 달을 셈하며
연해연방 모춤을 묶더니
어느새 한판을 말짱 비웠구나

정녕 불을 안았다
쌀때문에 어버이장군님 그리도 고생많으셨다고
땅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더니
쌀날가리 높이 쌓아 그 아픔 씻으려
힘과 용기를 안고 일떠선 사람들

사시절
 그 마음이 습배인 땅
 어찌 기쁨이지 않으랴 풍요하지 않으랴
 오탁도 그 마음에 무르익으리
 그 마음에 받들려
 강성국가 쌀낭가리 하늘높이 솟아나리

아,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맹세의 불길을 지펴가는
 봄새벽 모관 저너머
 무성한 여름이 설레고
 금나락 물결치는 풍요한 가을이 보인다

벽 시

미곡벌의 무지개 외 3편

조영일

온 나라가 떨쳐나섰구나
 미곡벌의 모내기철
 로동자들도 예술인들도

하늘엔 해가 밝게 웃는데
 논벌엔 아름다운 칠색무지개
 지원자들의 밝은 웃음이 피워올린 무지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불러주신 모내기전투
 푸른 하늘이 내려앉은듯 온벌은 푸른 들

그 무지개에 실려오는듯싶구나
 이 벌에 잇닿은 온 나라의 마음
 이 벌에 설레일 풍요한 가을이

벼포기야

이제는 모살이도 이겨내고
 논벌에 든든히 뿌리를 내렸구나
 어린 모들 어깨나란히 춤을 추누나

농사는 천하지대본!

너의 뿌리는 땅에 내렸지만
 농민은 너를 가슴에 심고 가꾼단다

벼포기야
 내 이제 너에게 주마
 나의 났 나의 사랑

지표값

종합분석실의 분석공처녀
 필지별 지력의 지표값을
 분조와 작업반에 알려준다

—우리 분조와 작업반의 지표값은?
 아, 그것은
 농민이 땅에 바친 사랑의 값
 땅이 농민에게 주는 값음의 무게!

들길에 서

하루의 모내기를 마친 저녁
 나는 문화회관으로 나섰네
 예술영화 《인민이 너를 아는가》보려

나는 보물처럼 쥐고 논판에 들어섰네

나는 보았네 보도랑가녁에
 외로이 떨어져있는 하나의 모춤

그러자 보도랑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
 나는 동무를 잘 알아요
 모춤도 따라외워요 나도 잘 알아요

젊은 소설가들의 창작에서 본 개성적문제

리 남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라면 자기의 뚜렷한 언어적개성을 가지고 창작에서 매번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형상을 들고나와야 한다.》

소설가들에게서 종자는 비반복적으로 골라야 하고 주제는 독창적으로 풀어야 하며 성격은 참신하게 그려야 한다는 등의 형상의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개성적인 언어문제를 확립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시된다.

우리의 소설문학사를 보면 리기영, 천세봉, 석운기를 비롯한 소설가들이 주제제기로부터 언어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고유한 얼굴과 문투를 뚜렷하게 보여주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문제제견지에서 보면 리기영은 향토맛이 나면서도 익살긋은 해학이 느껴지는 문제로, 천세봉은 땅과 농민의 체취와 성격이 풍기는 정서적인 문제로, 석운기는 뜻이 깊으며 고도로 분석화된 정론적 및 풍자해학적필치로 그 특징이 뚜렷하였다.

관록있는 많은 작가들의 뒤를 이어 중견작가들의 무계있는 자욱이 문단에 계속 찍혀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젊은 소설가들이 문단에 많이 등장하여 발전하는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들의 소설가적면모를 꾸준히 쌓아가고있다.

그가운데서 김정일, 림봉철의 련이은 단편소설창작이 선군시대 소설문단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김정일은 단편소설 《다시 찾은 열쇠》, 《나래를 퍼덕이라》, 《내 마음속의 언제》, 《나의 희망 별하늘》의 창작으로 문단에 자기 자욱을 뚜렷이 남기기 시작한 열정적인 소설가이다.

림봉철 역시 단편소설 《12월과 12월》, 《천리마를 탄 처녀》, 《아버지들》 등의 창작으로 걸음걸음 보폭을 넓히고있다.

김정일의 소설들에서 무엇보다 평가할것은 예리한 사회적문제의 제기와 단편적기교의 련마이다.

그의 매 소설들에서 독자는 젊은 소설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낀다. 선군시대 현실속에서 제기되는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단 두세명의 등장인물로 재치있게 해명하여 보여주는 솜씨는 아주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는 선군시대 청춘들이 지녀야 할 리상의 높이문제, 그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의 새로운 전진적보폭문제를 내세운다. 그리고 어느 긍정을 적극 내세우고 어느 부정을 격렬하게 타매하기보다는 서로 격이 있는 인간들사이의 자문자답으로 기본골조를 쌓아나간다.

주제제기, 구성상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그의 문제적개성이 이루어지는바 그의 문제는 자문자답의 성격을 띤 짧고 예리한 문투로 평가된다.

《〈왜 그러세요, 기사동무?〉

〈신고있는 구두가 우리 공장 제품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아니, 그지요.〉

그가 싱긋 웃음을 보였다.

명미는 은근히 부아가 났다.》

(단편소설 《나래를 퍼덕이라》중에서)

《〈정말 옥진이가 맞아?... 나 신핵이요!...〉

...

〈뜻밖이에요... 몰라볼번 했어요...〉

...

〈옥진이, 일이 이렇게 될줄은... 힘껏 달음쳐오느라고 했는데...〉

...

〈되겐 빨랐군요.〉》

(단편소설 《나의 희망 별하늘》중에서)

《운핵이 먼저 서먹한 침묵을 깨쳤다.

〈옥주동문 앵돌아지니까 앵두갈애, 익지 않은 퍼런 앵두...〉

〈흥!〉

〈아, 흥미있다는 홍자로군.〉

옥주는 그만 피씩 웃음을 보이고말았다.

〈옥주... 물론 내가 아직은 변변치 않아. 기술이 늘지 않아 옥주동무 속을 태우구... 하지만...〉

옥주는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기술도 펴 늘었어요. 사실은...〉》

(단편소설 《다시 찾은 열쇠》중에서)

레문들에서 아직 심각하고 예리한 자문자답의

문맥은 느껴지지 않는다. 보다는 단편소설답게 짧고 간명한 어휘문장조직이 우세하게 느껴진다. 단마디로 묻고 단마디로 대답하고 혹은 대사를 채가무리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의문과 여운을 주는 문장들이 두드러진다.

아름다운 청춘남녀들은 같은 일터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전진한다. 누가 더 아름다울것인가. 누가 더 앞선 사람일것인가.

단편소설 《나래를 퍼덕이라》와 《나의 희망 별하늘》에서 자문자답의 심도가 뚜렷하게 짙인다.

—그러나 스스로 엮은 채찍으로 자신의 삶을 부단히 재촉해야만 꼭 재능과 실력의 소유자로 되는 것일까?

—정말 철운이 현실에 착실히 발을 붙이지 못하고 헛된 공상으로 자신도 남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일까?

—정말 내가 그런 인간이 되었을가?

그의 말대로 언젠가는 영영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게 아닐가?...
(단편소설 《나래를 퍼덕이라》중에서)

—왜 가셨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공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어떻게 하고 왜 벌써 가셨어요!...

—옥진이, 낡은것을 고집하는게 아버지를 지켜드리는걸가?

—재능이란 사회와 집단의 헌신적노력의 열매가 아닐가? 그것은 개인의것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이 베풀어준 가장 값있고 소중한 사랑이고 믿음이 아닐가?...
(단편소설 《나의 희망 별하늘》중에서)

두 소설에 걸쳐 일관하게 쓰이는것은 연속적인 자문자답이다. 자신들에 대한 물음의 연속인가 하면 그에 따르는 하나하나의 대답도 답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물음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그 과정에 단편소설들은 저도 모르게 마무리되는것이다. 이 소설들이 단편인만큼 시공간적으로는 긴 시일이 놓여있지 않으며 한 물음과 다른 물음사이엔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이 파중하게 끼이지도 않는다.

보다는 작은 세부들이 주인공들의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 결과로 물음과 물음사이엔 서로 바투 다가선다.

이로 하여 소설가 김정일은 자기의 자문자답투를 단편형식에 완전히 융해시켜서 내용과 형식의 적절한 일치를 보여준다.

김정일의 문체가 짧고 간명한 자문자답투로 특징지어진다면 림봉철의 문체는 생기발랄하고 해학적인 정서가 풍기는 문체로 두드러진다.

소설가 림봉철이 택하는 생활령역과 소재는 김정일과 달리 매번 자유분방하다. 수령형상세계가 있는가 하면 조국해방전쟁주제도 있고 현실주제도 있다.

날카로운 문제점의 설정보다는 인간과 그 생활의 깊은 내면세계를 심오히 보여주고저 하는 지향이 보인다.

때문에 그의 소설들은 단편치고 시대력사적구간이 비교적 넓으며 이에 따라 소설의 중심이 깊어지면서 비교적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소설의 언어문체가 어둡거나 시종 묵직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의 언어문체는 구수하며 해학적이다. 그의 소설의 끌리는 멋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력사적으로 심중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혀 무겁고 둔중한감을 주지 않으면서 시종 엇구수하고 해학적인 언어, 문장의 편발로 작품의 운치를 돋구는것이 이 소설가의 은근한 매력이다.

그렇다고 하여 걸발림, 흥미본위의 기지와 해학을 바르지도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된다.

그는 소설의 요구에 맞게 시대력사적으로 형성된 속담들, 격언들, 풍부한 생활속에서 찾아낸 형상적비유를 적절히 리용한다.

—멀리 탈곡장에 서있던 프락포르가 저도 우스운지 탕탕탕— 요란스럽게 웃어대며 들길로 나가고있었다.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우리를 보고 남의 넋쿨에 열리는 참외가 되라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당이 있고 인민민주주의주권이 있으며 혁명적로동계급 당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의 바지가행이에 가막살이처럼 붙어서 사회주의에로 가겠습니까?
(단편소설 《12월과 12월》중에서)

수령형상소설의 품위와 양상을 흐리지 않으면서 통속적이고 구수한, 그러면서도 뜻이 깊고 명백한 속담, 비유의 요긴한 리용이 매우 인상적이다.

단편소설 《아버지들》에서는 경찰조원들의 감동적인 최후가 뜻밖에도 생기발랄한 기지가 비긴 해학적문구들과의 교차속에 그려진다.

때문에 극성이 더욱 강해지고 경찰조원들의 최후가 보다 날카로운 아픔을 자아낸다.

—원래 경찰병들의 병실에는 새까만 신식전화가 짝을 맞춰있었다.… 그후 외로이가 된 전화기는 《홀아비》로 불리웠다.

—《아, 앞으로 넣든 뒤로 넣든 순대야 순대지요!》

—《저런! 홀아비 호박밭에 들어가면 애호박부터 판다더니…》

—《원 옥심두, 배에 쟁길만큼 부려야지.》

단편소설 《천리마를 탄 처녀》는 해학, 기지가 더욱 풍부하다.

—만개의 별과 백개의 달이 걸린것보다 더 밝고 아름답게 설레이는 밤이었다.

—어유 엉큼하기두… 뻘찌만 차고다니는줄 알았더니 글썽 총각조수까지 척 차구, 호호…

—…난 정말 농장원이 류벌공의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게 우리 동무들이 날보고 《빼람속의 꽃》이라고 했지요.

보는바와 같이 소설가 림봉철은 자기의 문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구수하면서도 류창한 음색의 어휘들을 선택배렬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고른 진실한 형상적비유들을 편발한다. 때문에 그의 언어문장은 난해하지 않다. 심오한 뜻이 그지없이 통속적이고 뜻깊은 어휘문장들에 의해 스스로 없이 납득된다.

젊은 소설가들의 창작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창작에서 주제, 구성면에서뿐아니라 문체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참신한 개성을 계속 보여주라.

우리의 젊은 작가들은 넘치는 패기와 재능을 의지적으로 발휘하고 련마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선군시대 독자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대전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소 개

1920년대 시세계에서의 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이밖에도 일제시기에 진보적인 작품을 창작한 신채호, 한용운, 김억, 김소월, 정지용과 〈카프〉의 〈동반자〉라고 불리운 소설가 심훈, 리효석, 근대아동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작가 방정환, 〈노들강변〉을 비롯하여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한 문호월, 〈아리랑〉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경향이 좋은 예술영화를 만든 라운규와 같은 작가, 예술인들을 문학사와 예술사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1920년대 시문학의 진보성을 론할 때 특징적인것은 잃어버린 님—빼앗긴 조국에 대한 시인들의 진정의 토로이다.

이 시기의 많은 시인들이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빼앗긴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의 서정을 님, 그대, 당신, 그 사람과 같은 우회적인 시어들을 통하여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그 대표적시인으로 신채호, 한용운, 김소월을

들수 있다.

신채호의 《한 나라 생각》, 《너의것》, 《매암의 노래》, 김소월의 《금잔디》, 《님의 노래》, 《초혼》, 한용운의 시 《최초의 님》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서정시들이 잃어버린 님—빼앗긴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차넘친다.

이들은 빼앗긴 조국을 님으로 상징하여 부른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서정적지향과 깊이에서 개성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도 보인다.

신채호의 님에 대한 서정은 랑만적인것과 파격적인것, 부드러운것과 강렬한것이 대조되는 동시에 서로 어울려 강한 인상을 남긴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
여기저기 비치우고지고
님의 나라 밝아지게

…

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저기 불고지고
님의 나라 깨끗하게

...

살은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되어라
님나라에 보태지게

(시 《너의것》중에서)

님에 기탁한 신채호의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애국충정과 향토애의 감정이 조국에 바치는 헌신적지향과 결부되어 거세차게 맥박친다. 님나라에 해가 되고 바람되리라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서, 살은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되리라는 파격적인 정서, 판이한 두 정서가 하나로 조화되면서 넓과 육체를 빼앗긴 조국-님나라에 짙그리 바치려는 시인의 사랑과 헌신적기개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킨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리는것(기다리고 바라는것)은 다 님》이라고 본 시인 한용운의 시편들은 백여편이 거의 모두 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되어있다.

당신이 계실 때에 알뜰한 사랑을 못하였습
니다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
하였습니다
게다가 나는 성격이 팽담하고 더구나 가난
에 쫓겨서
병들어 누운 당신에게 소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난 근심보다
누우치는 눈물이 많습니다

(시 《후회》)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둡니다

(시 《님의 침묵》)

시인은 님에게 다 바치지 못한 사랑을 두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우리 조국은 비록 일제에게 빼앗겼지만 조국에 대한 인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 사랑으로 기어이 님을 되찾게 되리라는 신념을 노래하였다.

님, 당신에 대한 한용운의 서정은 상징적형상으

로 일색되어있으면서 시적론조가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신채호, 한용운에 비하여 김소월의 님에 대한 서정은 지극히 연연하다.

김소월은 잃어버린것에 대한 비애와 사모로 가슴저미며 잃어진 모든것을 다시 찾고싶은 애착과 소망으로 마음태운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파아란 불빛은
가신 님 무덤가의 금잔디

시 《금잔디》에서 봄의 서정은 가신 님에 대한 가슴아픈 추억과 그리움으로 하여 짙은 애수에 젖는다. 봄은 왔으나 그 봄은 빼앗긴 조국의 산야에 온 봄이어서 애뜻하고 정다운 느낌보다도 쓸쓸하고 눈물겨운 애수를 자아낸다. 님이 갔다고 님을 잊을수 있는가. 서정적주인공은 가신 님 무덤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깨끗한 금잔디를 입힌다. 그것은 단순히 봄이 썩워주는 금잔디가 아니라 가신 님-빼앗긴 조국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서정적주인공-인민이 입히는 금잔디이다.

김소월은 님을 노래함에 있어서 언제나 작고 섬세한 시적세부를 파고들면서 아담하고 정교한 시형상을 보인다.

보는바와 같이 시인들은 님을 노래함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구별된다.

신채호의 시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과 님을 빼앗은자에 대한 증오가 함께 소용돌이치고있으며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조국에 바치는 헌신적열정과 결합되어 립체적으로 안겨온다.

한용운의 많은 시편들에는 님은 갔지만 우리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으며 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추상적으로나마 기다리고 마중간다는 신념이 담겨져있다.

김소월의 시는 잃어진 모든것에 대한 비애와 사모가 기본이기때문에 님을 노래한 시전반이 대체로 애상적이다.

1920년대 시세계에서의 님들은 상징적, 추상적이며 님을 되찾기 위한 뚜렷한 방도가 없고 막연한 신심과 몸부림, 애수에 그친 제한성이 있으나 나라를 빼앗긴 인민들에게 조국, 향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심어주고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류 병 관

마자르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대표자 빼피외 산토르와 그의 시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마자르의 혁명적민주주의시인 빼피외(1823-1849)의 시들은 마자르에서 일어난 부르쾆아혁명의 시기 진보적사회층과 인민들을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마자르의 남부지방도시 끼슈피퇴슈의 상인가정에서 태어난 빼피외는 나날이 어려워만지는 자기 가정의 생활처지로부터 학교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어릴 때부터 전국각지를 방랑하면서 농노들의 무권리하고 비참한 생활, 반동세력이 살판치는 마자르의 가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아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게 되었다.

빼피외는 마자르에서 부르쾆아혁명이 일어나자 첫 폭동의 조직자,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맹활약하면서 전투적인 시를 창작하며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특히 그는 오스트리아침략자들과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탄압이 강화되고 봉기군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자 총을 들고 격전장에 뛰어들어 용감히 싸웠으며 전투의 썸시간에도 투쟁의 필봉을 놓지 않고 수많은 시들을 지어 봉기자들을 원추격멸으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그러던 빼피외는 1849년 반동들과 싸우다가 격전장에서 최후를 마쳤다.

비록 그는 26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애를 보냈지만 그 짧은 기간에 수많은 시가들을 창작하여 마자르에서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마자르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대표자로 당당한 한페지를 장식하였다.

그의 시들은 오스트리아강점자들과 마자르지주계급의 2중적인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불행한 생활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였고 민족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한것으로 하여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로 평가되고있다.

빼피외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오스트리아강점자들과 마자르지주들의 2중

적인 착취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한 동정과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이다.

《청춘이여 너는...》(1846), 《나는야 퇴역군인》(1844), 《왕을 반대하여》(1844), 《땅이여 너는 무엇을 얻었는가?》(1846) 등은 이 주제의 대표적작품들이다.

시 《땅이여 너는 무엇을 얻었는가?》에서는 착취계급의 독점물로 되어버린 저주로운 땅에 의탁하여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 살아가는 지배계급을 단죄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내고 불행과 고통, 슬픔만을 강요하는 사회를 규탄하고있다.

빼피외의 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잃어버린 조국의 자유, 인민의 자유를 기어이 되찾으려는 강렬한 지향이다.

자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온갖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의 강한 호소는 민주주의문학의 대표자로 되게 한 근본조건으로 되고있다.

《사랑과 자유》(1846),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1847), 《그 사나이는 어디 갔는가》(1848), 《혁명》(1848), 《다만 투쟁만이》(1847) 등의 시작품들에는 자유와 투쟁, 혁명에로의 랑만적호소와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신념이 줄기차게 맥박치고있다.

시 《사랑과 자유》에서는 자유를 위하여서는 사랑도 청춘도 다 바칠 굳센 결의가 노래되고있다.

사랑과 자유

이는 내가 념원하는 모든것

하기에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목숨 바쳐도 뉘우침 없으리라

허나 자유를 위해선

사랑이여

내 너마저 바치리라!

사랑은 인간의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이기에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자유는 사랑보다도 더 귀중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웨침속에는 조국의 자유, 인민의 자유를 기어이 실현할 굳센 결의가 굽이치

고있다.

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에서는 반의적인 수법으로 원쑤에게 죽음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시인이 될 결심과 의지가 노래되고있다.

내 술한 시를 썼노라
그러나 나의 명예로 될 시편은
오직 우리 인민의 념원을 담아
원쑤에게 복수할 그런 시

오, 작별의 칼날로
천만원쑤의 심장에
《죽음》이란 글자를 새겨주리라
바로 이것이 마침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되리라!

보는것처럼 시인이 쓴 많은 시들가운데서 시인의 영예로 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원쑤에게 죽음을 줄 시이다. 여기에는 원쑤를 격멸하는 싸움마당에서 인민을 선도하는 투쟁의 기수가 되려는 드높은 결의가 담겨져있다.

빼빼피시문학의 주요한 주제사상적내용을 이루고있는것은 또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다. 이 주제의 대표적작품들인 《머나먼 곳에서》(1843), 《고향에서》(1842), 《거문고와 칼》(1844), 《나는 마자르사람》(1847), 《조

국을 위하여 술 마시리》(1844) 등에서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깊은 서정속에 감명깊게 시화되고있다.

우선 시 《머나먼 곳에서》에서는 고향을 떠나남의 나라 땅에서 인생길을 헤매는 서정적주인공의 조국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조국애의 감정은 빼빼피의 거의 모든 시가들에 질게 깔려있으며 그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으로 되게 하였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빼빼피는 미래에 대한 광만적정서와 사실주의묘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의미깊은 시적세부를 찾아내고 생활적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표현들을 리용하여 정론성이 강한 자기의 문체론적특성을 선명하게 돋구고있는 것과 같은 일련의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빼빼피는 근로인민의 진정한 해방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의 민주주의사상은 혁명적이고 진보적이었으나 부르쵸아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비록 이러한 사상적제한성은 있으나 빼빼피의 시문학은 마자르의 민족해방투쟁과 진보적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빼빼피는 마자르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대표자로 세계문학사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박 용 덕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5호 (루계 제775호)

편집위원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101(2012)년 5월 1일
발 행 주 체101(2012)년 5월 5일

ㄱ-2623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